



정답과 해설·채움

비문학

I 더하기	4
II 빼기	32
III 곱하기	52
IV 나누기	74

빠른 정답 찾기

I 더하기

본문 8~47쪽

01

확인 1 ② 2 ③ 3 ② 4 (1) ○ (2) ×
5 (1) 인과 (2) 인용

A 1 ① 2 ③ 3 ② 4 ③

B 1 ① 2 ② 3 ③ 4 ③

C 1 ① 2 ① 3 ⑤ 4 ⑤

D 1 ③ 2 ① 3 ③ 4 ①

02

확인 1 ① 2 (1) ○ (2) ○ 3 ① 4 ①

A 1 ② 2 ④ 3 ③ 4 ⑤ 5 ①

B 1 ⑤ 2 ④ 3 ① 4 ⑤

C 1 ④ 2 ⑤ 3 ① 4 ③ 5 ⑤

D 1 ① 2 ⑤ 3 ③ 4 ④

03

확인 1 ② 2 ① 3 ③ 4 ① 5 ①

A 1 ⑤ 2 ④ 3 ③ 4 ①

B 1 ③ 2 ⑤ 3 ① 4 ④

C 1 ⑤ 2 ① 3 ① 4 ②

D 1 ⑤ 2 ④ 3 ① 4 ④

04

확인 1 ① 2 (1) ○ (2) × 3 (1) ㉠, ㉡ (2) ㉢
4 ② 5 ① 6 ③

A 1 ② 2 ③ 3 ② 4 ④

B 1 ③ 2 ④ 3 ④ 4 ①

C 1 ③ 2 ① 3 ④ 4 ②

D 1 ④ 2 ① 3 ⑤ 4 ③

II 빼기

본문 50~79쪽

05

확인 1 (1) ○ (2) × (3) ○ (4) × 2 ② 3 ①
4 (1) 헬리콥터 (2) 비행기

A 1 ① 2 ① 3 ② 4 ④

B 1 ④ 2 ① 3 ⑤ 4 ⑤

C 1 ① 2 ① 3 ③ 4 ①

D 1 ② 2 ② 3 ④ 4 ⑤

06

확인 1 (1) × (2) ○ (3) ○ 2 (1) 중 (2) 중 (3) 뒤
(4) 뒤 3 ① 4 (1) ○ (2) ○ 5 ①

A 1 ④ 2 ② 3 ② 4 ⑤

B 1 ① 2 ① 3 ② 4 ④

C 1 ⑤ 2 ① 3 ④ 4 ④

D 1 ① 2 ① 3 ② 4 ③

07

확인 1 (1) × (2) ○ 2 (1) ○ (2) × 3 ② 4 ②
5 ③

A 1 ③ 2 ② 3 ⑤ 4 ④ 5 ④

B 1 ③ 2 ⑤ 3 ① 4 ③ 5 ⑤

C 1 ② 2 ② 3 ② 4 ③

D 1 ③ 2 ① 3 ③ 4 ②



III 곱하기

본문 82~111쪽

8	확인	1 ③ 2 (1) ○ (2) × 3 ① 4 ③ 5 (1) ○ (2) ×
	A	1 ③ 2 ④ 3 ① 4 ③ 5 ①
	B	1 ③ 2 ② 3 ③ 4 ②
	C	1 ③ 2 ④ 3 ⑤ 4 ②
	D	1 ② 2 ③ 3 ① 4 ⑤
9	확인	1 ③ 2 (1) 크다면 (2) 줄이는 3 ②
	A	1 ⑤ 2 ① 3 ③ 4 ⑤ 5 ①
	B	1 ② 2 ④ 3 ② 4 ③
	C	1 ① 2 ③ 3 ③ 4 ③
	D	1 ④ 2 ⑤ 3 ② 4 ⑤
10	확인	1 (1) L (2) ㄷ (3) ㄱ 2 (1) × (2) ○ 3 ①
	A	1 ③ 2 ④ 3 ④ 4 ②
	B	1 ④ 2 ⑤ 3 ③
	C	1 ③ 2 ⑤ 3 ④ 4 ④
	D	1 ⑤ 2 ③ 3 ③

IV 나누기

본문 114~133쪽

11	확인	1 (1) 공 (2) 차 (3) 차 2 (1) ○ (2) ○ (3) × 3 (1) × (2) ○ (3) ○ 4 ③
	A	1 ③ 2 ① 3 ④ 4 ③
	B	1 ⑤ 2 ⑤ 3 ② 4 ②
	C	1 ③ 2 ⑤ 3 ① 4 ②
	D	1 ③ 2 ④ 3 ④ 4 ①
12	확인	1 ① 2 ① 3 ③
	A	1 ④ 2 ④ 3 ① 4 ③
	B	1 ② 2 ④ 3 ④ 4 ⑤ 5 ③
	C	1 ④ 2 ④ 3 ① 4 ②
	D	1 ④ 2 ② 3 ①



확인 1 답 ②

이래서 정답

- ② <보기>의 “가령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를 하는 ~ 이 두 ‘10시간’은 결코 같을 수 없다.”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10시간과 출장길 비행기에서의 10시간과 같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독자의 관심을 이끌어 내고 있다.

확인 2 답 ③

이래서 정답

- ③ <보기>에서는 건반을 눌러 소리가 나는 과정을 각 센서의 역할과 함께 순서에 맞게 제시하고 있다.

확인 3 답 ②

이래서 정답

- ② <보기>에서 현상의 원인을 분석하거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왜 오답

- ① <보기>에서는 ‘시각상’과 ‘촉각상’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③ <보기>에서는 미술에서 대상에 대해 묘사할 때 무엇에 의존하느냐에 따라 시각상에 의존한 표현 방법과 촉각상에 의존한 표현 방법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확인 4 답 (1) ○ (2) ×

이래서 정답

- (1) (가)에서는 산업이라는 대상을 원료 취급 방식이라는 기준에 따라 1차, 2차, 3차 산업으로 나누어 서술하고 있다. (나)에서는 엘리베이터에서 이용한 도르래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도르래를 사용 목적에 따라 고정 도르래와 움직 도르래로 나누어 서술하고 있다.
 (2) (나)에서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고 있지는 않다.

확인 5 답 (1) 인과 (2) 인용

이래서 정답

- (1) (가)에서는 개별자 수준과 집단 수준의 인과가 독립적이라고 주장하는 철학자들의 입장을 ‘왜냐하면’, ‘때문’이라는 어휘를 활용하여 인과의 방식으로 밝히고 있다.
 (2) (나)에서는 수학자 라그랑주의 말을 인용하여 데카르트가 좌표 개념으로 수학 분야에 큰 업적을 남겼음을 강조하고 있다.

비교 우위 산업과 무역 발생

주제 비교 우위 산업에 의한 무역의 발생

구성

1문단	무역에 관한 의문 제기
2~3문단	기회비용에 의해 결정되는 각국의 비교 우위 산업
4문단	비교 우위 산업의 차이에 따른 무역을 통해 발생하는 각국의 이익
5문단	각국의 비교 우위 산업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한 해석의 견해
6문단	우리나라의 비교 우위 산업의 변화와 그 이유

1 답 ①

+ 다하기

이래서 정답

- ① 이 글에서는 각국의 비교 우위 산업이 존재하는 이유와, 그에 따른 수출입 재화의 결정과 무역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 등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비교 우위 이론의 한계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왜 오답

- ② 5문단에서 경제학자 해석의 견해를 들어 각국의 비교 우위 산업이 존재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③ 1문단의 ‘무역을 통해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또 무역에서 수출입 재화는 각각 어떻게 결정될까?’에서 질문을 던지는 형식을 활용하여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④ 3문단에서 비교 우위와 기회비용이라는 핵심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⑤ 2~4문단에서 A국과 B국이 자동차와 신발을 생산하는 가상적 상황을 예로 들어 비교 우위와 무역을 통해 이익을 얻는 현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문해 공식 적용 서술 방식_인용, 정의, 예시

‘20세기 초의 경제학자 해석은 국가 간 생산 요소 부존량의 상대적 차이가 비교 우위를 낳는다고 보았다.’

→ 인용

‘비교 우위란 어떤 재화 생산의 기회비용이 다른 나라보다 작은 경우를 의미하며, 이때 기회비용이란 그 재화 생산으로 인해 포기해야 하는 다른 재화의 가치를 말한다.’

→ 정의

‘A국과 B국에서 자동차와 신발을 생산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

→ 예시

2 답 ③

→ 보기

이래서 정답

- ③ 5문단에서 재화마다 각 생산 요소들이 투입되는 비율이 다르다고 설명하고는 있으나 재화 생산에 투입되는 각 생산 요소의 비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다.

❶ 왜 오답

- ① 6문단의 '각국의 비교 우위 산업은 국가 간 생산 요소 부존량의 상대적 차이가 변화함에 따라 바뀔 수도 있다.'를 통해 답할 수 있다.
- ② 4문단의 '무역을 통해 양국은 무역 이전에는 생산할 수 없었던 재화량의 조합을 생산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갖게 되어'를 통해 답할 수 있다.
- ④ 2~4문단을 보면 자동차 생산에서 비교 우위를 갖고 있는 A국이 자동차를 특화해 B국에 수출하고 신발 생산에서 비교 우위를 갖고 있는 B국이 신발을 특화해 A국에 수출하면, 무역을 하지 않을 때에 비해 양국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자발적인 무역이 발생할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교 우위를 갖는 산업의 재화가 각국의 수출품이 되고 그 반대는 수입품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⑤ 5문단을 보면 국가 간 생산 요소 부존량의 상대적 차이는 비교 우위의 원인이 되고, 비교 우위에 근거해 수출과 수입을 결정함으로써 무역의 이익을 발생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답 ②

X) 금하기

❷ 이어서 정답

- ② 3문단에서 A국의 자동차 생산의 기회비용이 B국의 자동차 생산의 기회비용보다 작으므로 A국이 자동차 생산에 있어 비교 우위를 갖게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B국이 신발 생산에 있어 비교 우위를 갖기 위해서는 B국의 신발 생산의 기회비용이 A국의 신발 생산의 기회비용보다 작아야 한다. 실제로 A국의 신발 1켤레 생산의 기회비용은 자동차 1/100(10/1,000)대이지만, B국의 신발 1켤레 생산의 기회비용은 자동차 1/200(3/600)대로 B국의 신발 생산의 기회비용이 A국의 신발 생산의 기회비용보다 작다.

❸ 왜 오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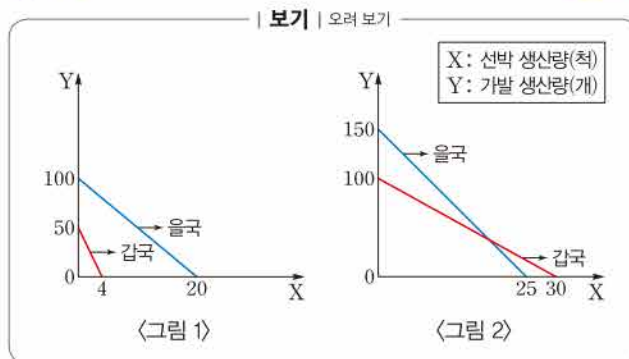
- ① 비교 우위는 어떤 재화 생산의 기회비용이 다른 나라보다 작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B국 내에서가 아니라 A국과 비교했을 때 성립한다. 이에 따르면 B국이 신발 1켤레를 생산했을 때 포기해야 하는 자동차가 A국에 비해 적을 때 신발 생산에 비교 우위를 갖게 된다고 볼 수 있다.
- ③ B국과 A국의 비교 우위는 동일한 재화를 비교했을 때 성립한다. 따라서 B국의 신발 생산의 기회비용이 A국의 자동차 생산이 아니라 신발 생산의 기회비용보다 작을 때 B국이 신발 생산에 비교 우위를 갖게 된다고 볼 수 있다.
- ④ 2문단에 따르면 이용 가능한 생산 요소를 모두 투입했을 때, B국은 신발 600켤레를, A국은 신발 1,000켤레를 생산할 수 있으므로 B국이 A국보다 신발 생산량이 더 크다

고 볼 수 없다.

- ⑤ 비교 우위는 B국 내 서로 다른 재화인 자동차와 신발이 아니라, A국과 B국의 신발 1켤레를 생산했을 때의 기회비용이 각각 자동차 몇 대에 해당하는지를 비교했을 때 알 수 있다.

4 답 ③

X) 금하기



❷ 이어서 정답

- ③ 갑국과 을국의 1970년과 2017년의 선박 1척 생산과 가발 1개 생산의 기회비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70년			→	선박 비교 우위 → 을국 가발 비교 우위 → 갑국
구분	선박 1척 생산 기회비용	가발 1개 생산 기회비용		
갑국	가발 12.5개	선박 0.08척		
을국	가발 5개	선박 0.2척		

2017년			→	선박 비교 우위 → 갑국 가발 비교 우위 → 을국
구분	선박 1척 생산 기회비용	가발 1개 생산 기회비용		
갑국	가발 약 3.33개	선박 0.3척		
을국	가발 6개	선박 약 0.16척		

2017년 갑국의 선박 1척 생산의 기회비용은 가발 약 3.33 (100/30)개이고, 을국의 선박 1척 생산의 기회비용은 가발 6(150/25)개이므로, 2017년 선박 생산의 기회비용은 을국이 갑국에 비해 크기는 하지만 2배 이상이 아니라 2배 미만이다.

❸ 왜 오답

- ① 1970년 갑국의 선박 1척 생산의 기회비용은 가발 12.5(50/4)개이므로 갑국이 선박을 2척 더 생산하기 위해서는 가발 생산을 25(12.5×2)개 줄여야 한다.
- ② 1970년 가발 1개 생산의 기회비용이 갑국의 경우 선박 0.08(4/50)척이고, 을국의 경우 선박 0.2(20/100)척이므로 갑국이 가발 생산에 비교 우위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보기>에 따르면 가발은 노동 집약적 재화이므로 가발 생산에 비교 우위를 지니고 있는 갑국은 을국에 비해 노동이 상대적으로 풍부했을 것임을 알 수 있다.

- ④ 2017년 가발 1개 생산의 기회비용이 갑국의 경우 선박 0.3(30/100)척이고, 을국의 경우 선박 약 0.16(25/150)척이므로 을국이 가발 생산에 비교 우위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보기>에 따르면 가발은 노동 집약적 재화이므로 가발 생산에 비교 우위를 지니고 있는 을국은 갑국에 비해 노동의 부존 비율이 상대적으로 클 것임을 알 수 있다.
- ⑤ 2017년 갑국의 선박 1척 생산의 기회비용은 가발 약 3.33(100/30)개이므로, 갑국은 선박 1척을 생산하거나 가발 약 3.33개를 생산할 수 있다. 따라서 갑국이 을국에 선박 1척을 생산하여 수출하고 가발 4개를 수입한다면, 가발 약 3.33개를 생산하지 못한 대신 그보다 더 많은 가발 4개를 수입할 수 있다. 따라서 갑국은 무역 전보다 더 많은 재화량의 조합을 생산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갖게 되어 무역을 통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 어휘

- **재화**: 사람이 바라는 바를 충족시켜 주는 모든 물건. 이것을 획득하는 데에 대가 필요한 것을 경제재라고 하며, 필요하지 않은 것을 자유재라고 한다.
- **특화**: 한 나라의 산업 구조나 수출 구성에서 특정 산업이나 상품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함. 또는 그런 상태.
- **집약적**: 하나로 모아서 뭉뚱그리는.

틀뢰즈의 '차이'의 철학

주제 틀뢰즈가 제시한 '차이'의 철학과 그 의의
구성

1문단	'차이'의 철학을 제시한 틀뢰즈
2문단	틀뢰즈가 구분한 '개념적 차이'와 '차이 자체'의 의미
3문단	'개념적 차이'에 대한 틀뢰즈의 견해
4문단	'차이 자체'에 대한 틀뢰즈의 견해
5문단	틀뢰즈의 '차이'의 철학의 의의

1 답 ①

+ 더하기

① 이래서 정답

- ① 이 글에서는 개념주의적 태도를 지닌 기존 사상가들의 관점을 비판한 틀뢰즈의 견해를 소금과 피아노 연주를 예로 들어 설명하고 그 의의를 밝히고 있다.

② 왜 오답

- ② 개념주의적 태도를 지닌 기존 사상가들의 관점을 비판한 틀뢰즈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이론의 차이점을 분석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두 이론의 공통점이나 이를 절충한 새로운 이론을 소개하고 있지는 않다.
- ③ 틀뢰즈의 '차이'의 철학의 변천 과정을 설명하고 있지 않으며, '차이'의 철학의 발전 방향에 대해 예측하거나 전망하고 있지도 않다.
- ④ 틀뢰즈의 견해의 특징을 드러낼 수 있는 역사적 사건을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틀뢰즈의 견해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있지도 않다.
- ⑤ 틀뢰즈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다른 견해를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사회적 현상을 분석하여 개념주의적 태도를 지닌 기존 사상가들의 견해와 틀뢰즈의 견해의 유사점을 부각하고 있지도 않다.

문제 공식 적용 서술 방식_반박·비판, 예시

"틀뢰즈는 이 세상에 동일한 것은 없다는 전제하에 세상을 개념으로만 파악하려는 태도를 비판하고 개별 대상의 다양성에 주목하는 '차이'의 철학을 제시했다."

→ 반박·비판

- '예를 들어 소금의 보편적 특성은 짭짤이나 흰색 등으로 볼 수 있는데 ~ 염도, 빛깔의 고유한 정도 차이에 해당하는 특성이 바로 개별 소금 입자의 차이 자체인 것이다.'
-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피아노로 같은 악보를 반복해서 연주한다고 할 때, ~ 연주는 차이 자체를 드러내게 되는 것이다.'

→ 예시

2 답 ②

× 곱하기

① 이래서 정답

- ② <보기>에서 한나는 함흥냉면과 평양냉면을 서로 비교하

는 책자의 내용을 통해 두 냉면의 차이를 알게 되었다. 그런데 2문단에서 들뢰즈에 따르면 개념적 차이란 어떤 대상과 다른 대상의 상대적 다름을 의미하며, 차이 자체란 개념으로 드러낼 수 없는 대상 자체의 절대적 다름을 의미한다고 하였으므로, 한나가 알게 된 두 냉면의 차이는 개념적 차이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첫 번째 댓글에서는 한나가 '절대적 다름', 즉 '차이 자체(㉔)'를 알게 된 것이라고 댓글을 잘못 작성하였고, 두 번째 댓글에서는 이러한 첫 번째 댓글의 오류를 지적하고 있으므로 ㉔에는 들뢰즈의 견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③ 왜 오답

- ①, ③, ④, ⑤ ㉔에는 '차이 자체', ㉔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가 들어가야 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3 답 ③

③ 이어서 정답

- ③ 3문단에 따르면 들뢰즈는 개별 대상의 고유한 특성을 무시한 채 개별 대상을 규정하여 개념에 포섭시키거나, 개념에 맞추어 세상을 파악함으로써 세상을 오로지 개념의 틀에 가두는 상황에서 개념의 폭력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개별 대상이 지닌 고유한 특성만을 중요시할 때 개념의 폭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③ 왜 오답

- ①, ② 3문단에 따르면 들뢰즈는 개념이 개별 대상들을 규정함으로써 개별 대상을 개념에 포섭시키는 상황(①)이나, 개념에 맞추어 세상을 파악함으로써 세상을 오로지 개념의 틀에 가두는 상황(②)에서 개념의 폭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 ④ 3문단에 따르면 들뢰즈는 개념만을 강조했을 때 개념의 폭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1문단에서 개념은 '여러 관념 속에서 공통 요소를 뽑아내어 종합해 얻어 낸 보편적인 관념을 말한다.'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 ⑤ 3문단에 따르면 들뢰즈는 미리 정해 둔 개념에 부합하는 개별 대상은 좋은 것으로, 그렇지 못한 개별 대상은 나쁜 것으로 가치를 결정하는 것을 개념의 폭력이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4 답 ③

③ 이어서 정답

- ③ 4문단의 '들뢰즈가 말하는 반복이란 되풀이하여 지각된 강도의 차이를 통해 개별 대상의 차이 자체를 발견해 나가는 과정을 의미한다.'에 따르면 들뢰즈는, <보기>의 앤

디 워홀이 같음을 생산하는 과정을 되풀이하여 어떠한 결과물도 같을 수 없음, 즉 '강도의 차이'가 지각될 수 있음을 보여 주려 한 것이라고 보았을 것이다.

③ 왜 오답

- ① 들뢰즈의 견해에 따르면 <보기>에서 세상을 개념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방법론인 헤겔의 변증법은 '개념적 차이'에 해당한다. 그런데 3문단에서 들뢰즈는 '개념적 차이'로는 대상만의 고유한 가치나 절대적 다름이 파악될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헤겔의 변증법을 활용하더라도 아인슈타인이라는 개별 대상을 온전히 규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을 것이다.
- ② 1문단의 '이러한 개념을 통해 체계와 기준을 머릿속에 먼저 정해 놓고 ~ 세상을 개념으로만 파악하려는 태도를 비판하고'에 따르면 들뢰즈는, <보기>의 세상을 개념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방법론인 헤겔의 변증법을 미리 만들어진 개념이 현실 세계의 개별 대상들을 규정하는 것으로 보았을 것이다.
- ④ 4문단의 '들뢰즈가 말하는 반복이란 ~ 감각적 경험을 의미한다.'에 따르면 들뢰즈는, <보기>에서 앤디 워홀이 실크 스크린을 통한 대량 인쇄 작업으로 제작한 작품들을 다른 것과 비교될 수 없는 감각적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작품들로 보았을 것이다.
- ⑤ 3문단의 '들뢰즈는 개념적 차이로는 대상만의 고유한 가치나 절대적 다름이 파악될 수 없다고 하였다. ~ 다른 대상에 의존하는 방식이어서, 그 과정에서 개별 대상의 고유한 특성이 무시되기 때문이다.'와 4문단의 '들뢰즈가 말하는 반복이란 되풀이하여 지각된 강도의 차이를 통해 개별 대상의 차이 자체를 발견해 나가는 과정을 의미한다.'에 따르면 들뢰즈는, 윤곽선의 변집이나 색상에서 조금씩 차이를 느낄 수 있는 앤디 워홀의 작품들에서는 다른 대상에 의존하는 방식으로서는 파악할 수 없는 강도의 차이를 느낄 수 있다고 보았을 것이다.

+ 어휘

- **부합**: 符信: 나뭇조각이나 두꺼운 종이에 글자를 기록하고 증인(證印)을 찍은 뒤에, 두 조각으로 찢개어 한 조각은 상대방에게 주고 다른 한 조각은 자기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서로 맞추어서 증거로 삼던 물건이 꼭 들어맞듯 사물이나 현상이 서로 꼭 들어맞음.
- **보편적**: 모든 것에 두루 미치거나 통하는 것.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주제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성공하기 위한 요건

구성

1문단	통화 정책의 개념과 대표적인 통화 정책 수단인 공개 시장 운영
2문단	통화 정책의 성공 요건 ① - 선제성
3문단	통화 정책의 성공 요건 ② - 정책 신뢰성_견해 1 준칙주의
4문단	통화 정책의 성공 요건 ② - 정책 신뢰성_견해 2 재량주의

1 답 ①

+ 더하기

◎ 이어서 정답

- ① 1문단에서 '통화 정책은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과 같은 경제적 목적의 달성을 위해 이자율이나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통화 정책의 목적을 간단하게 제시했을 뿐, 통화 정책의 목적을 유형별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지 않다.

❖ 왜 오답

- ② 2문단의 '예를 들어' 뒤에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선제적 대응에 실패한 경우를 제시하면서 통화 정책의 선제적 운용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 ③ 1문단의 '중앙은행이 채권을 매수하면 이자율은 하락하고, 채권을 매도하면 이자율은 상승한다. ~ 이자율이 상승하면 경기가 위축되고 물가 상승률이 떨어진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④ 1문단에서 통화 정책의 개념을 정의한 후, 대표적인 통화 정책 수단인 공개 시장 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⑤ 3~4문단에서 정책 신뢰성을 얻기 위해 중앙은행이 준칙을 일관되게 지켜야 한다는 준칙주의와, 정책 신뢰성은 중요하지만 중앙은행이 반드시 준칙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는 재량주의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문해 공식 적용 서술 방식_예시, 과정, 인과, 정의, 비교

-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경기 침체 국면에 ~ 경기 과열과 같은 부작용이 수반될 수 있다.'
- '가령 중앙은행이 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민간에 약속했다고 하자.'

→ 예시

- '중앙은행이 채권을 매수하면 이자율은 하락하고, ~ 이자율이 상승하면 경기가 위축되고 물가 상승률이 떨어진다.'

→ 과정, 인과

- '통화 정책은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과 같은 경제적 목적의 달성을 위해 이자율이나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이다.'
- '"공개 시장 운영"은 중앙은행이 민간 금융 기관을 ~ 결정된 기준 금리 수준으로 접근시키는 것이다.'
- '선제적이라는 것은 중앙은행이 경제 변동을 예측해 이에 미리 대처한다는 것이다.'
- '"기준 금리를 결정하고 공개 시장 운영을 실시하여 ~ 이를 정책 외부 시장"라 하며'

→ 정의

- '준칙주의와 대비되는 '재량주의'에서는 경제 여건 변화에 따른 신속적인 정책 대응을 지지하며 준칙주의의 엄격한 실천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

→ 비교

2 답 ①

+ 나누기

◎ 이어서 정답

- ① 준칙주의(㉠)는 중앙은행이 특정한 정책 목표나 운용 방식을 준칙으로 삼아 민간에 약속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를 지킴으로써 정책 신뢰성을 얻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준칙주의(㉠)에서는 가령 중앙은행이 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민간에 약속했을 때 물가가 안정된 후에도 경기 부양 등 경제 변동에 신속적인 대응을 하기보다는 애초의 약속을 일관되게 지키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 왜 오답

- ② 4문단에서 "'재량주의'에서는 경제 여건 변화에 따른 신속적인 정책 대응을 지지하며 준칙주의의 엄격한 실천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③ 통화 정책이 어떻게 민간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준칙주의(㉠)와 재량주의(㉡)의 견해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준칙주의(㉠)에서는 정책 신뢰성을 얻기 위해 어떤 상황에서도 준칙을 지킬 것을 주장하는 반면, 재량주의(㉡)에서는 정책 신뢰성이 중요하지만 이를 위해 반드시 준칙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본다.
- ④ 재량주의(㉡)는 통화 정책이 어떻게 민간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견해 중 하나로, 정책 신뢰성은 중요하지만 이를 위해 중앙은행이 반드시 준칙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본다. 즉 재량주의(㉡) 역시 통화 정책에서 민간의 신뢰 확보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4문단에 따르면 재량주의(㉡)는 경제 여건 변화에 따른 신속적인 정책 대응을 지지하는 입장이므로, 경제 상황 변화에 대한 통화 정책의 탄력적 대응이 효과적이라고 볼 것이다.

3 답 ⑤

+ 더하기

◎ 이어서 정답

- ⑤ ㉢의 '부양(浮揚)'은 '가라앉은 것이 떠오름, 또는 가라앉은 것을 떠오르게 함.'의 의미인 반면, ㉤의 '부양(扶養)'은 '생활 능력이 없는 사람의 생활을 돌봄.'이라는 의미이다.

❖ 왜 오답

- ① ㉠과 ㉡의 '파급'은 모두 '어떤 일의 여파나 영향이 차차 다른 데로 미침.'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 ② ㉢과 ㉣의 '발현'은 모두 '속에 있거나 숨은 것이 밖으로 나타나거나 그렇게 나타나게 함, 또는 그런 결과'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 ③ ㉢과 ㉣의 '수반'은 모두 '어떤 일과 더불어 생김.'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 ④ ㉠과 ㉡의 '유의'는 모두 '마음에 새겨 두어 조심하며 관심을 가짐.'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어떤 가상의 경제에서 2000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 분기 동안 중앙은행의 기준 금리가 4%로 유지되는 가운데 다양한 물가 변동 요인의 영향으로 물가 상승률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났다. ...

◎ 이어서 정답

- ⑤ 1문단의 '이자율이 하락하면 ~ 물가 상승률이 오르며, 이자율이 상승하면 ~ 물가 상승률이 떨어진다.'를 통해 기준 금리(이자율)와 물가 상승률이 반비례 관계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보기>의 '[경제학자 병의 고려 사항]'에서 '기준 금리가 4%로부터 1.5%p만큼 변하면 물가 상승률은 위 표의 각 분기 값을 기준으로 1%p만큼 달라'진다고 했고 '정책 외부 시차는 1개 분기이며 기준 금리 조정에 따른 물가 상승률 변동 효과는 1개 분기 동안 지속된다.'라고 했다. 그러므로 1월 1일에 1분기 기준 금리를 4%에서 1.5%p 올려 5.5%가 되면 2분기 물가 상승률이 3%에서 1%p 떨어져 2%가 된다. 또한 2분기 기준 금리를 5.5%로 그대로 유지하면 물가 상승률에 변화가 없으므로 3분기의 물가 상승률이 2%로 유지된다. <보기>에서 경제학자 병은 물가 상승률을 매 분기 2%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므로 적절하다.

◎ 왜 오답

- ① 1월 1일에 1분기 기준 금리를 4%에서 1.5%p 내려 2.5%가 되면 2분기 물가 상승률은 3%에서 1%p 올라 4%가 될 것이고, 4월 1일에 2분기 기준 금리를 2.5%로 유지하게 되면 3분기 물가 상승률도 4%로 유지될 것이다.
- ② 1분기 기준 금리를 4%에서 1.5%p 내려 2.5%가 되면 2분기 물가 상승률은 3%에서 1%p 올라 4%가 될 것이고, 2분기 기준 금리를 2.5%에서 1.5%p 올려 4%가 되면 3분기 물가 상승률은 4%에서 1%p 떨어져 3%가 될 것이다.
- ③ 1분기 기준 금리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2분기 물가 상승률은 3%를 유지할 것이고, 2분기 기준 금리를 4%에서 1.5%p 올려 5.5%가 되면 3분기 물가 상승률은 3%에서 1%p 떨어져 2%가 될 것이다.
- ④ 1분기 기준 금리를 4%에서 1.5%p 올려 5.5%가 되면 2분기 물가 상승률은 3%에서 1%p 떨어져 2%가 될 것이고, 2분기 기준 금리를 5.5%에서 1.5%p 내려 4%가 되면 3분기 물가 상승률은 2%에서 1%p 올라 3%가 될 것이다.

⊕ 어휘

- **민간**: 관청이나 정부 기관에 속하지 않음.
- **탄력적**: 상황에 따라 알맞게 대처하는.
- **분기**: 일 년을 4등분 한 3개월씩의 기간.

가 아도르노의 미학 이론

주제 아도르노의 대중 예술 비판과 미학 이론

구성

1문단	대중 예술에 대한 아도르노의 비판
2문단	아도르노의 예술관
3~4문단	아도르노가 높게 평가하는 예술인 전위 예술

나 아도르노의 미학 이론에 대한 비판

주제 아도르노의 미학 이론의 의의와 그 한계

구성

1문단	아도르노 미학의 의의와 아도르노 미학으로 읽어 낸 세잔의 작품
2문단	미메시스의 측면으로 본 세잔의 작품
3문단	아도르노 미학이 지닌 한계 ①
4문단	아도르노 미학이 지닌 한계 ②

1 ③

⊕ 더하기 ⊖ 빼기 ⊕ 나누기

◎ 이어서 정답

- ③ (가)의 2문단에서는 아도르노가 규정한 '동일성', '비동일성' 등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으나, 개념이 변화하는 과정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나)의 2문단에서도 '미메시스'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 왜 오답

- ①, ⑤ (가)의 1문단에서는 대중 예술에 대한 아도르노의 비판적 관점을 제시하고 2~4문단에서는 아도르노의 예술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편 (나)의 1문단에서는 아도르노의 예술관이 지닌 의의를 제시하고, 2~4문단에서는 아도르노의 예술관이 지닌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 ② (가)의 3문단에서는 동일화에 저항하는 전위 예술의 예로 쇤베르크의 음악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나)의 1문단에서는 사과를 표현한 세잔의 작품을 예로 들어 아도르노의 미학이 기존의 예술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제공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2문단에서는 세잔의 작품을 예로 들어 미메시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④ (가)와 달리 (나)의 4문단에서는 아도르노의 미학에 대한 비판을 강화하기 위해, 작가의 주관이 결여된 사진에서조차 새로운 예술 정신을 발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베냐민의 견해를 인용하고 있다.

문해 공식 적용 서술 방식 예시, 정의, 인용

구분	(가)	(나)
예시	'아도르노는 쇤베르크의 음악과 같은 전위 예술이 ~'	'가령 사과를 표현한 세잔의 작품을 아도르노의 미학으로 ~'
정의	'서로 다른 가치 체계를 ~ 비동일성으로 규정하고'	'미메시스란 세계를 바라보는 ~ 구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용	-	'실수로 찍혀 ~ 베냐민의 지적처럼'

2 답 ①

→ 배기

○이래서 정답

- ① (가)의 1문단에 따르면 아도르노는 대중 예술이 예술의 본질을 상실하고 이윤 극대화를 위한 상품으로 전락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상품의 교환 가치로 환원하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정체성마저 상품으로 전락시키는 기제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이를 통해 보면 문화 산업을 통해 상품화된 개인의 정체성과 대중 예술은 모두 자본주의의 교환 가치 체계로 동일화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대립적 관계를 형성한다고 볼 수 없다.

❖왜 오답

- ② (가)의 1문단에 따르면 아도르노는 표준화되어 생산되는 상품에 불과한 대중 예술은 규격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 규격성으로 인해 개인의 감상 능력 역시 표준화된다고 보았다. 이를 통해 대중 예술은 일정한 규격에 맞춰 생산될 뿐만 아니라 대중의 감상 능력을 표준화한다는 아도르노의 관점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가)의 1문단에 따르면 아도르노는 대중 예술이 예술의 본질을 상실한 채 상품으로 전락했으며, 이는 모든 것을 상품의 교환 가치로 환원하려는 자본주의 사회로부터 기인한다고 보았다. 이를 통해 대중 예술은 자본주의의 교환 가치 체계에 종속된 것으로서 예술로 포장된 상품에 불과하다는 아도르노의 관점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가)의 1문단에 따르면 아도르노는 자본주의 사회가 모든 것을 상품의 교환 가치로 환원하려 한다고 보았으며, 대중 예술이 현대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통해 대중 예술은 모든 것을 상품의 교환 가치로 환원하려는 자본주의 사회의 속성을 은폐한다는 아도르노의 관점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가)의 1문단에 따르면 아도르노는 문화 산업에 의해 양산되는 대중 예술이 이윤 극대화를 위한 상품으로 전락했으며, 대중 예술의 규격성으로 인해 개인의 감상 능력이 표준화되고 개인의 개성이 상실된다고 보았다. 이를 통해 대중 예술은 문화 산업의 이윤 극대화 과정에서 개인들이 지닌 개성의 차이를 상실시킨다는 아도르노의 관점을 확인할 수 있다.

3 답 ③

× 곱하기

○이래서 정답

- ③ (가)의 3문단의 '아도르노는 쇠베르크의 음악과 같은 전위 예술이 ~ 폭력적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를 통해 볼 때, 아도르노의 관점(A)에 따르면 세 번째 작품에 표현된 서정성과 조형미가 부조리에 대한 저항과

괴리가 있다고 지적할 수는 있으나 사회에 대한 저항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예술이어야 진정한 예술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왜 오답

- ① (가)의 2문단의 '예술은 대중이 원하는 ~ 그 자체로 추하고 불쾌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와 '예술은 동일화되지 않으려는, ~ 현대 사회의 부조리를 체험하게 하는 매개여야 한다는 것이다.'를 통해 볼 때, A에 따르면 첫 번째 작품에서 학생이 기괴함과 불편함을 느낀 것은 사회의 부조리에 대한 예술적 체험의 충격 때문일 수 있다.
- ② (가)의 1문단의 '아도르노는 문화 산업에 의해 양산되는 대중 예술이 ~ 현대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은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를 통해 볼 때, A에 따르면 학생은 대중 매체와 같은 문화 산업의 논리에 동일화되어 대중 예술에 은폐된 현대 사회의 모순에 대한 감각이 무뎌졌기 때문에 대량 복제되어 유통되는 두 번째 작품이 대중 매체에서 본 상업 광고의 한 장면같이 익숙하게 느껴졌다고 볼 수 있다.
- ④ (나)의 4문단의 '실수로 찍혀 작가의 어떠한 주관도 결여된 ~ 아닌 예술에서도 미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를 통해 볼 때, (나)의 글쓴이의 관점(B)에 따르면 첫 번째 작품의 흠어져 있는 형태와 색채가 예술가의 표현 의도를 담고 있지 않더라도 그 작품에서 예술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 ⑤ (나)의 4문단의 '대중음악이 사회적 저항의 메시지를 ~ 사회에 대한 비판적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를 통해 볼 때, B에 따르면 두 번째 작품은 대량 생산을 통해 제작된 것이지만 그 연예인의 사회 비판적 이미지를 이용해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고발하는 것일 수 있다.

4 답 ①

+ 더하기

○이래서 정답

- ① ㉠의 '전락시키다'는 '나쁜 상태나 타락한 상태에 빠지게 하다.'라는 의미이므로 ①의 '맞바꾸다'로 바꿔 쓸 수 없다.

❖왜 오답

- ② ㉡의 '유리되다'는 '파로 떨어지게 되다.'라는 의미이므로 ②의 '동떨어지다'와 바꿔 쓸 수 있다.
- ③ ㉢의 '응시하다'는 '눈길을 모아 한 곳을 똑바로 바라보다.'라는 의미이므로 ③의 '바라보다'와 바꿔 쓸 수 있다.
- ④ ㉣의 '박탈하다'는 '남의 재물이나 권리, 자력 따위를 빼앗다.'라는 의미이므로 ④의 '빼앗다'와 바꿔 쓸 수 있다.
- ⑤ ㉤의 '발견하다'는 '미처 찾아내지 못하였거나 아직 알려지지 아니한 사물이나 현상, 사실 따위를 찾아내다.'라는 의미이므로 ⑤의 '찾아내다'와 바꿔 쓸 수 있다.

확인 1 답 ①

이래서 정답

- ① (가)와 (나) 모두 기존의 주장과 관점이 변화되어 온 양상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하고 있지 않다.

왜 오답

- ② ㉠에서는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을 사회적 할인율로 적용하자는 기존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근거를 들어 반박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에서는 사회적 할인율은 미래 세대를 배려하는 공익적 차원에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새로운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 ③ ㉢에서는 도덕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는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고, ㉣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확인 2 답 (1) ○ (2) ○

이래서 정답

- (1), (2) <보기>에서는 냉전의 기원에 관한 상반된 논의인 '전통주의', '수정주의'와 이를 절충한 논의인 '탈수정주의'를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확인 3 답 ①

이래서 정답

- ① <보기>에서는 물체의 크기가 작은 경우와 큰 경우에 전체 항력에서 마찰 항력과 압력 항력의 비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비교'의 서술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확인 4 답 ①

이래서 정답

- ① <보기>에서는 '나를 잇는다'는 구절이 나오는 「장자」의 일화 두 편을 대등하게 제시하고 있다.

왜 오답

- ② <보기>에서 '나를 잇는다'는 구절이 변화되어 온 과정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 ③ <보기>에서 '나를 잇는다'는 구절의 한계와 그 원인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인간의 본성에 대한 주희와 정약용의 관점

주제 인간의 본성에 대해 주희와는 다른 관점을 보여 준 정약용

구성

1문단	주희와는 다른 관점을 보여 준 정약용
2문단	인간의 본성에 대한 주희의 관점과 그에 대한 정약용의 비판
3문단	인간의 본성에 대한 정약용의 관점
4문단	정약용이 강조한 선한 행위의 실천 원리

1 답 ②

더하기

이래서 정답

- ② 이 글에서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주희의 관점을 비판하는 정약용의 관점을 소개하고 있다.

왜 오답

- ① 인간의 본성에 대한 주희와 정약용의 관점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이러한 관점이 사회에 미친 영향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 ③ 인간의 본성에 대한 주희와 정약용의 관점의 타당성을 다양한 입장에서 분석하고 있지는 않다.
- ④, ⑤ 인간의 본성에 대한 주희와 정약용의 관점의 차이가 나타나 있기는 하지만 이 두 관점을 절충한 새로운 관점의 특징을 밝히고 있거나(④), 두 관점이 등장하게 된 시대적 배경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⑤).

문제 공식 적용 서술 방식 반박·비판

주희의 관점	인간의 기질이 맑으면 선한 행위를 하고 탁하면 악한 행위를 할 수 있음.
정약용의 비판	선한 행위와 악한 행위의 원인을 기질이라는 선천적 요인으로 본다면 행위에 인간의 의지가 개입되지 않으므로 악한 행위를 한 사람에게 윤리적 책임을 물을 수 없음.
정약용의 관점	감각적 욕구에서 비롯된 기호를 제어하지 못할 경우 악한 행위, 도덕적 욕구에서 비롯된 기호를 따를 경우 선한 행위가 나타남. → 선한 행위나 악한 행위를 하는 것은 인간의 자유 의지에 달려 있으므로 악한 행위를 한 사람에게 윤리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

2 답 ④

빼기

이래서 정답

- ④ 3문단의 '정약용은 감각적 욕구가 생존에 필요하고 ~ 악한 행위가 나타날 수 있고'를 통해 정약용은 감각적 욕구가 악한 행위를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각적 욕구에서 비롯된 기호를 제어하지 못할 경우 악한 행위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정약용은 감각적 욕구가 생존에 필요하고 삶의 원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일부 긍정했다고 했으므로 정약용이 감각적 욕구를 제거해야

한다고 보았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③ 왜 오답

- ① 2문단의 “주희는 인간의 본성을 ‘본연지성’과 ~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순수하고 선한 본성이고”를 통해 알 수 있다.
- ② 2문단의 ‘주희는 인간의 기질이 맑으면 선한 행위를 하고 탁하면 악한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보았다.’를 통해 알 수 있다.
- ③ 4문단의 ‘정약용은 추서에 따라 선한 행위를 실천해야 한다고 보았다.’를 통해 알 수 있다.
- ⑤ 2문단의 ‘정약용은 선한 행위와 악한 행위의 원인을 ~ 주희의 관점을 비판하였다.’를 통해 알 수 있다.

3 답 ③

➡ 나누기

① 이래서 정답

- ③ 3문단의 ‘감각적 욕구에서 비롯된 기호는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가 지니는 육체의 경향성’과 ‘도덕적 욕구에서 비롯된 기호는 인간만이 지니는 영혼의 경향성’을 통해 ㉠은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가, ㉡은 인간만이 지님을 알 수 있다.

③ 왜 오답

- ① 3문단의 ‘감각적 욕구에서 비롯된 기호를 제어하지 못할 경우 악한 행위가 나타날 수 있고’와 ‘선한 행위를 하거나 악한 행위를 하는 것이 온전히 인간의 자유 의지에 달려 있으므로’를 통해 ㉠은 인간이 제어할 수 있는 기호임을 알 수 있다.
- ② 3문단의 ‘정약용은 감각적 욕구가 생존에 필요하고 삶의 원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일부 긍정했으나’를 통해 생존에 필요한 욕구에서 비롯된 것은 ㉡이 아니라 ㉠임을 알 수 있다.
- ④ 3문단의 ‘기호란 즐기고 좋아한다는 뜻으로, ~ 인간도 어떤 경향성을 갖는다는 것이다.’를 통해 ㉠은 감각적 욕구를 즐기고 좋아하는 경향성을, ㉡은 도덕적 욕구를 즐기고 좋아하는 경향성을 뜻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과 ㉡은 모두 욕구를 즐기고 좋아하는 경향성이라고 볼 수 있다.
- ⑤ 4문단의 ‘친구가 거짓말을 했을 때 잘못을 덮어 주는 행위는 용서이고’를 통해 타인의 잘못을 덮어 주는 행위는 용서로, ㉠, ㉡과 직결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4 답 ⑤

✕ 곱하기

| 보기 | 오려 보기

학급에서 복도 청소를 맡은 학생 A와 B가 있었다. A는 평소 청소를 잘 하지 않았고, B는 항상 성실히 청소를 하였다. ...

① 이래서 정답

- ⑤ 4문단에 따르면 정약용의 관점에서 <보기>의 B가 A의 거짓말에 내색하지 않고 잘못을 덮어 준 것은 추서가 아니

라 용서에 해당한다. 따라서 정약용은 <보기>의 B가 용서로 A의 잘못을 덮어 주었기 때문에 A의 거짓말을 용인하게 되었다고 볼 것임을 알 수 있다.

③ 왜 오답

- ① 2문단에 따르면 주희는 인간에게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순수하고 선한 본성인 본연지성이 있고, 선한 행위나 악한 행위는 기질에 의한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주희는 거짓말을 한 것과 무관하게 A에게 본연지성이 있다고 볼 것이다.
- ② 2문단에 따르면 주희는 사람마다 기질이 다르고, 기질이 맑으면 선한 행위가, 기질이 탁하면 악한 행위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주희는 평소 청소를 잘 하지 않는 A와 항상 성실히 청소를 하는 B의 기질이 서로 다르다고 볼 것이다.
- ③ 3문단에 따르면 정약용은 선한 행위를 하거나 악한 행위를 하는 것이 인간의 자유 의지에 달려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정약용은 A가 책임감 있게 청소를 하게 된 것이 A의 자유 의지에 의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
- ④ 3문단에 따르면 정약용은 도덕적 욕구에서 비롯된 기호를 따를 경우 선한 행위가 나타난다고 보았다. 따라서 정약용은 A가 도덕적 욕구에서 비롯된 기호를 따랐기 때문에 거짓말을 했던 자신의 행동을 사과하고, 청소를 잘 하지 않았던 행동에서 책임감을 갖고 청소를 하는 행동으로의 변화가 나타났다고 볼 것이다.

5 답 ①

➡ 더하기

① 이래서 정답

- ① ㉠의 ‘들다’와 ㉡의 ‘들다’는 모두 ‘설명하거나 증명하기 위하여 사실을 가져다 대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③ 왜 오답

- ② ‘들다’가 ‘몸에 병이나 증상이 생기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 ③ ‘들다’가 ‘어떤 물건이나 사람이 좋게 받아들여지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 ④ ‘들다’가 ‘빛, 별, 물 따위가 안으로 들어오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 ⑤ ‘들다’가 ‘안에 담기거나 그 일부를 이루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 어휘

- **직결**: 사이에 다른 것이 개입되지 않고 직접 연결됨. 또는 사이에 다른 것을 개입하지 않고 직접 연결함.
- **내색**: 마음속에 느낀 것을 얼굴에 드러냄. 또는 그 낯빛.
- **무관하게**: 관계나 상관이 없게.

『걸리버 여행기』 속 크기의 과학

주제 '면적-부피의 법칙'에 따른 크기와 생명체의 형태 및 생존 방식의 관계

구성

1문단	현실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걸리버 여행기』 속 소인국과 거인국 사람들
2문단	'면적-부피의 법칙'의 개념
3문단	소인국과 거인국 사람에게 적용한 '면적-부피의 법칙'
4문단	소인국 사람이 정상적인 생활을 못 하는 이유
5문단	거인국 사람이 정상적인 생활을 못 하는 이유
6문단	생명체의 형태와 생존 방식에 영향을 주는 크기

1 답 ⑤

+ 더하기

◎이래서 정답

- ⑤ 이 글에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통해 현상의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왜 오답

- ① 2문단의 '예를 들어, 각 변의 길이가 1m인 주사위의 표면적은 ~ 변의 길이를 2배로 늘리면 표면적은 24㎡, 부피는 8㎡로 커진다.'에서는 주사위의 예를 들어 면적과 부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 ② 키와 몸무게의 차이를 바탕으로 크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걸리버와 소인국 사람, 거인국 사람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
- ③ 2문단에서 '면적-부피의 법칙'의 개념을 설명하고, 이를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 ④ 1문단의 '그렇다면 현실에서는 왜 불가능할까?'에서는 질문을 통해 독자의 관심을 유발하고 있다.

문제 공식 적용 서술 방식·예시, 비교, 정의

'예를 들어, 각 변의 길이가 1m인 주사위의 표면적은 ~ 표면적은 24㎡, 부피는 8㎡로 커진다.'	→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걸리버의 키와 몸무게를 174cm, 68kg이라고 가정하여 ~ 거인은 걸리버보다 12배 더 무거운 117t 정도 나가게 된다.' • '소인국 사람은 걸리버에 비해 부피는 1/12³로, 표면적은 1/12²로 줄어든다.' • '거인국 사람은 걸리버보다 12배 더 크기 때문에 다리 힘의 세기는 12²배 늘어나지만 무게는 12³배 늘어난다.' 	→ 비교
'길이가 L배 길어지면 표면적은 L², 부피는 L³에 비례하여 커지게 되는데, 이러한 법칙을 '면적-부피의 법칙'이라 한다.'	→ 정의

2 답 ④

× 곱하기

◎이래서 정답

- ④ 5문단에 따르면 근육이 낼 수 있는 힘의 세기는 근육의 단면적에 비례하므로 걸리버보다 12배 더 큰 거인국 사람

의 다리 근육의 단면적은 12²배로 커지고 다리 힘의 세기도 12²배로 늘어나며, 무게는 12³배로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거인국 사람의 무게는 다리로 버틸 수 있는 힘의 세기보다 커진다. 따라서 거인국 사람이 자신의 무게를 버티려면 다리 힘의 세기가 커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다리의 근육 단면적이 커지도록 다리가 비정상적으로 굵어야 한다.

Ⓜ왜 오답

- ① 4문단에서 소인국 사람은 생산되는 에너지의 양보다 발산되는 에너지의 양이 더 많아져 체온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하였다. 그런데 열에너지는 대사 활동을 통해 생산된다고 했으므로, 대사 활동을 줄이면 생산되는 열에너지가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소인국 사람이 대사 활동을 줄이면 생산되는 열에너지가 더 줄어들게 되므로 생존에 불리하게 된다.
- ② 5문단에서 근육이 낼 수 있는 힘의 세기는 근육의 단면적에 비례한다고 했으므로 거인국 사람은 걸리버에 비해 몸이 커져 근육의 단면적이 커지면서 힘의 세기도 커질 것임을 알 수 있다.
- ③ 4문단에서 소인국 사람은 걸리버에 비해 몸의 부피가 1/12³로, 표면적은 1/12²로 줄어든다고 하였고, 5문단에서 근육이 낼 수 있는 힘의 세기는 근육의 단면적에 비례한다고 했다. 이에 따르면 소인국 사람은 다리의 힘의 세기는 1/12²로 줄지만 무게는 1/12³로 줄기 때문에 다리 힘의 세기가 몸의 무게를 지탱하지 못해 땅에 주저앉게 되지는 않는다. 다리 힘의 세기가 몸의 무게를 지탱하지 못해 땅에 주저앉게 되는 것은 거인국 사람이다.
- ⑤ 걸리버에 비해 다리 힘의 세기가 1/12²로, 무게가 1/12³로 줄어드는 소인국 사람은 몸의 무게보다 다리 힘의 세기가 더 크므로 근육의 단면적을 늘리지 않아도 움직일 수 있다.

3 답 ①

+ 더하기

◎이래서 정답

- ① ②의 '나가다'와 ①의 '나가다'는 모두 '값이나 무게 따위가 어느 정도에 이르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왜 오답

- ② '나가다'가 '앞쪽으로 움직이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 ③ '나가다'가 '일정한 직장이나 일터에 다니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 ④ '나가다'가 '감기 따위의 병이 낫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 ⑤ '나가다'가 '말이나 사실, 소문 따위가 널리 알려지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⑤ 이래서 정답

- ⑤ 2문단에서 몸의 크기가 L배 커지는 경우 표면적은 L^2 , 부피는 L^3 에 비례하여 커진다고 하였으므로 몸의 크기가 커질수록 표면적에 비해 부피가 더 커지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A]에서 열에너지 생산량은 몸의 부피에, 발산량은 몸의 표면적에 비례한다고 하였으므로, 몸의 크기가 커질수록 열에너지 생산량이 발산량보다 더 많아져 생산되는 열에너지에 대한 발산되는 열에너지의 비율은 작아진다고 할 수 있다. 추운 지역에서는 발산되는 열에너지를 줄여야 체온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동물의 몸의 크기가 클수록 유리하다는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다.

⑤ 왜 오답

- ①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은 몸의 크기와 관계없이 모든 항온 동물이 지니는 기능이다.
- ② 2문단에서 몸의 크기가 L배 커지는 경우 표면적은 L^2 , 부피는 L^3 에 비례하여 커진다고 하였으므로, 몸의 크기가 커질수록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율은 작아진다고 할 수 있다.
- ③ [A]의 '적정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체외로 발산되는 열에너지는 몸의 표면적에 비례한다.'를 통해 몸의 크기가 커질수록 표면적도 커지므로 체외로 발산되는 열에너지의 양도 늘어남을 알 수 있다.
- ④ 2문단에서 몸의 크기가 L배 커지는 경우 표면적은 L^2 , 부피는 L^3 에 비례하여 커진다고 하였고, [A]에서 열에너지 생산량은 몸의 부피에, 열에너지 발산량은 몸의 표면적에 비례한다고 하였으므로, 몸의 크기가 커질수록 생산되는 열에너지의 양이 발산되는 열에너지의 양보다 많아짐을 알 수 있다.

+ 어휘

- 유발: 어떤 것이 다른 일을 일어나게 함.
- 지탱: 오래 버티거나 배겨 냄.

범죄학

주제 시대에 따른 범죄학의 흐름과 쉐페드

구성

1문단	범죄의 개념과 범죄학의 탄생 배경
2문단	고전주의 범죄학의 관점 및 베카리아의 견해
3문단	실증주의 범죄학의 관점 및 롬브로소의 견해
4문단	환경 범죄학의 관점 및 쉐페드의 개념
5문단	쉐페드의 다섯 가지 원리
6문단	우리나라의 쉐페드 도입과 안전한 사회를 위한 방안

1 ④

+ 더하기

⑤ 이래서 정답

- ④ 이 글은 '18세기 중반', '19세기 중반 이후', '1970년대 이후'와 같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범죄 발생률을 낮추기 위한 범죄학이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⑤ 왜 오답

- ① 이 글에 예상되는 반론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② 이 글은 고전주의 범죄학자 베카리아, 실증주의 범죄학자 롬브로소, 환경 범죄학의 관점을 제시하고 있을 뿐, 필자의 관점과 다른 관점을 비교하고 있지는 않다.
- ③ 이 글에서는 고전주의 범죄학, 실증주의 범죄학, 환경 범죄학 등의 핵심 개념과 그 영향력 등을 설명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비유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 ⑤ 이 글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범죄학이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를 그 특징과 함께 설명하고 있을 뿐, 이론들의 장점을 절충하여 새로운 이론으로 통합하고 있지는 않다.

문제 공식 적용 서술 방식 통시

"고전주의 범죄학"은 ~ 18세기 중반에 등장했다."	→	"19세기 중반 이후 ~ '실증주의 범죄학'이 등장했다."	→	"1970년대 이후 ~ '환경 범죄학'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통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범죄학의 변화 과정을 설명함.				

2 ⑤

+ 나누기

⑤ 이래서 정답

- ⑤ 4문단에서 쉐페드는 건축 설계나 도시 계획 등을 통해 대상 지역의 방어적 공간 특성을 높여, 범죄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지역 주민들이 안전감을 느끼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종합적인 범죄 예방 전략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보기>에서 합리적 선택 이론은 범죄가 발각될 환경적 요건이 강화될 경우 범죄 실행을 포기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셉테드와 합리적 선택 이론은 환경적 요인의 개선을 범죄 예방의 수단으로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❶ 왜 오답

- ①, ② 2문단에 따르면 고전주의 범죄학에서는 인간의 모든 행위는 자유 의지에 입각한 합리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보았는데, 베카리아는 고전주의 범죄학의 대표자이다. 따라서 베카리아가 합리적 선택 이론의 기본 가정인 합리적 인간성을 비판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①), 베카리아와 합리적 선택 이론이 도덕성을 바탕으로 한 인간의 의사 결정 과정을 중시한다고 볼 수도 없다(②).
- ③ 3문단에 따르면 롬브로소는 범죄자들의 개별적 범죄 기질에 따른 범죄자만의 특성과 행위 원인을 연구하여 범죄자들의 유형을 구분하고 그 유형에 따라 형벌을 달리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런데 <보기>에 따르면 합리적 선택 이론에서는 잠재적 범죄자들이 합리적 판단을 통해 범행의 실행 여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롬브로소의 견해가 합리적 선택 이론에 의해 정당성이 확보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④ 4문단에 따르면 셉테드는 범죄의 원인과 예방의 해법을 환경과 디자인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보기>에 따르면 합리적 선택 이론은 잠재적 범죄자가 합리적 판단에 의해 범죄로 인한 이익이 실패 위험보다 더 크다고 판단할 때 범죄를 실행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셉테드와 합리적 선택 이론은 모두 합리적 판단이 불가능한 인간이 범죄를 유발한다고 보았다고 할 수 없다.

3 답 ①

더하기

❶ 이어서 정답

- ① ⑧의 '규정하다'는 '양이나 범위 따위를 제한하여 정하다.'라는 의미이므로, '잘못되거나 틀린 것을 바로잡다.' 등을 의미하는 ①의 '고치다'로 바뀔 수 없다.

❶ 왜 오답

- ② ⑥의 '구분하다'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전체를 몇 개로 갈라 나누다.'라는 의미이므로, ②의 '나누다'와 바뀔 수 있다.
- ③ ⑥의 '향상시키다'는 '실력, 수준, 기술 따위를 나아지게 하다.'라는 의미이므로, ③의 '높이다'와 바뀔 수 있다.
- ④ ④의 '유도하다'는 '사람이나 물건을 목적인 장소나 방향으로 이끌다.'라는 의미이므로, ④의 '이끌다'와 바뀔 수 있다.
- ⑤ ⑥의 '확립하다'는 '체계나 견해, 조직 따위를 굳게 서게 하다.'라는 의미이므로, ⑤의 '세우다'와 바뀔 수 있다.

4 답 ③

나누기

❶ 이어서 정답

- ③ 2문단에 따르면 고전주의 범죄학(㉠)은 범죄에 비례해 형벌을 부과할 경우 개인의 합리적 선택에 의해 범죄가 억제될 수 있다고 보았고, 3문단에 따르면 실증주의 범죄학(㉡)은 범죄의 원인을 개인의 자유 의지로 통제할 수 없는 생물학적·심리학적·사회학적 요소에서 찾으려 했다. 이를 통해 볼 때 고전주의 범죄학(㉠)은 범죄의 예방에 목적을 둔 형벌, 즉 처벌에 주목했다고 할 수 있고, 실증주의 범죄학(㉡)은 범죄자의 특성과 관련하여 범죄의 원인에 주목했다고 할 수 있다.

❶ 왜 오답

- ① 2문단에서 고전주의 범죄학(㉠)은 법적 규정 없이 시행됐던 지배 세력의 불합리한 형벌 제도를 비판하며 등장했다고 하였다.
- ② 3문단에서 실증주의 범죄학(㉡)의 창시자인 롬브로소는 범죄자만의 특성과 행위 원인을 연구하여 범죄자들의 유형을 구분하고 그 유형에 따라 형벌을 달리할 것을 주장했다고 하였다.
- ④ 2문단에서 고전주의 범죄학(㉠)의 대표자인 베카리아는 범죄를 저지를 경우 누구나 법에 의해 확실히 처벌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범죄를 억제할 것이라고 확신했다고 하였고, 3문단에서 실증주의 범죄학(㉡)의 창시자 롬브로소는 범죄자들의 유형을 구분하고 그 유형에 따라 형벌을 달리할 것을 주장했다고 하였다.
- ⑤ 3문단에서 실증주의 범죄학(㉡)은 범죄의 원인을 개인의 자유 의지로 통제할 수 없는 생물학적·심리학적·사회학적 요소에서 찾으려 했다고 하였다. 한편 2문단에서 고전주의 범죄학(㉠)은 범죄를 포함한 인간의 모든 행위는 자유 의지에 입각한 합리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범죄에 비례해 형벌을 부과할 경우 개인의 합리적 선택에 의해 범죄가 억제될 수 있다고 보았다고 하였다.

5 답 ⑤

곱하기

| 보기 | 오려 보기

□□ 학교는 개교한 지가 오래돼 다소 음침한 느낌을 주는 곳이었다. 이에 학교는 교내 외진 장소에 다양한 운동 시설을 설치해 학생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그 곳에 CCTV를 설치했다. ...

❶ 이어서 정답

- ⑤ [A]에서 '영역성의 원리'는 안과 밖이라는 공간 영역을 조성하여 외부인의 침범 기준을 명확히 확립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교내 외진 장소에

CCTV를 설치한 것은 안과 밖의 공간 영역을 명확히 확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영역성의 원리'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다.

③ 왜 오답

- ① [A]에서 '접근 통제'의 원리'는 보행로, 조경, 문 등을 통해 사람들의 통행을 일정한 경로로 유도하여 허가받지 않은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차단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후문을 폐쇄하여 사람들의 통행을 정문으로 유도한 것은 '접근 통제'의 원리'의 사례로 적절하다.
- ② [A]에서 '자연적 감시의 원리'는 공간과 시설물에 대한 가시권을 확보하고 잠재적 범죄자의 은폐 장소를 최소화시킴으로써 내부인이나 외부인의 행동을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관찰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사람들의 시선을 막고 있는 학교 담장을 철거한 것은 '자연적 감시의 원리'의 사례로 적절하다.
- ③ [A]에서 '유지 및 관리의 원리'는 공공장소와 시설물이 처음 설계된 대로 지속적으로 유지 및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동아리를 조직하여 개선된 학교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봉사 활동을 주기적으로 하는 것은 '유지 및 관리의 원리'의 사례로 적절하다.
- ④ [A]에서 '활동의 활성화 원리'는 공공장소 및 시설에 대한 내부인들의 활발한 사용을 유도하여 그 근방의 범죄를 감소시키는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외진 장소에서의 범죄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운동 시설을 설치해 학생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것은 '활동의 활성화 원리'의 사례로 적절하다.

④ 어휘

- **입각**: 어떤 사실이나 주장 따위에 근거를 두어 그 입장에 선
- **조경**: 경치를 아름답게 꾸민
- **폐쇄**: 문 따위를 닫아걸거나 막아 버림
- **가시권**: 눈으로 볼 수 있는 범위

공감에 대한 이론

주제 공감에 대한 세 가지 이론과 리버먼이 말하는 진정한 공감 구성

1문단	공감의 개념과 필요성
2문단	공감에 대한 '이론-이론'과 '모의 이론'의 차이
3문단	'이론-이론'과 '모의 이론'의 상호 배타적 논쟁
4문단	'이론-이론'과 '모의 이론'을 통합한 '두 체계 이론'
5문단	'두 체계 이론'에서 말하는 진정한 공감

1 답 ①

④ 더하기

⑤ 이래서 정답

- ① 이 글에서는 공감에 대하여 20세기까지 주로 논의된 '이론-이론'과 '모의 이론'의 특징과 차이점을 설명한 후, 두 이론을 통합한 리버먼의 '두 체계 이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③ 왜 오답

- ② '이론-이론'과 '모의 이론', 두 이론을 통합한 '두 체계 이론'을 소개하고 있을 뿐, 이론의 역사적 변천과 이론들의 전망에 대해 예측하고 있지는 않다.
- ③ 기존 이론이라 할 수 있는 '이론-이론'과 '모의 이론', 이를 통합한 새로운 이론이라 할 수 있는 '두 체계 이론'의 탄생 과정이 나타나 있지는 않다.
- ④ '이론-이론', '모의 이론'이나 '두 체계 이론'에 대한 문제점을 구체적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 ⑤ '이론-이론'과 '모의 이론', '두 체계 이론' 중 어떤 것이 더 나은지를 가리고 있지는 않다.

문제 공식 적용 서술 방식_절충

이론-이론	모의 이론
마음의 작동 방식에 대한 개념적 이론을 바탕으로 논리적 추론을 함으로써 타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는 이론	자신이 타인과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할지를 상상하는 모의실험을 함으로써 타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는 이론
↔ 논쟁	
↓ 절충	
두 체계 이론	사람은 모의 이론에서 말하는 모의실험으로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울 체계'뿐만 아니라 이론-이론에서 말하는 마음의 작동 방식에 대한 개념적 이론을 통해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심리화 체계'를 모두 가지고 있다는 이론

2 답 ⑤

② 빼기

⑤ 이래서 정답

- ⑤ 2문단의 '동일한 상황에서는 모의실험을 한 자신의 마음과 타인의 마음이 서로 유사하다는 것과, 타인의 마음보다 자신의 마음에 접근하기가 더 쉽다는 것을 전제로 한

다.'를 통해 적절함을 알 수 있다.

④ 왜 오답

- ① 3문단의 '이론-이론 측에서는 모의실험이 타인의 마음을 정확하게 재현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를 통해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② 2문단의 '동일한 상황에서는 모의실험을 한 자신의 마음과 타인의 마음이 서로 유사하다는 것과, 타인의 마음보다 자신의 마음에 접근하기가 더 쉽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를 통해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③ 2문단의 '모의 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타인의 상황에 자신을 투사시킨 후 그 상황에서 자신의 마음 상태를 상상하는 모의실험을 하고, 그로 인해 얻은 생각을 다시 타인에게 투사함으로써 타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를 통해 '모의 이론'에서 모의실험은 타인의 마음 상태를 자신에게 투사하는 과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타인의 상황에 투사시킨 후 그 상황에서 자신의 마음 상태를 상상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④ 2문단의 '이론-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4세부터 마음의 작동 방식에 대한 개념적 이론을 갖게 되어'를 통해 '이론-이론'에서는 4세부터 마음의 작동 방식에 대한 개념적 이론을 갖게 된다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론-이론'에서는 2세 아동들이 4세 아동들에 비해 마음의 작동 방식에 대한 개념적 이론의 질적 수준이 낮다고 볼 것이 아니라, 아직 마음의 작동 방식에 대한 개념적 이론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것임을 알 수 있다.

3 답 ③

✕ 곱하기

④ 이래서 정답

- ③ 4문단의 '두 체계의 서로 다른 작동 방식과 두 체계 사이의 순차적인 관계이다. ~ 이후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여 생각에 몰입할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심리화 체계가 작동한다.'를 통해 '두 체계 이론'에서는 거울 체계와 심리화 체계를 순차적 관계로 보아, 거울 체계가 심리화 체계에 선행된다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보기>에서 ○○ 씨는 거울 체계를 통해 "타인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여 동료가 일요일마다 복지 시설에 방문한다는 것을 파악한 후, 심리화 체계를 통해 "타인이 왜 그렇게 했는가?"라는 질문을 하여 동료의 신념에 대해 고민한 것이므로 적절하다.

④ 왜 오답

- ①, ②, ④, ⑤ '두 체계 이론'에 따르면 <보기>의 ○○ 씨는 거울 체계가 작동된 이후 심리화 체계가 작동된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4 답 ④

✕ 곱하기

④ 이래서 정답

- ④ [A]에서 리버먼은 진정한 공감은 정서적 일치와 실천적 동기까지 나아가야 가능하다는, 타인의 감정 상태와 동일한 느낌을 가지게 되고, 이후 타인을 도와야겠다는 마음이 형성되었을 때 공감이 완성된다고 하였다. 이로 볼 때, 타인의 슬픔을 알고 함께 느껴 도와려는 마음을 가진 것은 정서적 일치뿐만 아니라 실천적 동기까지 나아간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공감이 형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단지 현실적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도움을 주지 못했다고 해서 진정한 공감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④ 왜 오답

- ① 타인의 마음 상태를 파악하고도 별다른 감정을 느끼지 않은 것은 타인의 감정 상태와 동일한 느낌, 즉 정서적 일치를 이루지 못한 것이므로 진정한 공감이라 할 수 없다.
- ② 타인의 아픔을 알고 함께 느낀 것은 정서적 일치를 이룬 것이지만, 타인을 도우려 하지 않고 그 감정을 회피한 것은 실천적 동기까지 나아가지 못한 것이므로 진정한 공감이라 할 수 없다.
- ③ 타인의 정서 상태와 전혀 다른 느낌을 가진다는 것은 정서적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므로 진정한 공감이라 할 수 없다.
- ⑤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동일하게 느낀 것은 정서적 일치를 이룬 것이지만, 타인을 돕지 않으려 했다는 것은 실천적 동기까지 나아가지 않은 것이므로 진정한 공감이라 할 수 없다.

+ 어휘

- **투사**: 어떤 상황이나 자극에 대한 해석, 판단, 표현 따위에 심리 상태나 성격이 반영되는 일.
- **여건**: 주어진 조건.
- **회피**: 괴를 부려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지지 아니함.

확인 1 답 ②

이래서 정답

- ② ㉠의 '향유(享有)'의 사전적 의미는 '누리어 가짐.'이다. '혼자서 독차지하여 가짐.'은 '독점(獨占)'의 사전적 의미이다.

확인 2 답 ①

이래서 정답

- ① ㉠의 '방치(放置)'의 사전적 의미는 '내버려 둠.'이다. '쫓아내거나 몰아냄.'은 '축출(逐出)'의 사전적 의미이다.

확인 3 답 ③

이래서 정답

- ③ ㉠의 '탐재되다'는 '배, 비행기, 차 따위에 물건이 실리다.'라는 의미이므로, '탈것이나 짐승의 등 따위에 몸을 얹게 하다.'를 의미하는 ③의 '태우다'로 바꿔 쓸 수 없다. ㉠의 '탐재되다'는 '올겨지기 위하여 탈것, 수레, 비행기, 짐승의 등 따위에 올려지다.'를 의미하는 '실리다'로 바꿔 쓰는 것이 적절하다. 일반적으로 물건을 대상으로 할 때는 '신다(실리다)'를, 사람을 대상으로 할 때는 '타다(태우다)'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확인 4 답 ①

이래서 정답

- ① ㉠의 '끼치다'는 '영향, 해, 은혜 따위를 당하거나 입게 하다.'라는 의미이므로, '어떤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담당하게 하다.', '어떤 물건을 보관하게 하다.', '주문 따위를 하다.'와 같은 의미로 쓰이는 '맡기다'로 바꿔 쓸 수 없다.

왜 오답

- ② '가하다'는 '어떤 행위를 하거나 영향을 끼치다.'라는 의미이므로 ㉠의 '끼치다'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다.
③ '주다'는 '남에게 어떤 일이나 감정을 겪게 하거나 느끼게 하다.'라는 의미이므로 ㉠의 '끼치다'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다.

확인 5 답 ①

이래서 정답

- ① ㉠의 '이끌다'는 '사람, 단체, 사물, 현상 따위를 인도하여

어떤 방향으로 나가게 하다.'라는 의미인데, ①의 '인도하다'는 '이끌어 지도하다.'라는 의미이므로 ㉠과 바꿔 쓰기에 적절하다.

왜 오답

- ② ㉠의 '가르치다'는 '사람의 도리나 바른길을 일깨우다.'라는 의미인데, ②의 '지시하다'는 '가리켜 보게 하다.', '일러서 시키다.'와 같은 의미이므로 ㉠과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의 '가르치다'는 '어떤 목적이나 방향으로 남을 가르쳐 이끌다.'를 의미하는 '지도하다'로 바꿔 쓰는 것이 적절하다.
③ ㉠의 '고치다'는 '잘못되거나 틀린 것을 바로잡다.'라는 의미인데, ③의 '개편하다'는 '책이나 과정 따위를 고쳐 다시 엮다.', '조직 따위를 고쳐 편성하다.'와 같은 의미이므로 ㉠과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의 '고치다'는 '글이나 글자의 잘못된 점을 고치다.'를 의미하는 '수정하다'로 바꿔 쓰는 것이 적절하다.

어휘

- 독차지: 혼자서 모두 차지함.
- 편성: 예산·조직·대오 따위를 짜서 이룸.

박테리오파지

주제 박테리오파지의 구성과 복제 과정

구성

1문단	바이러스의 개념과 특징, 구성 물질
2문단	박테리오파지의 발견과 뜻
3문단	박테리오파지의 구성과 그 역할
4문단	박테리오파지의 복제 과정
5문단	박테리오파지의 종류

1 답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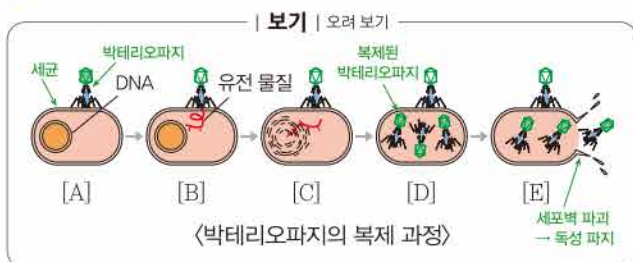
이래서 정답

- ⑤ 4문단에서 박테리오파지는 세균 내부로 유전 물질을 침투시킨 뒤 세균 내부의 DNA를 분해하고 세균의 내부 물질과 여러 효소 등을 이용하여 새로운 박테리오파지를 형성할 유전 물질과 단백질을 만들어 조립하는 과정으로 새로운 박테리오파지를 복제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박테리오파지가 세포막 표면에 존재하는 특정 단백질을 복제하여 증식한다고 볼 수는 없다.

왜 오답

- ① 1문단의 ‘바이러스란 스스로는 증식할 수 없고 숙주 세포에 기생해야만 증식할 수 있는 감염성 병원체를 일컫는다.’, 2문단의 ‘박테리오파지는 바이러스의 일종으로’, 4문단의 ‘박테리오파지는 증식을 위해 세균을 이용한다.’를 통해 알 수 있다.
- ② 3문단의 ‘머리에는 박테리오파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유전 물질이 있는데, 이 유전 물질은 단백질 껍질로 보호되어 있다.’를 통해 알 수 있다.
- ③ 2문단의 “테렐은 이질을 연구하던 중 환자의 분변에 이질균을 녹이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 미지의 존재를 ‘박테리오파지’라고 불렀다.”를 통해 알 수 있다.
- ④ 3문단의 ‘꼬리 섬유는 세균에 단단히 달라붙는 기능을 한다.’를 통해 알 수 있다.

2 답 ④



이래서 정답

- ④ 〈보기〉의 [D]는 [C]의 과정에서 만든 유전 물질과 단백질을 조립하여 새로운 박테리오파지를 복제하는 과정에 해당된다. 그리고 [E]에서 복제된 박테리오파지가 세균의 세포벽을 터뜨리고 외부로 쏟아져 나오고 있으므로, 〈보기〉는 박테리오파지 중에서 독성 파지의 복제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5문단에 따르면 세균 속에서 기생하다 세균이 분열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박테리오파지가 복제되는 것은 용원성 파지의 복제 과정에 해당하므로 [D]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다.

왜 오답

- ① 4문단에서 박테리오파지가 세균을 만나면 꼬리 섬유가 세균의 세포막 표면에 존재하는 특정한 단백질을, 다당류 등을 인식하여 복제를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세균인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이용 가능한 세균이면 세균의 표면에 달라붙은 뒤 머리에 들어 있는 유전 물질을 세균 내부로 침투시킨다고 하였다. [A]는 박테리오파지가 세균에 달라붙은 모습을 보여 주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② [B]는 박테리오파지의 머리에 들어 있는 유전 물질이 세균 내부로 침투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는데, 3문단에서 박테리오파지의 꼬리는 머릿속의 유전 물질이 세균으로 이동하는 통로 역할을 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 ③ [C]는 박테리오파지의 유전 물질이 세균 내부의 DNA를 분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는데, 4문단에서 세균 내부로 침투한 박테리오파지의 유전 물질은 세균 내부의 DNA를 분해하고 세균의 내부 물질과 여러 효소 등을 이용하여 새로운 박테리오파지를 형성할 유전 물질과 단백질을 만들어 낸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 ⑤ [E]는 복제된 박테리오파지가 세균의 세포벽을 터뜨리고 외부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는데, 5문단에서 독성 파지는 충분한 양의 박테리오파지가 복제되면 복제를 중단하고 세균의 세포벽을 파괴하는 효소로 세포벽을 터뜨리고 외부로 쏟아져 나온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3 답 ③

× 금하기

이래서 정답

- ㄴ. 〈보기 1〉에서는 박테리오파지 DNA의 인(P)과 단백질의 황(S)을 각각 방사성 동위 원소인 인(^{32}P)과 황(^{35}S)으로 대체한 후 대장균에 감염시켜 여러 세대에 걸쳐 배양하고, 대장균의 내부에 어떤 방사성 동위 원소가 남아 있는지 확인함으로써 DNA가 유전 물질인 것을 밝혀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배양된 대장균 내부에는 박테리오파지의 DNA가 들어 있었을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배양된

대장균 내부에는 박테리오파지의 DNA에 들어 있던 인(^{32}P)만 관찰되고 단백질에 들어 있던 황(^{35}S)은 없었을 것임을 알 수 있다.

- ㄷ. <보기 1>의 실험에서는 단백질과 DNA 중 어느 것이 유전 물질인지 확인하기 위해 박테리오파지를 대장균에 감염시켰다고 하였는데, 4문단에서 박테리오파지는 머리에 들어 있는 유전 물질만을 세균 내부로 침투시킨다고 하였으므로, <보기 1>의 실험은 유전 물질만을 세균 안으로 들여보내는 박테리오파지의 특성을 이용하여 대장균 내부에 들어 있는 유전 물질을 확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③ 왜 오답

- ㄱ. <보기 1>의 실험은 DNA의 구조나 복제 과정이 아니라 박테리오파지가 지닌 구조와 특성 및 복제 과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실험이다.
- ㄴ. <보기 1>의 실험에서 박테리오파지를 이용한 것은 박테리오파지가 세균 내부에 유전 물질만을 침투시키기 때문이지, 박테리오파지가 있어야 대장균이 분열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다.

4. 답 ①

+ 더하기

① 이어서 정답

- ① ㉠의 '존속'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대상이 그대로 있거나 어떤 현상이 계속됨.'이다. '더 낮고 좋은 상태나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감.'은 '발전'의 사전적 의미이다.

③ 왜 오답

- ②, ③, ④, ⑤ ㉡의 '관찰', ㉢의 '구성', ㉣의 '여부', ㉤의 '이용'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다.

문해 공식 적용 어휘_사전적 의미

존속(있다 存 + 있다 續)	발전(피다 發 + 퍼다 展)
바이러스는 자신의 존속을 위한 최소한의 물질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는 자신의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물질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 어휘

- 동위 원소: 원자 번호는 같으나 질량수가 서로 다른 원소. 양성자의 수는 같으나 중성자의 수가 다르다.
- 대체: 다른 것으로 대신함.
- 배양: 인공적인 환경을 만들어 동식물 세포와 조직의 일부나 미생물 따위를 가꾸어 기를.

창업 후 이윤

주제 창업 후 이윤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

구성

1문단	퇴사 후 창업을 하고자 할 때 고려해야 할 점
2문단	제과점을 창업한 철수의 사례
3문단	창업 후 이윤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 ① - 경제학적 이윤 계산
4문단	창업 후 이윤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 ② - 손익 분기점 사용

1. 답 ③

+ 더하기

① 이어서 정답

- ③ 이 글에서는 철수의 제과점 창업 사례를 통해 명시적 비용, 회계학적 이윤, 경제학적 이윤, 암묵적 비용, 손익 분기점 등과 같은 경제학적 개념을 쉽게 설명하고 있다.

③ 왜 오답

- ① 예외적인 현상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경제학적 이론의 형성 과정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 ② 다양한 이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다양한 이론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 ④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고 있지 않으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
- ⑤ 하나의 사례만 제시되어 있으므로, 여러 사례의 공통점을 추출하여 새로운 경제학적 개념을 도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2. 답 ⑤

+ 나누기

① 이어서 정답

- ⑤ 3문단의 "창업 후의 정확한 이윤을 알기 위해서는, 총수입에서 명시적 비용을 뺀 '회계학적 이윤'보다는 '경제학적 이윤'을 따져 보아야 한다."를 통해 정확한 이윤을 알기 위해서는 회계학적 이윤(㉠)보다는 경제학적 이윤(㉡)을 확인해야 함을 알 수 있다.

③ 왜 오답

- ① 2문단에 따르면 회계학적 이윤(㉠)은 총수입에서 명시적 비용을 뺀 금액이므로, 총수입의 변화가 없을 때 명시적 비용이 줄면 ㉠은 늘어난다.
- ② 3문단에 따르면 경제학적 이윤(㉡)은 총수입에서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뺀 금액인데, 2문단에서 명시적 비용은 제과점 운영을 위해 직접 소비한 비용이라고 했으므로, ㉡에는 제과점 운영을 위해 직접 소비한 비용이 반영되어 있다.
- ③ 2문단에 따르면 회계학적 이윤(㉠)은 총수입에서 명시적 비용을 뺀 금액이고, 3문단에 따르면 경제학적 이윤(㉡)

은 총수입에서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뺀 금액이므로, ㉠과 달리 ㉡에는 암묵적 비용이 반영되어 있다.

- ④ 회계학적 이윤(㉠)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은 암묵적 비용이 경제학적 이윤(㉡)에는 반영되어 있으므로, ㉠에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에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에 이익이 발생하면 ㉠에는 항상 이익이 발생한다.

3 답 ①

× 곱하기 + 나누기

보기 오려 보기		
2015년 제과점의 총수입		1억 원
명시적 비용	재료비 → 변동비	800만 원
	직원 인건비 → 고정비	3,500만 원
	대출 이자 → 고정비	500만 원
	세금 → 고정비	400만 원
회계학적 이윤		4,800만 원

※ 암묵적 비용은 2014년과 동일함.

◎ 이래서 정답

- ① 철수의 2014년과 2015년의 결산 자료를 바탕으로 회계학적 이윤, 경제학적 이윤, 손익 분기점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회계학적 이윤		경제학적 이윤		→	2014 < 2015
2014	2015	2014	2015		
4,600만 원	4,800만 원	-600만 원	-400만 원		

손익 분기점		→	2014 > 2015
2014	2015		
변동비 1,000만 원	변동비 800만원		
총수입, 고정비 동일			

철수의 2014년과 2015년 결산 자료를 비교해 보면 총수입(1억 원)과 고정비에 해당하는 직원 인건비(3,500만 원), 대출 이자(500만 원), 세금(400만 원)은 동일하지만 변동비에 해당하는 재료비는 1,000만 원(2014년)에서 800만 원(2015년)으로 200만 원이 줄었다. 4문단에서 총수입이 늘거나, 투입된 총비용이 줄면 손익 분기점은 낮아진다고 했으므로 2015년의 손익 분기점은 2014년에 비해 낮아졌다고 볼 수 있다.

◎ 왜 오답

- ② 경제학적 이윤은 총수입에서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뺀 금액이므로, 2015년의 경제학적 이윤은 '총수입 1억 원 - 명시적 비용 5,200만 원 - 암묵적 비용 5,200만 원 = -400만 원'으로 400만 원의 손실을 보았다.
- ③, ⑤ 4문단에 따르면 고정비는 직원 인건비와 가게 임대료, 대출 이자, 세금과 같이 매출과 관련 없이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인데, 철수의 2014년과 2015년 결산 자료를 비교해 보면 고정비에 해당하는 직원 인건비(3,500만 원), 대출 이자(500만 원), 세금(400만 원)은 동일하다.

- ④ 철수의 2014년과 2015년 결산 자료를 비교해 보면 회계학적 이윤이 4,600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200만 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변동비에 해당하는 재료비가 2014년 1,000만 원에서 2015년 800만 원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4 답 ④

+ 더하기

◎ 이래서 정답

- ④ ④의 '투입'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이나 물자, 자본 따위를 필요한 곳에 넣음.'이다. '귀중한 물품이나 정보를 밖으로 내보냄.'은 '유출'의 사전적 의미이다.

◎ 왜 오답

- ①, ②, ③, ⑤ ㉠의 '운영', ㉡의 '간과', ㉢의 '파악', ㉣의 '반영'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다.

문해 공식 적용 어휘_사전적 의미

투입(던지다 投 + 들다 入)		유출(흐르다 流 + 나다 出)
총수입이 늘거나, 투입된 총비용이 줄면 손익 분기점은 낮아진다.	≠	총수입이 늘거나, 유출된 총비용이 줄면 손익 분기점은 낮아진다.

+ 어휘

- **추출**: 전체 속에서 어떤 물건, 생각, 요소 따위를 뽑아냄.
- **도출**: 판단이나 결론 따위를 이끌어 냄.

타워 크레인

주제 타워 크레인의 구조와 작동 원리

구성

1문단	타워 크레인의 개념
2문단	타워 크레인의 구성과 역할 ①
3문단	타워 크레인의 구성과 역할 ②
4문단	타워 크레인이 평형을 이룰 수 있는 이유 - 지레의 원리
5문단	타워 크레인이 중량물을 들어 올릴 수 있는 이유 - 움직도르래의 원리

1 답 ⑤

→ 배기

⑤ 이래서 정답

- ⑤ 2문단의 '텔레스코핑 케이지는 타워 크레인의 높이를 조절하는 장치로, 유압 장치를 통해 운전실을 들어 올린 후 ~ 단위 마스트를 끼워 넣어 높이를 조절한다.'를 통해 타워 크레인의 높이를 높이기 위해서는 텔레스코핑 케이지의 유압 장치를 통해 마스트가 아니라 운전실을 들어 올려야 함을 알 수 있다.

③ 왜 오답

- ① 3문단의 '상단의 타워 헤드에는 지브의 인장력을 보강하면서 평형 유지를 돕는 타이바가 연결되어 있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② 3문단의 '운전실은 타워 크레인을 제어하는 곳으로, 하단에는 중량물을 수평으로 이동시키는 선회 장치가 있고'와 '트롤리는 메인 지브의 레일을 통해 중량물을 수평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한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③ 5문단의 '후크 블록의 움직도르래는 와이어로프를 통해 권상 장치와 연결되어 있다.'와 '여러 개의 움직도르래를 사용하게 되면 여러 가닥의 와이어로프가 바람에 의해 꼬여 손상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④ 5문단의 '권상 장치는 그 안에 있는 전동기의 회전 방향에 따라 와이어로프를 원통 모양의 드럼에 감거나 풀어 중량물을 들어 올리거나 내린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 답 ①

X) 곱하기

① 이래서 정답

- ① 4문단에서 $FD = fd$ 이면 지레는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평형을 이루게 된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지레의 원리를 이용한 타워 크레인도 $FD = fd$ 일 때 평형을 이루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3문단에서 카운터 지브의 평형추는 고정되어 있다고 했으므로 F (작용점인 평형

추에서 가하는 힘)와 D (작용점인 평형추에서 받침점인 운전실까지의 거리)는 변하지 않고, FD 는 늘 일정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①에서 트롤리가 메인 지브의 안쪽에서 들어 올린 중량물을 메인 지브 바깥쪽으로 이동시키면, 같은 중량물을 이동시키는 것이므로 f (힘점인 트롤리에 작용하는 힘)는 일정하지만 d (힘점인 트롤리에서 받침점인 운전실까지의 거리)는 증가하여 fd 가 FD 보다 커지면서 타워 크레인이 메인 지브 쪽으로 기울어지게 된다. 따라서 메인 지브의 안쪽에서 들어 올린 중량물을 메인 지브 바깥쪽으로 이동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

③ 왜 오답

- ② ①에서 메인 지브의 안쪽에서 들어 올린 중량물을 메인 지브 바깥쪽으로 이동시키면 메인 지브의 레일을 통해 중량물을 수평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는 트롤리와 운전실 사이의 거리는 멀어지게 된다.
- ③ 4문단에서 타워 크레인의 평형추는 작용점, 운전실 지점은 받침점, 트롤리는 힘점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므로, 메인 지브의 안쪽에서 들어 올린 중량물을 메인 지브 바깥쪽으로 이동시켜 트롤리와 운전실 사이가 멀어지면, 힘점과 받침점 사이의 거리도 멀어짐을 알 수 있다.
- ④ 3문단에서 카운터 지브의 평형추는 고정되어 있다고 했으므로 무게는 일정함을 알 수 있다. 또한 ①에서 메인 지브의 안쪽에서 들어 올린 중량물을 메인 지브 바깥쪽으로 이동시키면 같은 중량물을 이동시키는 것이므로 중량물의 무게가 바뀌지 않는다. 따라서 카운터 지브에 설치된 평형추의 무게와 권상 장치에 있는 중량물의 무게의 비는 달라지지 않는다.
- ⑤ ①에서 카운터 지브의 평형추는 고정되어 있으므로 FD 는 일정하지만, 트롤리가 메인 지브의 안쪽에서 들어 올린 중량물을 메인 지브 바깥쪽으로 이동시키면 fd 는 FD 보다 커지므로 타워 크레인이 메인 지브 쪽으로 기울어지게 된다.

3 답 ①

X) 곱하기 O) 나누기

① 이래서 정답

- ① <보기 1>의 A는 움직도르래 1개를, B는 움직도르래 2개를 사용하고 있는데, [A]에서 움직도르래를 타워 크레인에서 추가적으로 사용할 때마다 동일한 무게의 중량물을 같은 높이로 들어 올릴 때 권상 장치가 사용하는 힘의 크기는 더 감소하지만, 권상 장치가 감아올리는 와이어로프의 길이는 더 길어지게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B는 A에 비해 동일한 중량물을 들어 올리는 힘의 크기는 줄여 주지만, 동일한 중량물을 같은 높이로 들어 올릴 경우 권상 장치가 감아올린 와이어로프의 길이는 길어지게 된다. 그런데 A, B를 이용해 같은 무게의 중량물을 들어 올릴 때

권상 장치가 감아올린 와이어로프의 길이가 같다면 A가 중량물을 들어 올리는 힘의 크기는 B보다 크고, A가 B보다 중량물을 더 높이 들어 올렸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왜 오답

- ② ㄴ에 들어갈 말이 적절하지 않다.
- ③ ㄱ에 들어갈 말이 적절하지 않다.
- ④, ⑤ ㄱ, ㄴ에 들어갈 말이 모두 적절하지 않다.

4 답 ②

더하기

❖ 이어서 정답

- ② ㉞의 '제어하다'는 '기계나 설비 또는 화학 반응 따위가 목적에 알맞은 작용을 하도록 조절하다.'라는 의미이므로, '물건의 밑이나 옆 따위에 다른 물체를 대다.' 등을 의미하는 ②의 '받치다'로 바꿔 쓸 수 없다.

❖ 왜 오답

- ① ㉠의 '달하다'는 '일정한 표준, 수량, 정도 따위에 이르다.'라는 의미이므로 ①의 '이르다'와 바꿔 쓸 수 있다.
- ③ ㉡의 '연결되다'는 '사물과 사물이 서로 이어지거나 현상과 현상이 관계가 맺어지다.'라는 의미이므로 ③의 '이어지다'와 바꿔 쓸 수 있다.
- ④ ㉢의 '분산되다'는 '갈라져 흩어지다.'라는 의미이므로 ④의 '나뉘다'와 바꿔 쓸 수 있다.
- ⑤ ㉤의 '감소하다'는 '양이나 수치가 줄다. 또는 양이나 수치를 줄이다.'라는 의미이므로 ⑤의 '줄다'와 바꿔 쓸 수 있다.

문해 공식 적용 어휘_유사한 의미

제어(절제하다 制 + 거느리다 御, 절제하다 制 + 말 부리다 馭)하다		받치다
운전실은 타워 크레인을 제어하는 곳으로, 하단에는 중량물을 수평으로 이동시키는 선회 장치가 있고	≠	운전실은 타워 크레인을 받치는 곳으로, 하단에는 중량물을 수평으로 이동시키는 선회 장치가 있고

❖ 어휘

- 유압: 압력을 가한 기름에 의하여 피스톤 따위의 동력 기계를 작동하는 일.
- 수치: 계산하여 얻은 값.

칸트의 취미 판단 이론

주제 칸트의 취미 판단 이론의 내용과 궁극적 지향점

구성

1문단	근대 초기의 합리론에 맞선 칸트의 주장과 취미 판단 이론
2문단	취미 판단의 개념과 내용
3문단	취미 판단에서의 공통감
4문단	취미 판단 이론의 지향점과 의의

1 답 ⑤

빼기

❖ 이어서 정답

- ⑤ 4문단에서 칸트가 궁극적으로 지향한 것은 인간의 총체적인 자기 이해이며 그에 따르면 '인간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얻고자 한다면, 이성뿐 아니라 미적 감수성에 대해서도 그 고유한 원리를 설명해야 한다고 하였다.

❖ 왜 오답

- ① 2문단에서 취미 판단이란 대상의 미추를 판정하는, 미감적 판단력의 행위라고 하였으므로 미감적 판단력은 취미 판단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S는 P이다.'라는 명제에 대해 규정적 판단에서는 술어 P가 보편적 개념에 따라 객관적 성질로서 주어 S에 부여되고, 취미 판단에서는 P, 즉 '미' 또는 '추'가 마치 객관적 성질인 것처럼 S에 부여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칸트가 미감적 판단력과 규정적 판단력을 동일하게 보았다고 할 수 없다.
- ② 4문단에서 객관적 타당성은 이성의 미덕인 동시에 한계가 되기도 하는데, 세계는 개념으로는 낱낱이 밝힐 수 없는 무한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이성에 의한 지식이 개념의 한계로 인해 객관적 타당성을 결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인 객관적 타당성을 지니지만 세계가 개념으로는 밝힐 수 없는 무한한 것이기 때문에 한계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 ③ 3문단에서 취미 판단은 주관적 보편성을 지닌다고 하였고, 4문단에서 미적 감수성은 대상을 개념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지만 역으로 개념으로부터의 자유를 통해 세계라는 무한의 영역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미적 감수성은 '비개념적 방식'으로 세계에 가까이 다가가지만, '세계에 대한 객관적 지식을 창출'하는 것은 아니다.
- ④ 1문단에서 칸트는 이성에 의한 확실한 지식만을 중시한 근대 초기의 합리론에 맞서 미적 감수성을 미감적 판단력이라 부르면서, 이 또한 어떤 원리에 의거하며 이성에 못지않은 위상과 가치를 지녔다고 주장했다고 하였으므로 칸트가 근대 초기의 합리론을 이끌었다고 할 수 없다.

2 답 ④

※ 곱하기

◎ 이래서 정답

- ④ [A]에 따르면 취미 판단에는 교훈적 내용 등 다른 맥락이 끼어들지 않아야 한다. '이 영화의 주제는 권선징악이어서 아름답다.'에는 '권선징악'이라는 교훈적 내용이 끼어들었으므로 취미 판단에 해당하지 않는다.

❖ 왜 오답

- ① [A]에 따르면 취미 판단은 'S는 P이다.'라는 명제 형식에서 P, 즉 '미' 또는 '추'가 마치 객관적 성질인 것처럼 S에 부여되고, 하나의 개별 대상에 대해서만 이루어진다. '이 장미는 아름답다.'는 하나의 개별 대상인 '이 장미'에 대해 '아름답다'라는 '미' 판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취미 판단에 해당한다.
- ② [A]에 따르면 취미 판단에는 실용적 유익성 등 다른 맥락이 끼어들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유용하다'라는 실용적 유익성을 말하는 술어는 취미 판단 명제의 술어가 될 수 없다.
- ③ [A]에 따르면 취미 판단은 오로지 하나의 개별 대상에 대해서만 이루어진다. 따라서 '모든 예술'이라는 모든 대상을 묶은 단위는 취미 판단 명제의 주어가 될 수 없다.
- ⑤ [A]에 따르면 취미 판단에는 대상에 대한 지식 등 다른 맥락이 끼어들지 않아야 한다. '이 소설은 액자식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에는 '액자식 구조'라는 대상에 대한 지식이 끼어들었으므로 취미 판단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답 ①

※ 곱하기

◎ 이래서 정답

- ① 2문단의 '취미 판단이란, 대상의 미추를 판정하는, 미감적 판단력의 행위', "이성이 개념을 통해 지식이나 도덕 준칙을 구성하는 '규정적 판단'", 4문단의 '미적 감수성은 대상을 개념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지만' 등을 바탕으로, 개념적 규정은 취미 판단이 아니라, 규정적 판단을 가능하게 함을 추론할 수 있다.

❖ 왜 오답

- ② 3문단에서 취미 판단의 주체들은 미감적 공동체를 이루고, 그 구성원들 간에는 '공통감'이라 불리는 공통의 미적 감수성이 전제로 작용하며, 이때 공통감은 취미 판단의 미적 규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공통감이 미감적 공동체에서 예술 작품의 미를 판정하는 보편적 규범이 될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 ③ 3문단에서 공통감으로 인해 취미 판단은 규정적 판단의 객관적 보편성과 구별되는 '주관적 보편성'을 지닌다고 하였으므로, 특정 예술 작품에 대한 사람들의 취미 판단이

일치하는 것은 공통감 때문이며 우연이 아님을 추론할 수 있다.

- ④ 3문단에서 어떤 주체가 내리는 취미 판단은 그가 속한 공동체의 공통감을 예시한다고 하였으므로, 나의 취미 판단이 내가 속한 미감적 공동체의 미적 감수성을 보여 준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 ⑤ 2문단에서 취미 판단은 오로지 대상의 형식적 국면을 관조하여 그것이 일으키는 감정에 따라 미추를 판정하는 것 이외의 어떤 다른 목적도 배제하는 순수한 태도, 즉 미감적 태도를 전제로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예술 작품에 대해 순수한 미감적 태도를 취하지 못한다면 그 작품에 대한 취미 판단을 할 수 없을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4 답 ④

※ 더하기

◎ 이래서 정답

- ④ ㉔의 '지니다'는 '바탕으로 갖추고 있다.'라는 의미이므로, '물건을 지니고 있다.'를 의미하는 ④의 '소지하다'로 바뀌 쓸 수 없다.

❖ 왜 오답

- ① ㉓의 '여기다'는 '마음속으로 그러하다고 인정하거나 생각하다.'라는 의미이므로, '상태, 모양, 성질 따위가 그와 같다고 보거나 그렇다고 여기다.'를 의미하는 ①의 '간주하다'와 바뀌 쓸 수 있다.
- ② ㉕의 '펼치다'는 '생각 따위를 전개하거나 발전시키다.'라는 의미이므로, '생각하는 것을 털어놓고 말하다.'를 의미하는 ②의 '피력하다'와 바뀌 쓸 수 있다.
- ③ ㉖의 '끼어들다'는 '자기 순서나 자리가 아닌 틈 사이를 비집고 들어서다.'라는 의미이므로, '자신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일에 끼어들다.'를 의미하는 ③의 '개입하다'와 바뀌 쓸 수 있다.
- ⑤ ㉗의 '퍼지다'는 '어떤 물질이나 현상 따위가 넓은 범위에 미치다.'라는 의미이므로, '흩어져 널리 퍼지게 되다.'를 의미하는 ⑤의 '확산되다'와 바뀌 쓸 수 있다.

문에 공식 적용 어휘 유사한 의미

지니다	소지(바 所 + 가지다 持)하다
공통감으로 인해 취미 판단은 규정적 판단의 객관적 보편성과 구별되는 '주관적 보편성'을 지니는 것으로 설명된다.	공통감으로 인해 취미 판단은 규정적 판단의 객관적 보편성과 구별되는 '주관적 보편성'을 소지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 어휘

- **총체적**: 있는 것들을 모두 하나로 합치거나 묶은 것.
- **감수성**: 외부 세계의 자극을 받아들이고 느끼는 성질.
- **배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물리쳐 제외함.

확인 1 답 ①

이래서 정답

- ① ㉠의 '퍼지다'와 ㉡의 '퍼지다'는 모두 '어떤 물질이나 현상 따위가 넓은 범위에 미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왜 오답

- ② '퍼지다'가 '끝 쪽으로 가면서 점점 굽거나 넓적하게 벌어 지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③ '퍼지다'가 '수효가 많이 분거나 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확인 2 답 (1) ○ (2) ×

이래서 정답

- (1) ㉠과 ㉡의 '고르다'는 모두 형용사로, '여럿이 다 높낮이, 크기, 양 따위의 차이가 없이 한결같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2) ㉢의 '고르다'는 동사로, '여럿 중에서 가려내거나 뽑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확인 3 답 (1) ㉢, ㉠ (2) ㉠

이래서 정답

- (1) ㉠의 '떨어지다'는 '값, 기온, 수준, 형세 따위가 낮아지거나 내려가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고, ㉡의 '떨어지다'는 '이익이 남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2) ㉢의 '떨어지다'는 '값, 기온, 수준, 형세 따위가 낮아지거나 내려가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므로 ㉠의 '떨어지다'와 문맥적 의미가 가장 가깝다.

확인 4 답 ②

이래서 정답

- ② ㉠의 '지다'는 '책임이나 의무를 맡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②의 '지다'는 '물건을 짊어서 등에 엮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확인 5 답 ①

이래서 정답

- ① ㉠의 '살다'와 ㉡의 '살다'는 모두 '본래 가지고 있던 색깔이나 특징 따위가 그대로 있거나 뚜렷이 나타난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왜 오답

- ② '살다'가 '불 따위가 타거나 비치고 있는 상태에 있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③ '살다'가 '어느 곳에 거주하거나 거처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확인 6 답 ③

이래서 정답

- ③ ㉠의 '질다'와 ㉡의 '질다'는 모두 '드러나는 기미, 경향, 느낌 따위가 보통 정도보다 뚜렷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왜 오답

- ① '질다'가 '안개나 연기 따위가 자욱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② '질다'가 '액체 속에 어떤 물질이 많이 들어 있어 진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 어휘

- 본래: 처음부터 또는 근본부터. = 본디.
- 거처: 일정하게 자리를 잡고 사는 일. 또는 그 장소.
- 기미: 어떤 일을 알아차릴 수 있는 눈치. 또는 일이 되어 가는 아릿한 분위기. = 낚새.

오토파지

주제 인체의 자연 치유력 중 하나인 오토파지의 원리

구성

1문단	자연 치유력과 오토파지의 개념
2문단	오토파지의 기능
3문단	오토파지가 일어나는 과정
4문단	오토파지의 필요성과 오토파지 이외의 자연 치유력

1 답 ②

→ 빠기

◎ 이래서 정답

- ② 이 글에서는 인체의 자연 치유력의 개념을 정의하고, 자연 치유력 중 하나인 오토파지의 개념, 기능, 과정, 오토파지가 일어나지 않을 때의 문제점 등을 제시하고 있다.

❖ 왜 오답

- ① 이 글에서 세포의 재생 능력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3문단에서 리소좀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설명하고는 있으나, 이는 오토파지가 일어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한 것이므로 이 글의 주제로 적절하지 않다.
- ③ 이 글에서 질병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4문단에서 오토파지 이외의 자연 치유력으로 면역력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이 글이 면역력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④ 이 글에서 노화를 막기 위한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4문단에서 오토파지 이외의 자연 치유력으로 아포토시스를 제시하고는 있으나, 이 글이 아포토시스의 원리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⑤ 이 글에서는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에 대해 설명하고 있을 뿐, 자기 면역 방어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2문단에서 오토파지가 활성화되는 상황을 제시하고 있을 뿐, 오토파지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2 답 ③

× 곱하기

◎ 이래서 정답

- ③ 3문단의 “오토파고솜과 리소좀이 합쳐지면 ‘오토파고리소좀’이 되는데 리소좀 안에 있는 가수 분해 효소가 오토파고솜 안에 있던 쓰레기들을 잘게 부수기 시작한다.”를 통해 오토파고솜(㉠)과 리소좀(㉡)이 결합하면 오토파고솜(㉠) 안의 가수 분해 효소가 아니라 리소좀(㉡) 안의 가수 분해 효소가 불필요한 단백질과 망가진 세포 소기관(㉢)을 잘게 부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왜 오답

- ① 1문단의 “오토파지”는 세포 안에 쌓인 불필요한 단백질과

망가진 세포 소기관을 분해해 세포의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현상이다.”와 3문단의 “그렇다면 오토파지는 어떤 과정을 거쳐 일어날까? 세포 안에 불필요한 단백질과 망가진 세포 소기관이 쌓이면”을 통해 알 수 있다.

- ② 3문단의 “세포 안에 불필요한 단백질과 망가진 세포 소기관이 쌓이면 세포는 세포막을 이루는 구성 성분을 이용해 이를 이중막으로 둘러싸 작은 주머니를 만든다. 이 주머니를 ‘오토파고솜’이라고 부른다.”를 통해 알 수 있다.
- ④, ⑤ 3문단의 ‘분해가 끝나면 막이 터지면서 막 안에 들어 있던 잘린 조각들이 쏟아져 나온다(④). 그리고 이 조각들은 에너지원으로 쓰이거나 다른 세포 소기관을 만드는 재료로 재활용된다(⑤).’를 통해 알 수 있다.

3 답 ②

→ 나누기

◎ 이래서 정답

- ② 1문단에 따르면 인체의 자연 치유력 중 하나인 오토파지(㉠)는 세포 안에 쌓인 불필요한 단백질과 망가진 세포 소기관을 분해해 세포의 에너지원으로 사용함으로써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현상이다. 한편 4문단에 따르면 아포토시스(㉡)는 개체를 보호하기 위해 비정상 세포, 손상된 세포, 노화된 세포가 스스로 사멸함으로써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현상이다.

❖ 왜 오답

- ① 1문단과 4문단에 따르면 오토파지(㉠)와 아포토시스(㉡)는 모두 우리 몸이 외부 환경이나 미생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자기 방어 시스템인 자연 치유력으로, 우리 몸(개체)을 보호하기 위해 일어나는 현상이다.
- ③ 2문단에 따르면 우리 몸에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거나 몸속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투할 때 발생하는 것은 아포토시스(㉡)가 아니라 오토파지(㉠)이다.
- ④ 2문단에서 오토파지(㉠)는 평소에는 우리 몸이 항상성을 유지할 정도로 최소한으로 일어나다가 우리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활성화되며, 이렇게 활성화된 오토파지를 통해 우리 몸은 생존에 필요한 아미노산과 에너지를 얻는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오토파지는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일어나는 현상이지, 생존에 필요한 아미노산과 에너지를 다량으로 얻기 위해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4문단에서 아포토시스(㉡)는 개체를 보호하기 위해 비정상 세포, 손상된 세포, 노화된 세포가 스스로 사멸하는 과정으로 우리 몸을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게 하는 현상이라고 했으므로, 생존에 필요한 아미노산과 에너지를 다량으로 얻기 위해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 ⑤ 1문단과 3문단에서 오토파지(㉠)는 세포 안에 쌓인 불필

요한 단백질과 망가진 세포 소기관을 분해한 조각들을 세포의 에너지원이나 다른 세포 소기관을 만드는 재료로 재 활용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오토파지(ⓐ)의 작동 과정에서는 세포가 분해되어 다른 세포 소기관을 만드는 데 활용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4문단에서 아포토시스(㉠)는 비정상 세포, 손상된 세포, 노화된 세포가 스스로 사멸하는 과정이라고 했을 뿐, 그 과정에서 세포가 분해되어 다른 세포 소기관을 만드는지는 알 수 없다.

4 답 ④

이래서 정답

④ ㉠의 '부르다'와 ㉡의 '부르다'는 모두 '무엇이라고 가리켜 말하거나 이름을 붙이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왜 오답

- ① '부르다'가 '구호나 만세 따위를 소리 내어 외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 ② '부르다'가 '어떤 방향으로 따라오거나 동참하도록 유도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 ③ '부르다'가 '값이나 액수 따위를 얼마라고 말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 ⑤ '부르다'가 '말이나 행동 따위로 다른 사람의 주의를 끌거나 오라고 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문해 공식 적용 어휘·문맥적 의미

지문	선지 ④
이 주머니를 '오토파고솜'이라고 부른다. → 이 주머니를 '오토파고솜'이라고 일컫는다.	도덕 기준이 없는 혼돈 상태를 아노미라고 부른다. → 도덕 기준이 없는 혼돈 상태를 아노미라고 일컫는다.

어휘

- **노화**: 질병이나 사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생체 구조와 기능이 쇠퇴하는 현상.
- **활성화**: 생체나 생체 물질이 그 기능을 발휘할, 또는 그런 일.
- **사멸**: 죽어 없어짐.
- **동참**: 어떤 모임이나 일에 같이 참가함.

사전 04-B

본문 42~43

홍대용의 사상

주제 홍대용의 사상과 그 의의

구성

1문단	중화사상의 개념과 북벌론·척화론의 등장 배경
2문단	북학파의 등장 배경과 북학파인 홍대용이 사상적 전환을 이룬 계기
3문단	홍대용의 사상적 전환을 보여 주는 지구설과 무한 우주설
4문단	지구설과 무한 우주설을 바탕으로 중화사상과 당대의 문제점을 비판한 홍대용
5문단	홍대용 사상의 의의

1 답 ③

이래서 정답

③ 2문단에서 홍대용은 청나라 여행을 계기로 선진 문물과 새로운 학문을 탐구한 결과 사상적 전환을 이루었다고 하였고, 3문단에서 홍대용이 하늘이 둥글고 땅이 모나다는 전통적인 천지관을 비판하고 땅이 둥글다는 지구설을 주장했다고 하였다. 따라서 ③은 홍대용이 청나라 여행을 계기로 깨달은 점으로 볼 수 없다.

왜 오답

- ① 1문단을 통해 17세기에 청나라가 중국 땅을 차지하자 조선에서는 청나라를 공격하자는 북벌론과 청나라를 배척하자는 척화론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 ② 2문단의 '18세기에 청나라가 정치적 안정을 이루고 조선이 북벌을 통해 명나라를 회복하기 어렵게 되자, 조선의 유학자들 사이에서는 조선이 중화의 계승자라는 인식이 보편화되었다.'를 통해 알 수 있다.
- ④ 3문단에서 「의산문답」에 실려 있는 지구설과 무한 우주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⑤ 이 글에 홍대용이 아닌 다른 북학파 학자들의 사상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2 답 ④

이래서 정답

④ 3문단의 '홍대용의 사상적 전환을 잘 보여 주는 것은 「의산문답」에 실려 있는 지구설과 무한 우주설이다.'와 4문단의 '지구설과 무한 우주설은 세상의 중심과 그 주변을 구별하는 중화사상과 다른 생각이다.' 등을 통해 지구설(㉠)은 홍대용이 중화사상(㉡)에서 벗어났음을 보여 주는 학설임을 알 수 있다.

왜 오답

① 1문단에 따르면 중화사상(㉡)이 조선의 중심 사상으로 자리 잡은 것은 맞지만, 4문단에 따르면 지구설(㉠)은 중화

사상(㉠)에 어긋나는 학설이다.

- ② 1문단을 통해 중화사상(㉠)은 청을 오랑캐로 여기는 생각의 근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4문단을 통해 지구설(㉡)은 청을 오랑캐로 여기는 생각을 비판하는 근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 ③ 1문단을 통해 중화사상(㉠)은 북벌론과 척화론의 바탕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4문단에서 지구설(㉡)은 중화사상과 다른 생각이라고 했으므로 척화론의 바탕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 ⑤ 1~2문단에 따르면 중화사상(㉠)이 조선의 유학자들이 가지고 있던 사상은 맞지만, 4문단에 따르면 지구설(㉡)은 중화사상(㉠)에 어긋나는 학설이므로, 지구설(㉡)은 중화사상(㉠)을 발전시킨 것으로 볼 수 없다.

3 답 ④

※ 곱하기

| 보기 | 오려 보기

- (가) ... 변화한 문물을 오랑캐에게 맡기고 백 년이 넘도록 회복할 방법이 없구나. - 홍대용, 「을병연행록」
- (나) 피와 살이 있으면 다 똑같은 사람이고, 강토를 지키고 있으면 다 동등한 국가이다. ... - 홍대용, 「의산문답」

◎ 이래서 정답

- ④ (나)의 「춘추」에서 주나라 안과 밖을 구분한 것이 당연하다는 것은, 공자가 주나라 사람이므로 그가 쓴 「춘추」에서 주나라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미인데, 이는 4문단에서 언급한 '사람들이 각자 제 나라와 제 문화를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홍대용의 생각을 보여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왜 오답

- ① 1문단에 따르면 청나라를 오랑캐로 보는 것은 중화사상을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가)의 '변화한 문물을 오랑캐에게 맡기고'에서 청나라를 오랑캐라고 한 것은 홍대용이 중화사상을 가진 적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2문단의 '18세기에 청나라가 정치적 안정을 이루고 조선이 북벌을 통해 명나라를 회복하기 어렵게 되자, 조선의 유학자들 사이에서는 조선이 중화의 계승자라는 인식이 보편화되었다.'에 따르면, (가)의 '우리 조선만이 오히려 명나라의 제도를 지키거늘'은 홍대용이 조선을 중화의 계승자라고 생각했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2문단의 '홍대용은 청나라의 발달된 문물은 오랑캐인 청나라가 만든 것이 아니라, 청나라가 중국 땅을 차지하며 가지게 된 한족의 문물로 보았다.'에 따르면, (가)의 '변화한 문물을 오랑캐에게 맡기고'는 홍대용이 청나라와 청나

라가 가지고 있는 문물을 구별하려 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나)에서 공자가 주나라 밖에 살았다면 그곳에서 도를 일으켰을 것이라는 부분은, 주나라가 아닌 다른 곳에서도 도가 나올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이는 4문단에서 언급한 '중국 안과 밖을 구별할 수 없고 중화와 오랑캐라는 구별도 상대적이라'는 홍대용의 생각을 보여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답 ①

+) 더하기

◎ 이래서 정답

- ① ②의 '세우다'와 ①의 '세우다'는 모두 '나라나 기관 따위를 처음으로 생기게 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 왜 오답

- ② '세우다'가 '질서나 체계, 규율 따위를 올바르게 하거나 짜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 ③ '세우다'가 '계획, 방안 따위를 정하거나 짜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 ④ '세우다'가 '처져 있던 것을 똑바로 위를 향하여 곧게 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 ⑤ '세우다'가 '무딘 것을 날카롭게 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문해 공식 적용 어휘_문맥적 의미

지문	선지 ①
17세기에 이민족이 세운 청나라 → 17세기에 이민족이 건립한 청나라	그는 새로운 회사를 세웠다. → 그는 새로운 회사를 건립했다.

❖ 어휘

- 보편화: 널리 일반인에게 퍼짐. 또는 그렇게 되게 함.
- 학설: 학술적(학문과 기술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주장하는 이론 체계.
- 변화한: 변성하고 화려한.

미술품 복원 작업

주제 미술품 복원 작업의 종류 및 과학적 원리를 이용한 처리 방법
구성

1문단	미술품 복원 작업의 개념과 유의점
2문단	미술품 복원 작업의 종류
3문단	작품의 상태를 조사하기 위한 X선 투과 사진법의 원리와 방법
4문단	작품에 사용된 재료의 화학 성분을 분석하기 위한 형광 X선 분석법의 원리 및 장점
5문단	복원 처리 과정을 고려한 작품 감상의 필요성

1 답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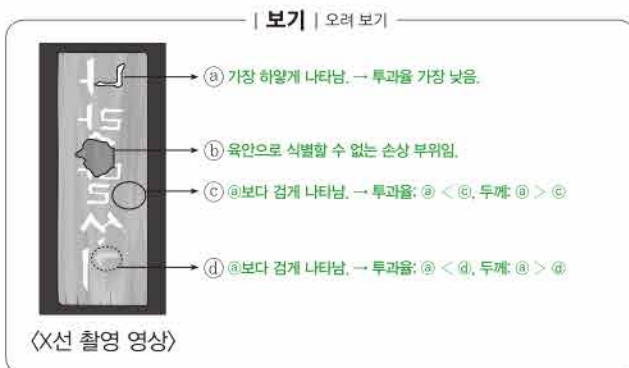
이래서 정답

- ③ 4문단의 '형광 X선 분석법은 실험 재료를 ~ 벽화나 단청처럼 측정 대상을 이동시키기 어려운 경우의 성분 분석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를 통해 적절함을 알 수 있다.

왜 오답

- ① 2문단의 '예방 보존 작업은 작품의 손상을 ~ 모든 활동이 해당된다.'를 통해 작품 보존에 필요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예방 보존 작업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 ② 1문단의 '미술 작품은 사용된 재료의 자연적 노화 현상이나 ~ 미술품 복원 작업이라고 한다.'를 통해 작품에 사용된 재료의 자연적 노화로 인해 발생한 작품의 손상도 미술품 복원 작업의 대상임을 알 수 있다.
- ④ 4문단의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에 X선을 쏘이면, ~ 고유의 형광 X선이 발생하는데'를 통해 형광 X선은 원소의 안쪽 전자 궤도에 위치한 전자가 X선과 충돌하여 바깥쪽으로 이동할 때 발생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 ⑤ 1문단의 '복원 작업을 할 때에는 미관적인 면보다는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에 초점을 맞추어'와 2문단의 '작업을 진행할 때에는 ~ 이해와 존중이 요구된다.'를 통해 미술 작품의 보존 작업은 작품 원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미관적인 면보다 작가의 의도에 초점을 두어야 함을 알 수 있다.

2 답 ①



이래서 정답

- ① [A]에서 'X선의 투과력이 감소할수록 투과율 또한 감소하여 물체의 영상은 필름에 하얗게 나타난다.'라고 하였으므로, ㉠ ~ ㉣ 중 가장 하얗게 나타난 ㉠이 X선 투과율이 가장 낮은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왜 오답

- ② [A]의 '파장이 짧을수록 투과력이 증가하며'와 'X선의 투과력이 감소할수록 투과율 또한 감소하여 물체의 영상은 필름에 하얗게 나타난다.'를 통해 파장이 짧은 X선을 사용할수록 ㉢는 더 검게 나타날 것임을 알 수 있다.
- ③ 〈촬영 전 목판〉에서 ㉡는 아무런 손상이 없지만, 〈X선 촬영 영상〉에서 ㉡는 다른 부분에 비해 검게 나타났다. 그런데 [A]에서 X선 투과 사진법을 통해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미술품의 손상 부위도 찾아낼 수 있'다고 했으므로 목판의 ㉡에는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손상 부위가 있을 것임을 알 수 있다.
- ④ [A]에서 '흑백의 명암 차를 분석하면 물체의 밀도와 두께'를 알 수 있다고 하였는데, ㉡는 ㉢보다 하얗게 나타났으므로 X선의 투과율은 ㉡가 ㉢보다 낮다고 할 수 있다. 또 [A]를 통해 물체의 밀도가 크고 두께가 두꺼울수록 투과력과 투과율이 감소함을 알 수 있는데, 〈보기〉에서 목판은 밀도가 같은 동일한 재질로 이루어졌다고 하였으므로, 투과율이 더 낮은 ㉡ 부위의 목판 두께가 ㉢ 부위의 목판 두께보다 두껍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⑤ [A]에서 'X선의 투과력이 감소할수록 투과율 또한 감소하여 물체의 영상은 필름에 하얗게 나타난다.'라고 하였고, 〈보기〉에서 목판은 밀도가 같은 동일한 재질로 이루어졌다고 하였다. 그런데 ㉡는 ㉡보다 검게 나타나 있으므로 ㉡는 ㉡보다 두께가 얇다고 할 수 있다. ㉡ 부위의 두께가 더 얇은 것은 해당 부위가 손상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3 답 ④

ⓧ 굵히기 Ⓢ 나누기

이래서 정답

- ④ 산소 원자 복원법(㉣)은 탄화수소로 이루어진 그을음에 산소를 쏘아 산소 원자와 탄소 원자의 결합, 산소 원자와 수소 원자의 결합을 통해 그을음을 제거하는 원리이므로, ㉣는 산소 원자에 의해 원소끼리 결합하는 원리를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4문단에서 형광 X선 분석법(㉡)은 X선과 전자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형광 X선이 발생하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X선에 의해 원소의 양이 증가하는 원리를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왜 오답

- ① 4문단에 따르면 클리닝 작업은 여러 가지 화학 약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작품에 손상을 가할 위험성이 매우 큰 작

업이므로 이 작업을 하기 전에 작품에 사용된 재료의 화학 성분을 분석하기 위해 형광 X선 분석법(㉓)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보기>에서 산소 원자 복원법(㉔)을 사용해도 작품의 손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㉓와 ㉔는 모두 복원하고자 하는 작품을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으로 볼 수 있다.

- ②, ③ 4문단에서 클리닝 작업을 실시하기 전에 작품에 사용된 재료의 화학 성분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 형광 X선 분석법(㉓)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4문단에서 작품을 오염시키고 있는 이물질들을 제거하는 작업이 클리닝 작업이라고 하였는데, <보기>에서 산소 원자 복원법(㉔)은 이물질인 탄화수소로 이루어진 그을음을 제거하는 방법이라고 하였으므로 ㉔는 클리닝 작업을 실시할 때 시행하는 방법임을 알 수 있다.
- ⑤ 4문단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에 X선을 쏘이면 원소에 따라 고유의 형광 X선이 발생하는데, 이 형광 X선의 파장을 분석하면 원소의 종류를 알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형광 X선 분석법(㉓)의 결과인 형광 X선의 파장은 원소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보기>에 따르면 산소 원자 복원법(㉔)은 탄화수소로 이루어진 그을음에 산소를 쏘아 이산화 탄소나 일산화 탄소, 수증기가 되게 함으로써 그을음을 제거하는 방법인데, 미술품을 이루는 원소들은 오랜 시간 공기 중에 노출된 상태라고 했으므로 ㉔의 결과는 작품을 구성하는 원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4. 답 ②

➔ 더하기

○ 이래서 정답

- ② ①의 '나누다'와 ②의 '나누다'는 모두 '여러 가지가 섞인 것을 구분하여 분류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 왜 오답

- ① '나누다'가 '하나를 둘 이상으로 가르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 ③ '나누다'가 '같은 핏줄을 타고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 ④ '나누다'가 '음식 따위를 함께 먹거나 갈라 먹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 ⑤ '나누다'가 '몫을 분배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문해 공식 적용 어휘_문맥적 의미

지문	선지 ②
미술품 복원 작업은 목적에 따라 예방 보존 작업과 긴급 보존 처리 작업, 보존 복원 처리 작업으로 나눌 수 있다. → 미술품 복원 작업은 목적에 따라 예방 보존 작업과 긴급 보존 처리 작업, 보존 복원 처리 작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나는 물건들을 색깔별로 나누는 작업을 한다. → 나는 물건들을 색깔별로 분류하는 작업을 한다.

실전 04-D

본문 46~47

디지털카메라의 자동 초점 방식

주제 디지털카메라의 자동 초점 방식의 종류와 그 원리

구성

1문단	디지털카메라의 자동 초점 방식의 종류
2문단	대비 검출 방식의 원리와 장단점
3문단	위상차 검출 방식의 원리와 초점을 맞추는 과정
4문단	위상차 검출 방식의 초점을 맞추는 방법과 장점

1. 답 ④

➔ 빼기

○ 이래서 정답

- ④ 3문단의 '위상차 검출 방식은 상이 맺히는 이미지 센서가 직접 초점을 검출하지 않고 AF 센서에서 초점을 검출한다.'에서 위상차 검출 방식은 이미지 센서가 아니라 AF 센서에서 초점을 검출한다고 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왜 오답

- ① 2문단의 '대비 검출 방식은 촬영 렌즈를 통해 들어온 빛을 피사체의 상이 맺히는 이미지 센서로 바로 보내'를 통해 적절함을 알 수 있다.
- ② 2문단의 '대비 검출 방식에서는 빛의 대비가 최대치가 되는 지점을 파악하기 위해 촬영 렌즈를 앞뒤로 반복적으로 움직이면서'를 통해 적절함을 알 수 있다.
- ③ 위상차 검출 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3문단의 '주 반사 거울을 통과한 빛은 보조 반사 거울에서 반사되어'를 통해 적절함을 알 수 있다.
- ⑤ 위상차 검출 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3문단의 '주 반사 거울에서 반사된 빛은 뷰파인더로 보내져 촬영자가 피사체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 준다.'를 통해 적절함을 알 수 있다.

2. 답 ①

⊗ 곱하기 ⊕ 나누기

○ 이래서 정답

- ① 1문단의 '피사체를 선명하게 촬영하기 위해 초점을 자동으로 맞추는 자동 초점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를 통해 ㉓에는 '자동 초점'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대비 검출 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2문단의 '이 방식(대비 검출 방식)은 촬영 렌즈가 반복적으로 움직여야 하므로 초점을 맞추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려 빠르게 움직이는 피사체를 촬영할 때는 초점을 맞추기 힘들다.'와 위상차 검출 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4문단의 '이 방식(위상차 검출 방식)은 AF 센서에서 초점을 검출하여 촬영 렌즈를 한 번만 이동시키기 때문에 초점을 맞추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다.'를 통해 대비 검출 방식보다 위상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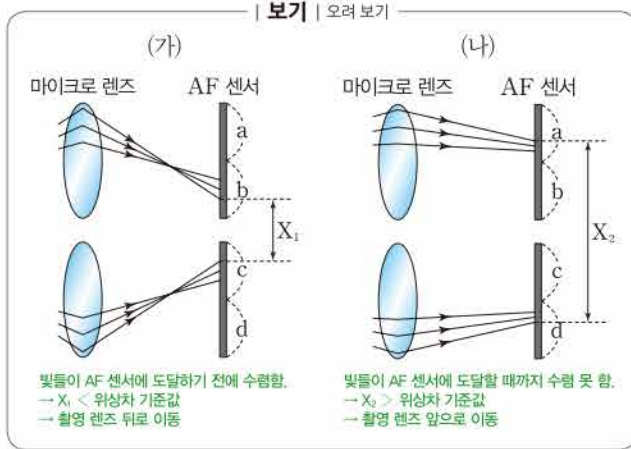
검출 방식의 초점을 맞추는 속도가 빠르다(㉔)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자동차를 촬영하기 위해서는 대비 검출(㉒) 방식보다는 위상차 검출(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❶ 왜 오답

②, ③, ④, ⑤ ㉒ ~ ㉔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다.

3 답 ⑤

✕ 광학기



❷ 이어서 정답

⑤ 4문단의 ‘광학적으로 이미 결정되어 있는 위상차 기준값’을 통해 위상차 기준값은 변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나)에서 촬영 렌즈를 이동해 위상차 기준값을 크게 만들 수는 없다.

❸ 왜 오답

- ① 4문단의 ‘이 방식(위상차 검출 방식)은 AF 센서에서 초점을 검출하여 촬영 렌즈를 한 번만 이동시키기 때문에’를 통해 (가)에서는 측정된 위상차 값인 X_1 을 위상차 기준값과 동일하게 만들기 위해서 촬영 렌즈를 한 번만 이동시킬 것임을 알 수 있다.
- ②, ③ (가)는 마이크로 렌즈를 지난 빛들이 AF 센서에 도달하기 전에 수렴하여, b 영역과 c 영역에 퍼져서 도달하고 있다. 그런데 4문단에서 이러한 경우 ‘측정된 위상차 값은 정해진 위상차 기준값보다 작아지기 때문에(②) 초점을 맞추기 위해 촬영 렌즈를 뒤로 이동시킨다(③).’라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 ④ (나)는 마이크로 렌즈를 지난 빛들이 AF 센서에 도달할 때까지 수렴하지 못하여, a 영역과 d 영역에 퍼져서 도달하고 있다. 그런데 4문단에서 이러한 경우 ‘측정된 위상차 값은 정해진 위상차 기준값보다 커진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나)에서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정해진 위상차 기준값과 일치하도록 측정된 위상차 값인 X_2 를 줄여야 한다.

4 답 ③

+ 더하기

❶ 이어서 정답

③ ㉒의 ‘통하다’와 ㉔의 ‘통하다’는 모두 ‘어떤 길이나 공간 따위를 거쳐서 지나가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❷ 왜 오답

- ① ‘통하다’가 ‘마음 또는 의사나 말 따위가 다른 사람과 소통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 ② ‘통하다’가 ‘말이나 문장 따위의 논리가 이상하지 아니하고 의미의 흐름이 적절하게 이어져 나가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 ④ ‘통하다’가 ‘어떤 행위가 받아들여지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 ⑤ ‘통하다’가 ‘어떤 관계를 맺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문해 공식 적용 어휘_문맥적 의미

지문
대비 검출 방식은 촬영 렌즈를 통해 들어온 빛을 피사체의 상이 맺히는 이미지 센서로 바로 보내 → 대비 검출 방식은 촬영 렌즈를 거쳐 들어온 빛을 피사체의 상이 맺히는 이미지 센서로 바로 보내

선지 ③
그들은 비상구를 통해 건물을 빠져나갔다. → 그들은 비상구를 거쳐 건물을 빠져나갔다.

+ 어휘

- 광학적: 빛의 물리적 성질을 갖는, 또는 그러한 것.
- 도달: 목적한 곳이나 수준에 다다름.

확인 1 답 (1) ○ (2) × (3) ○ (4) ×

이래서 정답

- (1) 화제는 문장에서 서술하고 있는 대상으로, 중심 화제와 보조 화제로 나뉜다.
- (2) 중심 화제가 보조 화제보다 중점적으로 서술된다.
- (3) 중심 화제는 글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핵심 대상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 (4) 보조 화제는 글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핵심 대상이 아니라 중심 화제에 대해 말하기 위해 동원한 대상이다.

확인 2 답 ②

이래서 정답

- ② 건물의 세 부분 중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부분인 지붕에 주목하여 설명하고 있으므로, 중심 화제는 '지붕'이다.

왜 오답

- ①, ③ 지붕과 함께 건물을 이루는 구성 요소로 언급된 것일 뿐, 벽이나 바닥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으므로, 중심 화제로 볼 수 없다.

확인 3 답 ①

이래서 정답

- ① 1문단에서 개체화의 개념을 정의하고, 2문단에서 현대의 개체화 추세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개체화'라는 어휘가 반복되고 있다. 이로 보아 <보기>에서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중심 화제는 '개체화'이다.

왜 오답

- ② '분절화'는 전 세계적인 노동 시장의 유연화 경향에 따른 노동자들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언급된 내용일 뿐, 설명의 핵심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 ③ '세계화'는 <보기>에서 반복적으로 나오지 않으며, 개체화 현상이 과거와는 달라진 양상을 보이게 된 계기를 설명하기 위해 언급된 내용일 뿐, 중심 화제로 볼 수 없다.

확인 4 답 (1) 헬리콥터 (2) 비행기

이래서 정답

- (1) '헬리콥터의 비행 원리'를 중심 화제로 삼고 이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2) 비행기가 뜨는 원리를 보조 화제로 활용하여 헬리콥터가 뜨는 원리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옥 공간

주제 한옥 공간의 의미와 특징

구성

1문단	막히지 않고 순환하는 한옥 공간
2문단	'원통'한 공간으로서의 한옥
3문단	외파 증식으로 발전해 온 한옥의 평면 구성 방식
4문단	동선 선택이 가능한 한옥 공간
5문단	한국인의 가치관을 구현하는 한옥

1 답 ①

배기

이래서 정답

- ① 이 글의 중심 화제는 '한옥 공간'으로, '원통'의 개념을 이용하여 안팎의 분별을 없애 어울림을 추구하는 한옥 공간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의 표제로는 '한옥 공간의 의미'가, 부제로는 '안팎의 분별을 없앤 원통의 공간'이 적절하다.

왜 오답

- ② 이 글은 순환하는 한옥 공간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한옥 구조의 특징'을 표제로 삼을 수도 있다. 그러나 2문단에서 한옥은 '원'이라는 것에서 기하학적 형상을 읽은 것이 아니라 '통'하는 가능성을 읽은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기하학적 형상을 중심으로'라는 부제는 적절하지 않다.
- ③ 이 글은 한옥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을 뿐, 주거 형태의 변화를 다루고 있지 않다.
- ④ 3문단에는 한옥의 외파 증식 방식과 서양 건축의 내파 분할 구성을 비교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하지만 이는 한옥만의 독특한 구성 방식을 설명하기 위한 부차적인 내용일 뿐, 글 전체를 아우르는 중심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⑤ 4문단에서는 돌아가기와 질러가기가 모두 가능한 한옥 공간의 동선 구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한옥 공간의 특징을 보여 주는 부분적인 내용일 뿐, 이 글 전체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중심 내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적절하지 않다.

문제 공식 적용 중심 화제

- 1~2문단에서는 막히지 않고 순환하는 '원통'한 공간으로서의 한옥 공간에 대해 설명함.
- 3~4문단에서는 한옥의 원통 구성과 관련이 깊은 외파 증식과 한옥 공간의 동선 구조에 대해 설명함.
- 5문단에서는 한옥 공간의 다양한 가능성과 한옥이 구현하고 있는 한국인의 가치관에 대해 설명함.



중심 화제	한옥 공간
-------	-------

2 답 ①

➡ 나누기

㉠이래서 정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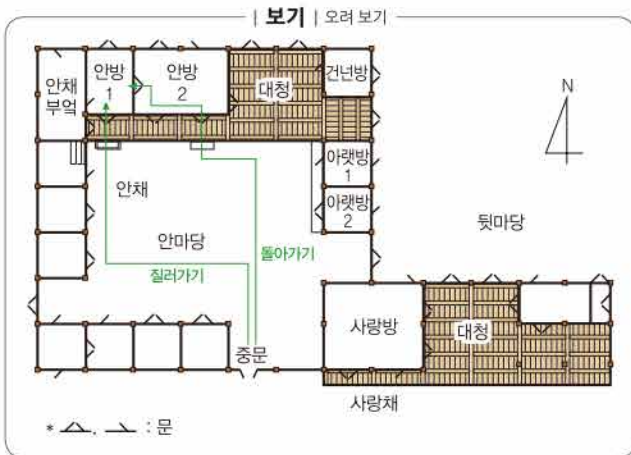
- ① 3문단에서 한옥의 원통 구성은 '외파 증식'의 방식과 관련이 깊고, 한옥의 평면 구성 방식은 개별 채에서부터 한 번 꺾인 'ㄱ' 자형, 두 번 꺾인 'ㄷ' 자형, 세 번 꺾여 에워싸는 'ㄴ' 자형, 에워싼 다음 한 번 더 뻗어 나간 'ㄹ' 자형 등이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방 하나의 기본 공간 단위가 밖으로 증식하면서 분할하는 외파 증식(㉠)은 꺾임의 방법에 따라 구성 방식이 다양함을 알 수 있다.

㉡왜 오답

- ② 윤곽을 먼저 정하고 안으로 잘라 들어가며 구성하는 것은 내파 분할(㉡)이다.
- ③ 방 하나의 기본 공간 단위가 밖으로 증식하면서 분할하는 것은 ㉠이다.
- ④ ㉠은 기본 공간 단위가 밖으로 증식하면서 분할하는 방식이고, ㉡은 윤곽을 먼저 정하고 안으로 잘라 들어가며 구성하는 방식이다. 분할의 방식에 따라 건물의 구조가 결정된다는 설명은 ㉠과 ㉡ 모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⑤ ㉠은 개별 채에서부터 공간 단위가 밖으로 꺾이고 뻗어 나가는 방식으로 평면이 구성된다. 이에 반해 ㉡은 정해진 윤곽 안에서 잘라 들어가는 방식으로 평면이 구성된다. 따라서 공간이 뻗어 나가는 방향에 따라 동선 구조가 생기는 것은 ㉠이다.

3 답 ②

✕ 곱하기



㉠이래서 정답

- ② 4문단을 통해 여러 공간을 거쳐 가는 것은 '돌아가기'이고, 최단 거리로 가는 것은 '질러가기'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문에서 안방 1로 갈 때 안마당을 통과해 다른 방을 거치지 않고 최단 거리로 가는 것이 '질러가기'에 해당하고, 안채의 대청에서 안방 2를 거쳐 안방 1로 가는 것은 '돌아가기'에 해당한다.

㉡왜 오답

- ① 1문단에서 한옥은 방과 방 사이에 문이 난 경우도 제법 많아 문을 트면 길이 나게 된다고 하였다. <보기>에서 안방 1과 안방 2 사이에는 문이 있으므로, 이 문을 트면 길이 나게 된다.
- ③ 2문단에서 한옥 공간은 원처럼 둥글어서 통하게 되어 있어 뒤돌아서는 일 없이 직각으로만 꺾다 보면 처음 출발했던 곳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고 하였다. <보기>에서도 사랑방의 문을 통해 뒷마당으로 나가 사랑채의 대청을 통해 다시 사랑방으로 돌아올 수 있다.
- ④ 4문단에서 한옥에서는 여러 조건에 따라 동선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안채 부엌에서 안마당을 거쳐 뒷마당으로 나간 뒤 사랑방으로 갈 수도 있고, 안채의 다른 방과 대청을 거쳐 뒷마당으로 나간 뒤 사랑채의 대청을 통해 사랑방으로 갈 수도 있다.
- ⑤ 1문단에서 한옥은 사방으로 적당히 뿔려 있고 적당히 막혀 있는 공간이라고 하였다. 안방 2는 사방의 문을 트면 대청, 안마당, 안방 1 등과 통할 수 있어 뿔려 있는 공간이 된다.

4 답 ④

➡ 더하기

㉠이래서 정답

- ④ '엄혀 있거나 복잡한 것을 풀어서 개별적인 요소나 성질로 나눔.'은 '분석'의 사전적 의미이다. 그러나 ㉠의 '분별'의 사전적 의미는 '서로 다른 일이나 사물을 구별하여 가름.'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왜 오답

- ①, ②, ③, ⑤ ㉠의 '간주', ㉡의 '발아', ㉢의 '윤곽', ㉣의 '구현'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다.

➡ 어휘

- **안채**: 한 집 안에 안팎 두 채 이상의 집이 있을 때, 안에 있는 집채.
- **대청**: 한옥에서, 몸채의 방과 방 사이에 있는 큰 마루. ≡ 대청마루.
- **사랑채**: 사랑(집의 안채와 떨어져 있는, 바깥주인이 거쳐하며 손님을 접대하는 곳)으로 쓰는 집채.

사르트르 실존주의

주제 사르트르 실존주의의 특성과 의의
구성

1문단	사르트르 실존주의에서 '본질'과 '실존'의 의미
2문단	인간과 사물의 존재 차이
3문단	의식의 유무로 구분되는 '즉자 존재'와 '대자 존재'
4문단	타인의 시선으로 규정되는 '대타 존재'
5문단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참된 자아를 찾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
6문단	사르트르 실존주의에 대한 평가

1 답 ④

→ 보기

① 이어서 정답

- ④ 이 글에서는 사르트르가 구분한 존재(사물과 인간, 자신과 타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르트르 실존주의의 특성과 의의를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의 표제로는 '사르트르 실존주의의 특성과 의의'가, 부제로는 '사물, 나, 타자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가 적절하다.

② 왜 오답

- ① 2~3문단에서 인간과 사물의 차이점을 언급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중심으로 사르트르 실존주의의 장단점을 설명하지는 않았다.
- ② 1문단에서 실존주의의 발생 배경에 대하여 '현대 과학 기술 문명과 전쟁 속에서 비인간화되어 가는 현실을 고발하는 과정에서 등장'했다고 설명한 부분은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글 전체를 아우르는 중심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
- ③ 1문단에서 사르트르의 사상은 '실존은 본질에 선행한다.'로 집약할 수 있다고 하며 본질과 실존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본질과 실존의 우선순위 변화를 중심으로 한 사르트르 실존주의의 변천 과정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⑤ 3~4문단에서는 '즉자 존재', '대자 존재', '대타 존재' 등 사르트르 실존주의의 주요 개념을 드러내고 있고, 6문단에서는 사르트르 실존주의에 대한 비판적 시각, 즉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자유와 책임의 상호 관계를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지는 않다.

문해 공식 적용 중심 화제

- 1문단에서는 사르트르 실존주의에서 본질과 실존이 의미하는 것에 대해 설명함.
- 2~5문단에서는 사르트르 실존주의에서 인간과 사물의 존재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참된 자아를 찾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함.
- 6문단에서는 사르트르 실존주의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의의를 등을 언급하며 평가함.



중심 화제

사르트르 실존주의

2 답 ①

→ 보기

① 이어서 정답

- ① 2문단에서 '사물은 본질이 그 존재에 선행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사르트르는 사물의 존재는 그 본질로부터 나온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으므로, 사물의 본질이 존재에서 나온다는 것은 사르트르의 견해라고 볼 수 없다.

② 왜 오답

- ② 3문단의 '자기 자신을 대상화하여 ~ 욕망이 생길 수 있다고 보았다.'를 통해 사르트르는 선택의 자유가 번민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 ③ 3문단을 통해 사르트르는 이 세계의 모든 존재를 '의식'의 유무를 기준으로 의식이 없는 '사물 존재'와 의식이 있는 '인간 존재'로 구분하였음을 알 수 있다.
- ④ 3문단에서 사르트르가 인간은 자기의식을 가진 대자 존재라고 명명하였음을 알 수 있고, 4문단에서 사르트르가 타인의 시선으로 규정되는 인간의 모습을 대타 존재라고 명명하였음을 알 수 있다.
- ⑤ 5문단을 통해 사르트르는 나와 타자가 맺는 관계는 공존이 아니라 갈등과 투쟁으로 여겼음을 알 수 있다.

3 답 ⑤

→ 보기

① 이어서 정답

- ⑤ 4문단에서 '내가 주체적 의식을 지니고 살아가듯이 ~ 나를 즉자 존재처럼 객체화하여 파악할 수 있'다고 하였고, 5문단에서 '이런 시선은 타자만 나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도 타자에게 보낼 수 있다.'라고 하였다. ㉠의 뒤에서 나와 타자가 맺는 관계는 공존이 아니라 갈등과 투쟁이라고 하였으므로, ㉠에는 나와 타자가 서로를 대상으로 삼아 객체화하려고 한다는 내용이 들어갈 것임을 알 수 있다.

② 왜 오답

- ① ㉠의 뒤에서 나와 타자가 맺는 관계는 공존이 아니라 갈등과 투쟁이라고 하였으므로, 서로가 서로의 자유로운 선택을 인정한다고 보기 어렵다.
- ② 나와 타자가 각자의 방식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자기의식을 가진 '대자 존재'로서의 모습에 해당한다.
- ③ 주체성을 지닌 존재는 '대자 존재'라고 할 수 있으므로, 서로가 서로를 주체성을 지닌 존재로 파악하는 것은 '대자 존재'로서의 모습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의 앞 내용으로 보아 ㉠에는 나와 타자가 서로에게 시선을 보낼 수 있는 이유가 들어가야 하므로 나와 타자가 서로의 시선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 보기 | 오래 보기

유신론적 실존주의자인 키르케고르는 인간은 스스로의 결단을 통해 자신의 삶을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참된 자아 실현의 과정을 3단계로 나누었다. ... 윤리 규범을 준수하며 살아가는 '윤리적 실존'의 단계에서는 자신의 불완전성으로, 결국 절망을 느끼게 된다고 보았다. ...

② 이래서 정답

- ⑤ <보기>에서 키르케고르는 참된 자아실현의 과정 중 하나로 윤리 규범을 준수하며 살아가는 '윤리적 실존'의 단계를 언급하였으므로, 사회적 관습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겼음을 알 수 있다. 반면 6문단에 따르면 사르트르는 개인이 사회적 관습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는 사실을 간과하였다는 점에서 비판받기도 했으므로, 윤리 규범과 같은 사회적 관습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고 볼 수 없다.

③ 왜 오답

- ① 2문단에서 사르트르는 무신론자라고 했으므로 신에 의존하지 않는 삶을 추구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보기>에서 유신론적 실존주의자인 키르케고르는 신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종교적 실존'을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므로 신에 의존하는 삶을 추구했다고 볼 수 있다.
- ② <보기>에서 키르케고르는 참된 자아실현의 과정을 3단계로 나누었다고 하였다. 한편 이 글에서 사르트르가 자아실현의 과정이 단계별로 진행된다고 보았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 ③ 1문단에 따르면 사르트르는 자기의 존재를 자각하면서 존재하는 주체적인 상태인 '실존'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보기>에 따르면 키르케고르는 인간은 스스로의 결단을 통해 자신의 삶을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사르트르와 키르케고르는 모두 인간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믿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④ 5문단에 따르면 사르트르는 인간은 참된 자아를 찾기 위해 타자의 시선을 두려워하거나 피할 것이 아니라 이를 극복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그리고 <보기>에 따르면 키르케고르는 '미적 실존'의 단계와 '윤리적 실존'의 단계에서 느끼게 되는 절망을 극복하고 참된 자아를 찾기 위해서는 '종교적 실존'의 단계를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를 통해 사르트르는 참된 자아를 찾기 위해 '타자의 시선'을 극복해야 한다고 여겼고, 키르케고르는 '절망'을 극복해야 한다고 여겼음을 알 수 있다.

④ 어휘

- **우선순위**: 어떤 것을 먼저 차지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차례나 위치.
- **변천**: 세월의 흐름에 따라 바뀌고 변함.

유형거

주제 유형거의 구조적 특징을 통해 본 우수성

구성

1문단	수원 화성의 공사 기간 단축과 비용 절약에 기여한 유형거
2문단	유형거의 공학적 우수성 ① - 짐을 쉽게 운반하고 실을 수 있도록 설계됨.
3문단	유형거의 공학적 우수성 ② - 보조 동력을 더할 수 있음.
4문단	유형거의 공학적 우수성 ③ - 손잡이 조작으로 충격을 완화할 수 있음.
5문단	유형거의 가치에 대한 평가

1 ①

→ 배기

② 이래서 정답

- ① 이 글에서는 구조적 특징을 중심으로 유형거가 지닌 우수성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표제로는 '유형거의 우수성'이, 부제로는 '구조적 특징 분석을 중심으로'가 적절하다.

③ 왜 오답

- ② 복토의 운용상 장점은 이 글 전체의 중심 내용이 아니며, 유형거의 미학적 특성이 언급되어 있지도 않다.
- ③ 이 글을 통해 유형거가 효과적인 운반 수단의 기능을 하였음을 알 수 있기는 하지만, 유형거를 실제 운용한 사람의 경험이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
- ④ 기존 수레에 비해 우수한 유형거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으나, 수레 발달의 역사에 대해 다루고 있지는 않다.
- ⑤ 유형거의 장점이나 작동 원리를 설명하고 있으나, 유형거의 단점이나 변화 과정은 설명하고 있지 않다.

문해공식 적용 중심 화제

- 1문단에서는 수원 화성 공사에 기여한 유형거를 소개함.
- 2~4문단에서는 유형거의 우수성에 대해 설명함.
- 5문단에서는 유형거의 가치에 대해 평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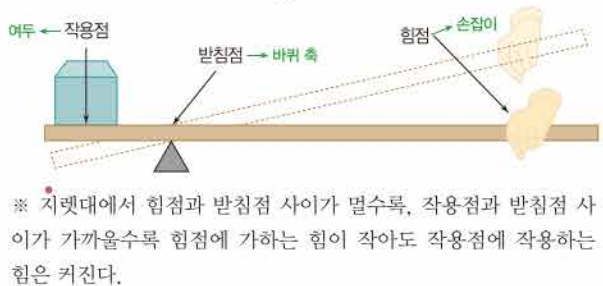
중심 화제

유형거

2 ①

X 급하기

| 보기 | 오래 보기



② 이래서 정답

- ① 3문단에 따르면 '한표'는 수레 손잡이를 내렸을 때 돌이

수레의 진행 방향 반대쪽으로 미끄러지는 것을 멈추게 하는 장치이지 힘점에 가해지는 힘을 늘려 주는 장치가 아니다.

❶ 왜 오답

- ② <보기>에서 힘점과 받침점 사이가 멀수록 힘점에 가하는 힘이 작아도 작용점에 작용하는 힘은 커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손잡이를 길게 만들면 힘점(손잡이)과 받침점(바퀴 축) 사이가 멀어져 작용점(여두)에 더 큰 힘이 작용하게 된다.
- ③ <보기>에서 작용점과 받침점 사이가 가까울수록 힘점에 가하는 힘이 작아도 작용점에 작용하는 힘은 커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여두(작용점)와 바퀴 축(받침점)의 거리를 가깝게 만들면 여두(작용점)에 작용하는 힘이 커지므로, 작은 힘으로도 무거운 돌을 실을 수 있을 것이다.
- ④ 2문단에서 유형거는 여두를 소 혀와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 돌을 쉽게 올려놓을 수 있도록 하였다고 언급한 것으로 보아 특수한 형태의 여두로 인해 작용점(여두)에 작용하는 힘이 더 효과적으로 전달될 것임을 알 수 있다.
- ⑤ 이 글에 제시된 유형거의 구조를 <보기>에 제시된 지렛대에 적용하여 보면 여두는 작용점으로, 바퀴 축은 받침점으로, 손잡이는 힘점으로 기능함을 알 수 있다.

3 답 ③

✕ 곱하기



❶ 이래서 정답

- ③ [A]에서 복토로 인해 짐을 싣는 부분이 높아져 수레가 흔들리는 만큼 무게 중심도 계속 변화한다고 하였다. (가)에서 손잡이를 들어 올리고 (나)에서 손잡이를 내리면 수레가 흔들리면서 수레의 무게 중심은 계속 변할 것이다.

❶ 왜 오답

- ① [A]에서 유형거가 움직일 때 수레 손잡이를 들어 올리면 돌은 수레의 진행 방향으로 여두 부근까지 미끄러지는데, 이때 생긴 에너지는 수레에 추진력을 더한다고 하였다. (가)는 이동 중 수레 손잡이를 들어 올린 상태이므로, 돌은 수레 진행 방향으로 미끄러지며 추진력을 만들어 낼 것이다.
- ② [A]에서 유형거가 움직일 때 수레 손잡이를 내리면 돌이 수레의 진행 방향 반대쪽으로 미끄러지는데, 이때 발생하

는 에너지는 수레가 나아가는 것을 방해한다고 하였다. (나)는 이동 중 수레 손잡이를 내린 상태이므로 돌은 수레 진행 역방향으로 미끄러지면서 역방향으로 힘을 더할 것이다.

- ④ [A]에서 유형거가 움직일 때 수레 손잡이를 들어 올리면 돌은 정지 마찰력을 극복하고 수레의 진행 방향으로 여두 부근까지 미끄러진다고 하였다. 이를 고려할 때 (가), (나) 과정에서 돌이 미끄러지는 까닭은 정지 마찰력을 극복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 ⑤ [A]에서 이동 중 유형거의 손잡이를 들어 올렸을 때는 추진력이 발생하고, 손잡이를 내렸을 때 발생하는 에너지는 수레가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지만, 추진력에 비해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힘이 작아 보조 동력을 얻는 셈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가), (나)처럼 손잡이를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과정을 반복한다면 수레는 운행 중 보조 동력을 꾸준히 얻을 수 있을 것이다.

4 답 ①

✕ 곱하기

❶ 이래서 정답

- ① 4문단에서 언덕을 오를 때는 손잡이를 올린다고 하였으므로 ㉠에는 '올린 후'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왼쪽으로 돌 때에는 왼쪽 손잡이를 누른다고 하였으므로 오른쪽으로 돌 때는 왼쪽으로 돌 때와 반대로 오른쪽 손잡이를 눌러야 한다. 따라서 ㉠에는 '오른쪽'이, ㉡에는 '눌러야'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❶ 왜 오답

- ② ㉠에는 '올린 후'가, ㉡에는 '오른쪽'이 들어가는 것은 적절하다. 하지만 오른쪽으로 돌 때 오른쪽 손잡이를 올리면 수레의 오른쪽이 더 올라가 수레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힘들 것이므로, ㉡에 '올려야'가 들어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③ ㉠에 '올린 후'가 들어가는 것은 적절하다. 하지만 유형거가 갈림길에서 오른쪽으로 돌았다고 하였으므로, ㉡에 '왼쪽'이 들어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④, ⑤ 4문단을 통해 언덕을 내려갈 때나 갑자기 정지할 때 손잡이를 내려야 함을 알 수 있으므로, ㉠에 '내린 후'가 들어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어휘

- **미학적**: 미학(자연이나 인생 및 예술 따위에 담긴 미의 본질과 구조를 해명하는 학문)을 바탕으로 하는.
- **지렛대**: 무거운 물건을 움직이는 데에 쓰는 막대기.

공포 반응과 공포 학습

주제 편도체의 기능에 따른 공포 반응과 공포 학습

구성

1문단	공포 상황에 신속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해 주는 편도체
2문단	일반적인 공포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신체적 반응
3문단	매우 강한 강도의 공포 상황에서 일어나는 신체적 반응
4문단	공포 조건화 실험을 통해 알 수 있는 공포 학습
5문단	편도체의 손상에 따른 공포 반응의 상실

1 답 ②

배기

이래서 정답

- ② 이 글에서는 편도체의 기능을 중심으로 공포 상황에서의 신체적 반응을 설명하고, 카프의 공포 조건화 실험을 바탕으로 공포 학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표제로는 '공포 반응과 공포 학습'이, 부제로는 '편도체의 기능에 따른 신체적 반응을 중심으로'가 적절하다.

왜 오답

- ① 이 글에 공포 극복 방안과 사례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또한 5문단에 따르면 '우르바흐-비테 증후군'은 공포라는 감정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질병이므로, 공포 극복과는 거리가 멀다.
- ③ 4~5문단에서 조건 자극과 무조건 자극이 연합하는 공포 조건화 연구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만, 이것이 글 전체를 아우르는 중심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 ④ '생존 본능에 따른 생리적 변화'에는 이 글의 중심 화제인 '공포 반응'이나 '공포 학습'이 드러나 있지 않으므로 표제로 적절하지 않다. 또한 2문단에서 생존 본능에 따라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분비되었을 때 일어나는 신체적 반응에 대해 설명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공포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신체적 반응을 설명한 것일 뿐, 호르몬이 교감 신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라고 보기 어렵다.
- ⑤ 2~3문단에서 자극 강도에 따른 공포 상황과 교감 신경과 부교감 신경의 활성화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글 전체를 아우르는 중심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문제 공식 적용 중심 화제

- 1문단에서는 공포 상황에 신속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해 주는 편도체에 대해 설명함.
- 2~3문단에서는 일반적인 공포 상황과 매우 강한 강도의 공포 상황에서 일어나는 신체적 반응을 설명함.
- 4~5문단에서는 공포 조건화 실험을 통해 알 수 있는 공포 학습과 편도체의 손상에 따른 공포 반응의 상실에 대해 설명함.



중심 화제

공포 반응, 공포 학습

2 답 ②

배기

이래서 정답

- ② 2문단에서 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 부신에서 아드레날린 호르몬을 분비하고, 아드레날린이 혈류로 유입되면 혈관이 확장되고 심장 박동 수가 높아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부신에서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 심장 박동 수가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 오답

- ① 2문단의 '심장이 한 번 박동할 때 내보내는 혈액량인 박출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③ 3문단에 따르면 '정상적인 성인의 1분간 맥박 수는 보통 60~80회 정도'라고 하였다.
- ④ 1문단의 '생존 본능으로 즉각적인 신체 반응을 유도하는 편도체는 ~ 비명부터 먼저 지르게 된다.'로 보아 일반적으로 공포 상황에서는 비명과 같은 본능적인 신체 반응이 즉각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⑤ 사람이 일반적으로 공포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일어나는 신체적 반응을 설명하고 있는 2문단의 '호흡 속도가 빨라져 평소보다 많은 산소가 체내로 유입된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 답 ④

배기

이래서 정답

- ④ 3문단에 따르면 실신할 정도로 매우 강한 강도의 공포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교감 신경이 지나치게 활성화되어 심장이 과도한 자극을 받게 되고, 이를 안정시키기 위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 심장 박동 수와 혈압이 낮아지고 맥박 수가 떨어지게 되는데, 맥박 수가 정상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부족해지거나 순간적으로 혈류가 중단되기도 한다고 하였다.

왜 오답

- ① 1문단에서 '편도체'는 생존 본능으로 즉각적인 신체 반응을 유도하고, '시각 피질'은 이성적인 사고 과정의 한 축을 담당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공포 자극이 편도체로 전달되면 이성적인 판단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신체 반응이 나타날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② 2문단에서 일반적인 공포 상황에서 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 근육에 평소보다 많은 양의 산소와 열량이 공급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③ 3문단에서 실신할 정도로 매우 강한 강도의 공포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교감 신경이 지나치게 활성화되어 심장 박동 수와 박출량을 무리하게 늘려 심장이 과도한 자극을 받게 된다고 하였다. 심장이 과도한 자극을 받게 되는 것

은 교감 신경의 지나친 활성화 때문이며,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 심장 박동 수와 혈압이 낮아지고 맥박 수가 떨어질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⑤ 3문단의 '정상적인 성인의 1분간 맥박 수는 ~ 혈류가 중단되기도 한다.'에 실신하는 이유가 나타나 있다. 매우 강한 강도의 공포 상황에 직면했을 때 실신하는 이유는 뇌로 가는 혈류량의 부족이나 혈류 중단 때문이다. 5문단에 따르면 측두엽 부위에 칼슘이 침착되는 것은 '우르바흐-비테 증후군'에 의한 것으로, 이로 인해 공포라는 감정을 잘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고 하였다.

4 답 ⑤

× 곱하기

◎ 아래서 정답

- ⑤ 카프(㉠)의 공포 조건화 실험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4문단에서 조건화된 토끼는 전기 자극을 단독으로 제시했을 때처럼, 그 특정 소리만 들어도 공포 반응을 보였는데, 이는 편도체가 반응했다는 사실을 통해 확인했다고 하였다. 따라서 조건화가 되면, 토끼의 발에 '전기 자극'을 가하지 않아도 '특정 소리'를 들려주면 편도체가 반응한다고 할 수 있다.

◎ 왜 오답

- ① ㉠의 실험에서 불쾌하거나 고통스러운 반응을 유발하는 무조건 자극은 '특정 소리'가 아니라 '전기 자극'이다.
 ② '특정 소리'는 특별한 반응을 유발하지 않는 중성적인 조건 자극이다. 따라서 조건화되기 전에는 '특정 소리'만 제시할 경우, 토끼의 심장 박동 수는 높아지지 않을 것이다.
 ③, ④ '전기 자극'은 무조건 자극이므로, 특정 소리가 없어도 고통이 유발될 것이며(㉢), 편도체가 교감 신경으로 신호를 보낼 것이다(㉣).

⊕ 어휘

- 증후군: 몇 가지 증상이 늘 함께 나타나지만, 그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단일하지 아니한 병적인 증상들을 통틀어 이르는 말.
- 실신: 병이나 충격 따위로 정신을 잃음.
- 침착: 밀으로 가라앉아 들러붙음.

06 중심 내용

확인 1 답 (1) × (2) ○ (3) ○

◎ 아래서 정답

- (1) 중심 문장은 문단의 처음 부분이나 끝부분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으나, 항상 문단의 처음 부분에 위치하는 것은 아니다.
 (2), (3) 중심 내용은 글쓴이가 전하려는 주된 생각이나 사상이므로, 중심 문장을 찾거나 문장들이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내용을 종합하면 중심 내용을 알 수 있다.

확인 2 답 (1) 중 (2) 중 (3) 뒷 (4) 뒷

◎ 아래서 정답

- (1), (2) 중심 내용이 드러나 있는 가장 중요한 문장인 '중심 문장'은 일반적, 추상적, 포괄적인 성격을 띠는 서술인 경우가 많다.
 (3), (4) 중심 내용이나 중심 문장을 설명하거나 중심 문장의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는 문장인 '뒷받침 문장'은 특수적, 구체적, 부분적인 성격을 띠는 서술인 경우가 많고 예시, 인용, 부연, 이유 제시 등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확인 3 답 ①

◎ 아래서 정답

- ① <보기>에서는 유전자 치료에 쓰이는 벡터의 역할과 종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확인 4 답 (1) ○ (2) ○

◎ 아래서 정답

- (1) 와이너가 제시한 상황 해석의 기준을 밝히고 있는 ㉠이 중심 문장인데, ㉡과 ㉢은 이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뒷받침 문장에 해당한다.
 (2) <보기>에서는 부정적인 경험을 한 상황을 해석하는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 와이너가 제시한 두 가지 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확인 5 답 ①

◎ 아래서 정답

- ① <보기>에서는 신기루의 개념과 과학적 원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미래주의 회화 운동

주제 미래주의 회화의 특징과 의의
구성

1문단	미래주의의 개념과 등장 배경
2문단	미래주의 회화의 주요 소재와 기법
3문단	분할주의 기법의 세 가지 표현 방법과 그 효과
4문단	미래주의 회화의 의의와 그에 대한 평가

1 답 ④

이래서 정답

- ④ 이 글에서는 미래주의의 개념과 등장 배경, 미래주의 회화의 주요 소재와 기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을 뿐, 미래주의 회화가 발전해 온 과정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왜 오답

- ① 1문단을 통해 '화가 발라, 조각가 보초니, 건축가 산텔리아, 음악가 루솔로 등'이 미래주의에 참여한 예술가들임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1문단의 '당시 산업화에 뒤쳐진 이탈리아는 산업화에 대한 열망과 민족적 자존감을 고양시킬 수 있는 새로운 예술을 필요로 하였다.'에 미래주의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 언급되어 있다.
- ③ 2~3문단에서 미래주의 화가들이 사용한 분할주의 기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⑤ 4문단에서 미래주의 화가들이 '움직이는 대상의 속도와 운동이라는 미적 가치에 주목하여 새로운 미의식을 제시했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문제 공식 적용 중심 내용

1문단	미래주의의 개념과 등장 배경	2문단	미래주의 회화의 주요 소재와 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념: 속도와 운동에 주목하고 이를 예술적으로 표현하려는 전위 예술 운동임.• 등장 배경: 산업화에 대한 열망과 민족적 자존감을 고양시킬 수 있는 새로운 예술을 필요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 소재: 활기찬 움직임을 보여주는 모습• 기법: 시간의 흐름에 따른 대상의 움직임을 하나의 화면에 표현하는 분할주의 기법	
		3문단	분할주의 기법의 세 가지 표현 방법과 그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현 방법: 이미지의 겹침, 역선, 상호 침투• 효과: 대상의 연속적인 움직임, 움직이는 대상의 속도와 운동을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음.	
4문단		미래주의 회화의 의의와 그에 대한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의: 움직이는 대상의 속도와 운동이라는 미적 가치에 주목하여 새로운 미의식을 제시함.• 평가: 키네틱 아트가 등장하는 데 영감을 제공함.			

2 답 ②

× 금하기

이래서 정답

- ② 4문단을 통해 미래주의 회화는 키네틱 아트가 등장하는데 영향을 끼쳤는데, 대상의 움직임을 하나의 화면에 표현한 미래주의 회화와는 달리 키네틱 아트는 입체적 조형물의 운동을 구현하는 예술 양식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영감(㉠)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기존의 방식과 달리 미적 가치를 3차원에서 실제로 움직이는 대상을 통해 구현하려는 생각'이라고 할 수 있다.

왜 오답

- ① 전통 회화 양식에서 벗어나 움직이는 대상의 속도와 운동이라는 미적 가치에 주목하여 새로운 미의식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 것은 미래주의 회화이다. 키네틱 아트가 움직이는 대상이 주는 아름다움을 최초로 작품화한 것은 아니다.
- ③ 이 글에서 키네틱 아트가 사진의 촬영 기법을 회화에 접목시켰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 ④ 산업 사회의 역동적인 모습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산업 사회의 역동적인 모습을 표현한 미래주의 회화와는 반대되는 것이므로 ㉠의 내용이 될 수 없다. 또한 키네틱 아트는 입체적 조형물의 운동을 보여 주는 예술이므로 '인류가 추구해야 할 미래상을 화폭에 담아내려는 생각'이라는 추론도 적절하지 않다.
- ⑤ 키네틱 아트가 예술적 대상의 범위를 구체적인 대상에서 추상적인 대상으로 확대하여 작품을 창작했다고 추론할 만한 단서는 이 글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3 답 ②

× 금하기

보기 | 오려 보기

발라의 「강아지의 다이어니즘」은 여인이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는 모습을 그린 미래주의 회화의 대표적인 작품이다.



이래서 정답

- ② 3문단에서 역선은 대상의 움직임을 꺾적을 여러 개의 선으로 구현하는 방법으로, 역선을 사용하여 대상의 모습을 나타내면 대상이 다른 대상이나 배경과 구분이 모호해지

는 상호 침투가 발생해 대상이 사실적인 형태보다는 왜곡된 형태로 표현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역선을 통해 사실적인 형태를 강조했다는 감상은 적절하지 않다.

❖ 왜 오답

- ① 2문단에 따르면 미래주의 회화는 대상의 움직임의 추이를 화폭에 담아냄으로써 대상을 생동감 있게 형상화하려 하였다. 그리고 4문단에 따르면 미래주의 회화는 움직임은 대상의 속도와 운동이라는 미적 가치에 주목하였다. 이로 보아 움직이는 강아지의 모습을 속도감 있게 그린 것에서 미래주의 회화의 경향을 엿볼 수 있다.
- ③ 3문단에서 역선을 사용하여 대상의 모습을 나타내면 대상이 다른 대상이나 배경과 구분이 모호해지는 상호 침투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대상인 강아지의 발과 배경인 바닥의 경계가 모호하게 보이는 것은 상호 침투 효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④ 3문단에서 이미지의 겹침은 화면에 하나의 대상을 여러 개의 이미지로 중첩시켜서 표현하는 방법으로, 움직이는 대상의 잔상을 바탕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대상의 움직임을 겹쳐서 나타낸다고 하였다. 따라서 강아지의 발을 중첩시켜 표현한 것은 이미지 겹침을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대상의 움직임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2문단에 따르면 '질주하고 있는 말의 다리는 4개가 아니라 20개다.'라는 미래주의 선언의 내용은, 분할주의 기법을 통해 대상의 역동성을 지향하고자 했던 미래주의 화가들의 생각을 드러낸다. 사람의 다리를 두 개가 아닌 여러 개로 그린 것은 분할주의 기법을 활용한 것으로, 이를 통해 걷고 있는 여인의 역동적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답 ⑤

❖ 이래서 정답

- ⑤ '자신의 의견이나 주의를 굳게 내세움.'은 '주장'의 사전적 의미이다. 그러나 ㉞의 '주목'의 사전적 의미는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핌, 또는 그 시선'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왜 오답

- ①, ②, ③, ④ ㉞의 '고양', ㉞의 '추이', ㉞의 '지향', ㉞의 '왜곡'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다.

➦ 어휘

- **영감**: 창조적인 일의 계기가 되는 기발한 착상이나 자극.
- **접목**: 둘 이상의 다른 현상 따위를 알맞게 조화하게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가격 지각 과정

주제 제품의 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판단과 구매 결정 과정의 특징
구성

1문단	가격 지각 과정의 개념
2문단	가보와 그레이저의 설문 조사 과정
3문단	가보와 그레이저의 설문 조사 결과 - 최적 가격의 형성 원리
4문단	소비자가 제품 구매 시 고려하는 기준
5문단	내적 준거 가격과 외적 준거 가격의 개념
6문단	소비자의 가격 지각 과정을 고려한 판매자의 가격 전략 수립의 필요성

1 답 ①

❖ 이래서 정답

- ① 5문단에서 외적 준거 가격으로 상점에서 제시하는 정상 가격 등의 가격 정보가 있음을 언급하고 있을 뿐, '정상 가격의 변화 추이'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다.

❖ 왜 오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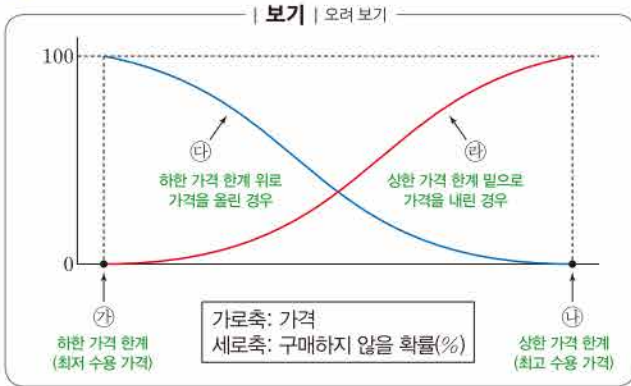
- ② 3문단의 '하한 가격 한계는 가격이 너무 낮아서 소비자가 품질을 의심하여 해당 제품을 구매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는 최저 수용 가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③ 1문단에서 가격 지각 과정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였다.
- ④ 4문단의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현재 구매하려는 물건과 유사한 물건을 구매했던 경험이 있다면 ~ 구매를 결정한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⑤ 6문단에서 소비자에 대한 두 가지 인식을 설명하였다.

문제 공식 적용 중심 내용

1문단	가격 지각 과정의 개념 소비자가 판매자가 제시한 가격을 해석하고 그 가격에 담겨 있는 의미를 평가해서 제품의 구매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	4문단	소비자가 제품 구매 시 고려하는 기준 • 유사 물건 구매 경험이 있는 경우 이 경험을 기준으로 준거 가격을 설정함. • 유사 물건 구매 경험이 없는 경우 외적으로 제시되는 새로운 가격 정보를 이용함.
2문단	가보와 그레이저의 설문 조사 과정 설문 대상자들에게 특정 가격을 제시하여 해당 제품의 구매 의사 여부를 조사함.	5문단	내적 준거 가격과 외적 준거 가격의 개념 • 내적 준거 가격: 소비자가 경험한 정보를 통해 형성된, 소비자의 마음속에 있는 추상적인 가격 • 외적 준거 가격: 특정 제품의 생산자 가격, 상점에서 제시하는 정상 가격, 경쟁사 가격 등의 새로운 가격 정보
3문단	가보와 그레이저의 설문 조사 결과 하한 가격 한계와 상한 가격 한계, 최적 가격의 형성 원리를 발견함.	6문단	소비자의 가격 지각 과정을 고려한 판매자의 가격 전략 수립의 필요성 • 소비자는 가격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라 주관적 경험에 따라 다르게 인식할 수 있는 '능동적인 존재'임. • 판매자는 소비자들의 가격 지각 과정을 고려해 적절한 가격 전략을 수립해야 함.

2 답 ①

(X) 곱하기



이래서 정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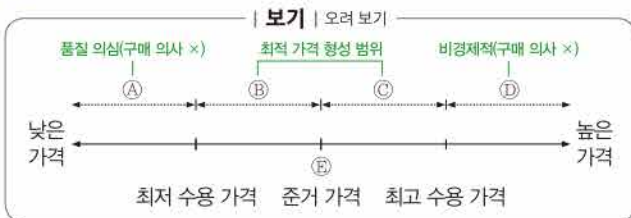
- ① <보기>의 그래프에서 가로축은 가격이므로 가격이 ㉓ < ㉔임을 알 수 있다. 이때 ㉑는 가격이 ㉓에서 ㉔로 올라갈수록 구매하지 않을 확률이 내려가고, 이와 반대로 ㉑는 가격이 ㉓에서 ㉔로 올라갈수록 구매하지 않을 확률이 올라간다. 이를 고려할 때 최저 수용 가격(㉓)은 너무 낮아서 소비자의 구매 의사가 전혀 없는 가격이므로 ㉓에 해당한다. 최고 수용 가격(㉔)은 너무 높아서 소비자의 구매 의사가 전혀 없는 가격이므로 ㉔에 해당한다. 그리고 하한 가격 한계 위로 가격을 올림에 따라 지나치게 낮은 가격 때문에 그 제품의 품질을 의심해서 구매하지 않겠다는 확률이 줄어들었다(㉑)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㉑이다. 마지막으로 상한 가격 한계 밑으로 가격을 내려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가격이 너무 높아서 구매하지 않겠다는 확률이 줄어들었다(㉑)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㉑이다.

왜 오답

- ②, ③, ④, ⑤ ㉑~㉔에 해당하는 것을 바르게 짝 짓지 못하였다.

3 답 ②

(X) 곱하기



이래서 정답

- ② 3문단을 통해 최적 가격은 '최저 수용 가격과 최고 수용 가격의 사이, 즉 소비자가 수용할 수 있는 가격 범위 사이'에서 형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A와 D에서 는 모두 최적 가격이 형성될 수 없다.

왜 오답

- ① 3문단을 통해 최저 수용 가격은 가격이 너무 낮아서 소비

자가 해당 제품의 품질을 의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최저 수용 가격보다 가격이 낮은 A에서 소비자는 제품의 품질을 의심할 것이다.

- ③ 3문단에서 '최저 수용 가격과 최고 수용 가격의 사이'가 '소비자가 수용할 수 있는 가격 범위 사이'라고 하였다. B와 C는 최저 수용 가격과 최고 수용 가격의 사이이므로, 이 구간에서 소비자가 수용할 수 있는 가격이 형성될 것이다.
- ④ 3문단을 통해 최고 수용 가격은 너무 높은 가격 때문에 소비자가 제품의 구매를 경제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해당 제품을 구매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최고 수용 가격보다 가격이 높은 D에서 소비자는 경제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물건을 구매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 ⑤ 4문단에서 '소비자가 현재 구매하려는 물건과 유사한 물건을 구매했던 경험이 있다면 그것을 기준으로 준거 가격을 설정'하고, '유사 제품에 대해 구매 경험이 없다면 소비자는 제품에 대해 외적으로 제시되는 새로운 가격 정보를 이용'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4 답 ④

(+) 더하기

이래서 정답

- ④ ③의 '올리다'는 '값이나 수치, 온도, 성적 따위를 이전보다 많아지게 하거나 높이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④의 '올리다'도 이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왜 오답

- ① '올리다'가 '위쪽으로 높게 하거나 세우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 ② '올리다'가 '윗사람에게 공손하게 말, 인사, 절 따위를 하거나 물건 따위를 건네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 ③ '올리다'가 '기록하게 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 ⑤ '올리다'가 '의식이나 예식을 거행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어휘

- **한계**: 사물이나 능력, 책임 따위가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범위. 또는 그런 범위를 나타내는 선.
- **거행**: 의식이나 행사 따위를 치름.

과학 철학의 설명 이론

주제 험펠과 샐먼의 설명 이론이 갖는 의의와 한계
구성

1문단	여러 가지 설명 이론을 제시한 과학 철학
2문단	험펠의 설명 이론의 내용과 의의
3문단	험펠의 설명 이론의 한계
4문단	샐먼의 설명 이론의 내용과 한계

1 답 ⑤

→ 보기

○ 이래서 정답

- ⑤ 4문단에서 현대 철학자들은 현대 과학의 성과를 반영하는 철학적 탐구를 통해 새로운 설명 이론을 제시하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였을 뿐, 샐먼의 설명 이론이 현대 과학의 성과를 받아들인 결과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 왜 오답

- ① 2문단의 '험펠의 설명 이론은 피설명항이 ~ 설명의 요건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② 3문단의 '험펠의 설명 이론은 설명에 대한 ~ 상식적 판단과 충돌하기도 하는 문제가 있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③ 2문단에 험펠에 따르면 설명은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논증이어야 하며, 논증은 전제로부터 결론이 논리적으로 도출되는 형식을 띤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④ 4문단에서 샐먼의 인과적 설명 이론은 험펠의 이론보다 우리의 일상적 직관에 더 부합한다는 장점이 있다고 하였다.

문해 공식 적용 중심 내용

1문단	여러 가지 설명 이론을 제시한 과학 철학		
'왜?'에 대한 답으로 제시되는 '설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고자 과학 철학에서는 여러 가지 설명 이론을 제시함.			
2문단		4문단	
험펠의 설명 이론의 내용과 의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설명은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논증이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설명항에는 보편 법칙 또는 보편 법칙의 역할을 하는 명제가 하나 이상 있어야 함. ② 설명항에는 보편 법칙이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맥락을 나타내는 선행 조건이 하나 이상 있어야 함. ③ 피설명항은 설명항으로부터 '건전한 논증'을 통해 도출되어야 함. • 의의: 피설명항이 보편 법칙의 개별 사례로서 마땅히 일어날 만한 일이었음을 보여 주기 위한 설명의 요건을 제시함. 		샐먼의 설명 이론의 내용과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설명은 논증이 아니라 피설명항을 결과로 보고 이를 일으키는 원인을 밝히는 것임(인과적) • 장점: 험펠의 이론보다 일상적 직관에 더 부합함. • 한계: 원인과 결과 사이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다는 철학적 문제를 가진. 	
3문단	험펠의 설명 이론의 한계		
설명에 대한 우리의 일상적 직관과 충돌하기도 함.			

2 답 ①

→ 보기

○ 이래서 정답

- ① 2문단에서 제시한 험펠의 설명 이론에 따르면 설명은 세 가지 조건, 즉 설명항에 보편 법칙 또는 보편 법칙의 역할을 하는 명제가 하나 이상 있을 것, 설명항에 보편 법칙이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맥락을 나타내는 선행 조건이 하나 이상 있을 것, 피설명항은 설명항으로부터 '건전한 논증'을 통해 도출될 것이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 중 세 번째 조건인 '건전한 논증'만 충족시켰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설명이라고 할 수는 없다.

⊙ 왜 오답

- ② 3문단에서 일상적 직관에 따르면 설명으로 인정되지만, 험펠에 따르면 설명이 아니라고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일상적 직관에서 설명으로 인정된다고 해서 험펠의 설명 이론에서도 모두 설명인 것은 아니다.
③ 2문단에서 설명항은 전제에 해당하며, 피설명항은 결론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또, 험펠이 제시한 설명의 세 가지 조건 중 하나가 피설명항은 설명항으로부터 '건전한 논증'을 통해 도출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때 건전한 논증은 '논증의 전제가 모두 참'이라는 조건과 '논증의 전제가 모두 참이라면 결론도 반드시 참'이라는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논증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어떤 것이 설명이라면 설명항(전제)에 포함되는 명제들은 반드시 참이어야 한다.
④ 2문단에서 험펠의 설명 이론은 피설명항이 보편 법칙의 개별 사례로서 마땅히 일어날 만한 일이었음을 보여 주기 위한 설명의 요건을 제시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⑤ 2문단에서 험펠에 따르면 설명은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논증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논증은 전제로부터 결론이 논리적으로 도출되는 형식을 띠는데, 설명을 하는 부분인 설명항은 전제에 해당하며 설명되어야 하는 부분인 피설명항은 결론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어떤 것이 설명이라면 피설명항(결론)은 설명항(전제)에서 논리적으로 도출되는 형식을 띤다.

3 답 ④

× 금하기

○ 이래서 정답

- ④ ㉠을 해결해야 하는 이유는 '결과를 일으키는 원인은 무수히 많고 연쇄적으로 서로 얹혀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은 여러 가지 원인 중 결과를 야기한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문제라고 추론할 수 있다.

⊙ 왜 오답

- ① 4문단의 '설명이라는 불명료한 개념을 인과라는 또 하나

의 불명료한 개념으로 대체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설명 개념과 인과 개념 모두 불명료하다고 하였으나 어느 것이 더 불명료한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 ② 4문단에서 설명을 인과로 이해할 때 '원인과 결과가 시공간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가에 대한 철학적 분석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③ 4문단에서 '피설명항을 결과로 보고 이를 일으키는 원인을 밝히는 것이 설명'이라고 하였으므로 원인과 결과라는 개념으로 설명의 형식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⑤ 4문단에서는 피설명항을 결과로 본다고 했을 뿐, 피설명항에 원인을 제시하는 명제가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4 답 ④

(X) 급하기

| 보기 | 오려 보기

[물음] 평면거울 A에 대한 광선 B의 반사각은 왜 30°일까?

[설명]

설명항 — 보편 법칙: (가)
 전제 — 선행 조건: (나)
 피설명항 : (다)
 결론

[명제]

- ㄱ. A는 광선을 잘 반사하는 평면거울이다.
 ㄴ. 평면거울 A에 대한 광선 B의 입사각은 30°이다. — 선행 조건
 ㄷ. 평면거울 A에 대한 광선 B의 반사각은 30°이다. → 결론
 ㄹ. 광선을 반사하는 평면에 대한 광선의 반사각은 입사각과 같다. → 보편 법칙

① 이어서 정답

- ④ 험펠의 이론에서 설명을 하는 부분인 설명항은 전제에, 설명되어야 하는 부분인 피설명항은 결론에 해당한다. [물음]으로 보아 결론은 ㄷ이므로, (다)에는 결론인 ㄷ이 들어간다. 또한 험펠의 이론에 따르면 설명항에는 보편 법칙 또는 보편 법칙의 역할을 하는 명제와, 보편 법칙이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맥락을 나타내는 선행 조건이 하나 이상 있어야 한다. 따라서 (가)에는 광선을 반사하는 평면에 두루 적용되는 법칙인 ㄹ이, (나)에는 보편 법칙 ㄹ이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맥락인 ㄱ과 ㄴ이 들어간다.

② 왜 오답

- ①, ②, ③, ⑤ (가)~(다)에 들어갈 명제를 바르게 고르지 못하였다.

③ 어휘

- 야기: 일이나 사건 따위를 끌어 일으킴.

사전

06-0

본문 68~69

빛의 색깔

주제 물체의 색이 우리에게 인식되는 원리와 빛의 굴절, 분산 현상
 구성

1문단	인간의 눈에 보이는 빛의 색깔이 결정되는 원리
2문단	유리가 투명하게 보이는 이유
3문단	매질에 따라 속력이 달라지는 빛
4문단	빛의 굴절 현상
5문단	빛의 분산 현상

1 답 ①

→ 배기

① 이어서 정답

- ① 2문단의 '유리를 구성하는 원자가 흡수한 빛 가운데, 적외선과 자외선은 유리에 대부분 흡수되어'를 통해 자외선이 유리에 흡수된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자외선이 왜 유리에 흡수되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② 왜 오답

- ② 1문단을 통해 인간의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 중 빨간색 광선은 진동수가 가장 낮고, 보라색 광선은 진동수가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③ 4~5문단에 빛의 진행 과정에서 굴절, 분산 등의 현상이 나타난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 ④ 2문단의 '유리를 구성하는 원자가 흡수한 빛 가운데 ~' 방향으로 재방출된다.'에 유리가 투명해 보이는 이유가 제시되어 있다.
- ⑤ 3문단의 '유리 원자가 가시광선을 흡수했다가 방출하기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소요되며, 소요된 시간만큼 빛의 속력이 줄어들게 된다.'를 통해 투명체를 통과할 때 빛의 속력이 감소하는 이유를 확인할 수 있다.

문제 공식 적용 중심 내용

1문단	인간의 눈에 보이는 빛의 색깔이 결정되는 원리 빛의 색깔은 방출되는 전자기파의 고유한 진동수에 따라 결정됨.	2문단	유리가 투명하게 보이는 이유 유리를 구성하는 원자가 흡수한 빛 가운데 적외선과 자외선은 흡수되고, 가시광선은 재방출되기 때문에 유리가 투명해 보임.
3문단	매질에 따라 속력이 달라지는 빛 빛의 속력은 매질의 밀도가 높을수록 낮아짐.		
4문단	빛의 굴절 현상 빛이 물질마다 다른 속력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다른 물질의 경계면에 닿았을 때 수직으로 진행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빛의 경로가 꺾이게 됨.		
5문단	빛의 분산 현상 빛이 투명체를 지날 때 굴절되면서 진동수에 따라 다양한 광선으로 분리됨.		

2 답 ①

✕ 금하기

| 보기 | 오려 보기

투명한 연못 속의 금붕어를 물가에 서서 비스듬히 내려다볼 때, 관찰자의 눈에는 금붕어가 본래의 위치보다 수면에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

㉠ 이래서 정답

- ① <보기>의 관찰자는 물가에, 금붕어는 물속에 있다. 3문단에서 빛의 속력은 매질의 밀도가 높을수록 낮아진다고 하였고, 4문단에서 빛은 물질마다 다른 속력으로 진행하고, 이로 인해 다른 물질의 경계면에 닿았을 때 빛의 경로가 꺾이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를 굴절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금붕어에 닿은 빛이 되돌아와 관찰자의 눈에 보이는 과정에서, 밀도가 다른 매질인 물과 공기에서 빛의 속력이 변하여 <보기>와 같은 굴절 현상이 일어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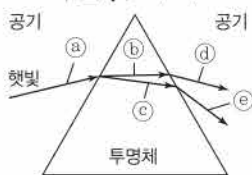
㉡ 왜 오답

- ② 4문단에 따르면 빛이 다른 물질의 경계면에 닿았을 때 수직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굴절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보기>의 굴절 현상과는 거리가 멀다.
- ③ 4문단에서 '빛이 공기 중에서 물로 비스듬히 들어갈 때에도, 빛의 파면의 아랫부분이 물에 먼저 도착하여 속력이 느려지게 된다고 하였으므로, 가시광선이 물속에서 빠른 속력으로 직진할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보기>의 굴절 현상과도 관련짓기 어렵다.
- ④ 2문단의 '유리를 구성하는 원자가 ~ 사방으로 재방출된다.'를 통해 볼 때 물이 가시광선을 흡수했다 방출하는 것은 물이 투명해 보이는 것과 관련 있을 뿐, <보기>의 굴절 현상과 관련이 깊다고 보기 어렵다.
- ⑤ 5문단에 따르면 빛이 투명체를 지날 때 굴절되면서 진동수에 따라 다양한 광선으로 분리되는 것은 빛의 분산 현상으로, <보기>의 굴절 현상의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

3 답 ②

✕ 금하기

| 보기 | 오려 보기



(단, ④와 ⑤는 투명체를 통과한 빛이다.)

㉠ 이래서 정답

- ② 3문단에서 공기 중에서의 빛의 속력의 값을 c 로 놓을 때, 투명체를 통과하는 빛의 속력은 c 의 70% 정도로 느려지

지만, 다시 공기 중으로 나오면서 원래의 속력을 회복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투명체를 통과하는 ②, ③이 공기 중을 통과하는 ①, ④, ⑤보다 속력이 느리다. 그리고 5문단에서 진동수가 높은 보라색 광선은 진동수가 낮은 빨간색 광선보다 투명체 안에서의 속력이 더 느려져서 더 많이 굴절된다고 하였다. 이를 고려하면 ②와 ③ 중에 더 많이 굴절된 ③의 속력이 더 느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①~⑤ 중에서 가장 속력이 느린 것은 ③이다.

㉡ 왜 오답

- ① 3문단에서 투명체를 통과하는 빛의 속력은 느려지지만, 다시 공기 중으로 나오면서 원래의 속력을 회복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투명체를 통과하기 전인 ①과 투명체를 통과한 뒤인 ④의 속력은 같다.
- ③ 2문단에서 유리를 구성하는 원자가 흡수한 빛 가운데, 적외선과 자외선은 유리에 대부분 흡수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③은 투명체를 통과하기 전의 빛이므로 자외선이 들어 있고, ⑤는 투명체를 통과한 빛이므로 자외선이 거의 없을 것이다.
- ④ 5문단에서 진동수가 높은 보라색 광선은 진동수가 낮은 빨간색 광선보다 투명체 안에서의 속력이 더 느려져서 더 많이 굴절된다고 하였다. 이를 고려하면 더 많이 굴절된 ③이 ②에 비해 진동수가 높음을 알 수 있다.
- ⑤ 5문단에 투명체를 통과하는 빛은 서로 다른 색깔의 광선으로 나뉘어 각기 다른 진행 경로로 방출된다는 정보만 제시되어 있을 뿐, 투명체를 통과한 ⑤가 투명체를 통과하는 ②와 진동수가 같다고 볼 근거는 없다.

4 답 ③

✕ 더하기

㉠ 이래서 정답

- ③ ㉠의 '방출(放出)'은 '입자나 전자기파의 형태로 에너지를 내보냄.'을 뜻하는데, ③의 '방출'도 이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 왜 오답

- ①, ④, ⑤ '방출(放出)'이 '비축하여 놓은 것을 내놓음.'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 ② '방출(放黜)'이 '물리쳐 내쫓음.'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 어휘

- 입자: 물질을 구성하는 미세한 크기의 물체. 소립자, 원자, 분자, 콜로이드 따위를 이른다.
- 비축: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갖추어 모아 두거나 저축함.

07 세부 정보

확인 1 답 (1) × (2) ○

이래서 정답

- (1) 쇼윈도를 통해 소비 사회의 공간 텍스트로 입문하는 것을 '책 읽기'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을 뿐, 책을 읽는 능력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 (2) "쇼윈도는 '소비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공간 텍스트"라고 하였다.

확인 2 답 (1) ○ (2) ×

이래서 정답

- (1) '디젤 엔진은 원리상 가솔린 엔진보다 더 튼튼하고 고장도 덜 난다.'로 보아 디젤 엔진은 가솔린 엔진보다 내구성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 (2) '디젤 엔진은 연료의 품질에 민감하지 않고 연료의 소비 면에서도 경제성이 뛰어나'다고 하였다.

확인 3 답 ②

이래서 정답

- ② '이글루가 단위 면적당 태양 에너지를 지면보다 많이 받'는다고 하였으므로, 극지방의 지면과 이글루는 같은 면적에서 받는 태양 에너지의 양이 다르다.

확인 4 답 ②

이래서 정답

- ② '입체 지각은 대상까지의 거리를 인식하여 세계를 3차원으로 파악하는 과정을 말'하는데, '눈으로 들어오는 시각 정보로부터 다양한 단서를 얻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확인 5 답 ③

이래서 정답

- ③ '심해저에서 연니를 형성하지 않는 점토류는 1,000년에 걸쳐 2 mm 정도가 퇴적되는 데 비해, 연니는 1,000년 동안 약 1~6 cm가 퇴적된다.'로 보아, 연니가 심해저 점토류보다 빠른 속도로 퇴적된다.

실전 07-A

본문 72~73

양전자 단층 촬영(PET)

주제 양전자 단층 촬영(PET)을 통해 정상 세포와 비정상 세포의 분포를 확인하는 원리

구성

1문단	양전자 단층 촬영(PET)의 개념과 활용
2문단	몸속에 주입된 방사성 추적자가 비정상 세포에 흡수되는 과정
3문단	방사성 추적자에서 감마선이 방출되는 과정
4문단	감마선이 PET 스캐너를 통해 검출되는 원리
5문단	감마선이 PET 영상의 유효한 성분이 되는 조건
6문단	PET 영상의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

1 답 ③

배기

이래서 정답

- ③ 3문단에서 세포 내에 축적된 방사성 추적자의 방사성 동위 원소가 붕괴되면서 방출되는 양전자가 몸속의 전자와 결합하여 소멸할 때 두 입자의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는데, 이 에너지가 감마선으로 방출되어 몸 밖으로 나온다고 하였다. 그리고 4문단에서 '몸 밖으로 나온 감마선은 PET 스캐너를 통해 검출'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PET 스캐너는 이미 몸 밖으로 방출된 감마선을 검출하여 PET 영상을 만드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왜 오답

- ① 1문단에서 'PET는 특정 물질과 비정상 세포의 반응을 이용'한다고 하였다.
- ② 4문단에서 '한 쌍의 감마선이 도달한 검출기의 두 지점을 잇는 직선'을 '동시 검출 응답선'이라고 하였다.
- ④ 1문단의 '양전자 단층 촬영(PET)은 세포의 대사량 등 인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몸속에 특정 물질을 주입하여 그 물질의 분포를 영상화하는 기술이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⑤ 4문단에서 'PET 스캐너는 수많은 검출기가 검사 대상을 원형으로 둘러싸고 있는 구조'라고 하였다.

문제 공식 적용 세부 정보

지문	선지 ③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포 내에 축적된 방사성 추적자의 ~ 감마선으로 방출되어 몸 밖으로 나온다.' • '몸 밖으로 나온 감마선은 PET 스캐너를 통해 검출되는데' 	PET 스캐너는 감마선을 방출하여 PET 영상을 만든다.

≠
세부 정보
불일치

2 답 ②

배기

이래서 정답

- ② 2문단에서 방사성 추적자는 '대사량이 높아서 많은 에너

지원을 필요로 하는 비정상 세포에 다량 흡수'되는데 '세포 안으로 흡수된 방사성 추적자는 일반 포도당과 달리 세포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방사성 추적자가 세포의 대사량을 평소보다 높이기 위해 사용된다고 할 수 없다.

❶ 왜 오답

- ① 2문단의 '이렇게 주입된 방사성 추적자는 ~ 비정상 세포에 다량 흡수된다.'와 3문단의 '세포 내에 축적된 방사성 추적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② 2문단에서 '방사성 추적자는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포도당과 유사하'며 '일반 포도당과 달리 세포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 ④ 2문단의 '방사성 추적자는 ~ 특정한 원소 또는 물질의 이동 양상을 알아내기 위해 쓰인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⑤ 2문단의 '방사성 추적자는 방사성 동위 원소를 결합한 포도당 성분의 특정 물질'과 3문단의 '세포 내에 축적된 방사성 추적자의 방사성 동위 원소는 붕괴되면서 양전자를 방출한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해 공식 적용 세부 정보

지문	선지 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사성 추적자는 ~ 대사량이 높아서 많은 에너지원을 필요로 하는 비정상 세포에 다량 흡수된다.' • '세포 안으로 흡수된 방사성 추적자는 일반 포도당과 달리 세포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 않고' 	<p>세포의 대사량을 평소보다 높이기 위해 사용된다.</p>

≠
세부 정보
불일치

3 답 ⑤

✖ 끝하기

❶ 이래서 정답

- ⑤ 4문단에서 '한 쌍의 감마선이 각각의 검출기에 도달하는 시간에는 미세한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는 몸의 어느 지점에서 감마선이 방출되었는지에 따라 검출기까지의 거리가 달라지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감마선 방출 지점에 따라 두 감마선이 검출기까지 이동하는 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한 쌍의 감마선이 완전히 동시에 도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추론할 수 있다.

❷ 왜 오답

- ① 4문단을 통해 '180도로 방출된 한 쌍의 감마선은 각각의 진행 방향에 있는 검출기에 도달'한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①의 이유라고 추론할 근거는 없다.
- ② 3문단을 통해 방출된 양전자가 몸속의 전자와 결합하여 소멸할 때, 두 입자의 질량이 에너지로 바뀐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방사성 추적자에서 감마선이 방출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일 뿐, ①의 이유로 볼 수 없다.

- ③ 5문단을 통해 한 지점에서 방출된 한 쌍의 감마선이 PET 스캐너의 검출기로 동시에 도달하는 경우를 동시 계수라고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③의 이유라고 추론할 근거는 없다.
- ④ 6문단에서 한 지점에서 방출된 한 쌍의 감마선이 아무런 방해받지 않고 동시 계수 시간 폭 내에 도달하는 참계수만이 유효한 영상 성분이 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4 답 ④

✖ 끝하기

보기 오려 보기			
A	B	C	
한 쌍의 감마선이 검출기에 도달함. → 참계수	진행 방향이 바뀜. → 산란 계수	한 개의 감마선만 검출기에 도달함. → 랜덤 계수	
구분	A	B	C
검출기에 도달한 두 감마선의 시간차	5 ns	7 ns	10 ns

- A~C는 모두 동시 계수 시간 폭을 12 ns로 설정한, 동일한 PET 스캐너로 감마선을 검출한 경우이고 ■는 감마선의 방출 지점을 나타낸다.
○ ns는 시간 단위로 10억분의 1초를 나타낸다.

❶ 이래서 정답

- ④ A는 한 지점에서 방출된 한 쌍의 감마선이 아무런 방해받지 않고 5 ns의 시간차로 검출기에 도달하였으므로, 동시 계수 시간 폭인 12 ns 내에 도달한 참계수에 해당한다. B는 한 지점에서 방출된 감마선 중 하나가 진행 방향이 바뀌었고 7 ns의 시간차로 검출기에 도달하였으므로, 진행 방향이 바뀌면서 시간의 변화가 생겼으나 동시 계수 시간 폭인 12 ns 내에 도달한 산란 계수에 해당한다. 만일 동시 계수 시간 폭을 8 ns로 설정하였더라도 A의 시간차는 5 ns, B의 시간차는 7 ns로, 모두 동시 계수 시간 폭인 8 ns 내에 도달하게 되어 A는 참계수, B는 산란 계수로 검출될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❷ 왜 오답

- ① 한 지점에서 방출된 한 쌍의 감마선이 아무런 방해받지 않고 동시 계수 시간 폭 내에 도달하는 것이 참계수이므로 적절하다.
- ② B에서 한 쌍의 감마선이 한 지점에서 방출되었지만 한 감마선의 진행 방향이 바뀌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검출기에 도달한 두 감마선의 시간차는 7 ns로, 동시 계수 시간 폭인 12 ns 내이므로 적절하다.

- ③ C는 한 지점에서 방출된 두 개의 감마선 중 한 개의 감마선만 검출기로 도달할 때, 다른 지점에서 방출된 한 개의 감마선과 10 ns의 시간차로 도달했는데, 이는 동시 계수 시간 폭인 12 ns 내이므로 랜덤 계수를 의미한다. 랜덤 계수는 PET 영상에 유효한 성분이 되지 않으므로 적절하다.
- ⑤ B는 산란 계수에 해당하고 C는 랜덤 계수에 해당한다. 따라서 B와 C 모두 실제 감마선이 방출된 지점이 동시 검출 응답선 위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적절하다.

5 답 ④

➔ 더하기

◎ 이래서 정답

- ④ '유사한 점에 기초하여 다른 사물을 미루어 추측하다.'는 '유추하다'의 의미이다. 그러나 ④의 '간주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상태, 모양, 성질 따위가 그와 같다고 보거나 그 렇다고 여기다.'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왜 오답

- ①, ②, ③, ⑤ ⑧의 '주입하다', ⑥의 '방출하다', ⑦의 '도달하다', ⑨의 '설정하다'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다.

➔ 어휘

- 양상: 사물이나 현상의 모양이나 상태.
- 미세: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작음.

실전 07-B

본문 74~75

차선의 이론

주제 차선의 의미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 차선의 이론
구성

1문단	립시와 랭커스터가 제시한 차선의 이론
2문단	차선의 이론의 내용
3문단	차선의 이론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 무차별 곡선
4문단	사회 후생 수준을 나타내는 사회 무차별 곡선
5문단	차선의 이론의 예

1 답 ③

➔ 빼기

◎ 이래서 정답

- ③ 1문단을 통해 립시와 랭커스터가 차선의 이론을 제시한 것은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글에 차선의 이론의 한계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 왜 오답

- ① 1문단의 차선의 이론은 차선의 의미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보여 준다는 내용과, 2문단의 '차선의 이론에서는 최적의 결과를 얻기 위한 여러 조건 중 한 가지 이상의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나머지 조건들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그 결과는 차선이 아닐 수 있다'는 내용을 통해 차선의 이론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 ② 5문단에서 생산 가능 곡선 CD 위의 점들은 생산의 효율성을 충족한다는 것을 의미함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1문단의 '최적의 결과를 얻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면 경제 주체들은 일반적으로 효율성을 고려하여 차선의 선택을 고민하게 된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⑤ 4문단의 '이는 높은 효용 수준을 누리는 사람의 효용에는 ~ 가치 판단이 반영된 결과이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 답 ⑤

➔ 빼기

◎ 이래서 정답

- ⑤ 3문단의 '사회 무차별 곡선은 개별 경제 주체가 경제 활동을 통해 얻은 주관적 만족감인 효용 수준을 종합한 사회 후생 수준을 보여 준다.'와 4문단의 '높은 효용 수준을 누리는 사람의 효용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중치를 적용하고'로 보아 사회 무차별 곡선에는 높은 효용 수준을 누리는 사람들의 주관적인 만족감도 반영되어 있다.

❖ 왜 오답

- ① 4문단에서 '사회 무차별 곡선 위의 모든 점은 동일한 사회 후생 수준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 ② 4문단에서 '일반적으로 사회 무차별 곡선의 모양은 원점에 대해 볼록한 곡선'이라고 하였다.

- ③ 3문단에서 '사회 무차별 곡선의 모양을 보면 그 사회가 개인의 효용 수준에 대한 평가를 통해 공정성에 대해 어떠한 가치 판단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 ④ 3문단에서 '사회 무차별 곡선은 개별 경제 주체가 경제 활동을 통해 얻은 주관적 만족감인 효용 수준을 종합한 사회 후생 수준을 보여 준다.'라고 하였다.

문해 공식 적용 세부 정보

지문	선지 ⑤
<p>· '사회 무차별 곡선은 개별 경제 주체가 경제 활동을 통해 얻은 <u>주관적 만족감인 효용 수준</u>을 종합한 사회 후생 수준을 보여 준다.'</p> <p>· '높은 <u>효용 수준</u>을 누리는 사람의 효용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중치를 적용하고'</p>	<p>사회 무차별 곡선에는 높은 효용 수준을 누리는 사람들의 주관적 만족감이 반영되어 <u>있다</u>.</p>

3 ④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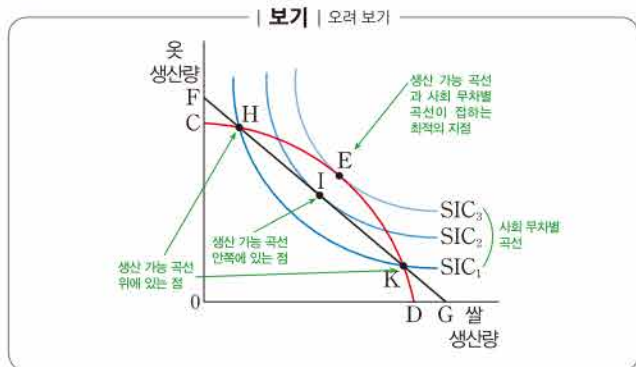
◎ 이래서 정답

- ① 3문단의 '왜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한 10개의 조건 ~ 공평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로 보아 ㉗의 이유가 효율성과 다른 기준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 왜 오답

- ② 경제 주체들이 스스로 자신의 효용 수준에 대해 평가한다는 내용은 이 글에 언급되어 있지 않다.
- ③ 2~3문단에서 효용성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조건의 충족 여부를 언급하고 있을 뿐, 조건들의 중요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다.
- ④ 4문단에서 '낮은 효용 수준밖에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효용에는 높은 가중치를 적용해 사회 후생을 계산'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⑤ 3문단에 따르면 효용성을 달성하기 위한 모든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개인의 효용 수준을 종합한 사회 후생 수준을 보여 주는 사회 무차별 곡선을 활용해 차선의 선택을 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4 답 ③



◎이래서 정답

- ③ 5문단을 통해 생산 가능 곡선 CD의 안쪽은 생산은 가능하나 비효율적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림>에서 생산 가능 곡선 CD의 안쪽에 위치하는 I는 생산이 가능하나 비효율적인 지점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왜 오답

- ① 5문단을 통해 생산 가능 곡선 CD 위의 점들은 생산의 효율성을 충족하며, 곡선의 안쪽은 생산은 가능하나 비효율적임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에서 H는 생산 가능 곡선 위에 있고, I는 생산 가능 곡선 안쪽에 위치하므로 H가 I보다 생산의 효율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 ② 5문단에서 'H 지점은 제약하에서도 ~ 차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회 후생 수준을 고려하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였고, '제약하에서 사회 후생 수준을 고려하면 I 지점이 차선의 선택이 된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H가 아닌 I가 차선으로 선택되었다면 그 이유는 사회 후생 수준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 ④ 5문단을 통해 H는 제약하에서도 생산 가능 곡선 CD 위에 위치하기에 생산의 효율성을 충족함을 알 수 있다. <그림>에서 K도 선분 FG와 같은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생산 가능 곡선 CD 위에 있으므로 K도 H와 마찬가지로 생산의 효율성을 충족하는 지점이다.
- ⑤ 4문단을 통해 사회 무차별 곡선은 원점에서 멀리 위치할수록 사회 후생 수준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에서 SIC_3 이 SIC_1 과 SIC_2 보다 원점에서 멀리 위치하므로 SIC_3 은 SIC_1 과 SIC_2 보다 사회 후생 수준이 높다.

5 **답** ⑤

◎ 이라서 정답

- ⑤ ‘일정한 조건이나 환경 따위에 맞추어 응하거나 알맞게 됨.’은 ‘적응’의 사전적 의미이다. 그러나 ㉞의 ‘적용’의 사전적 의미는 ‘알맞게 이용하거나 맞추어 씀.’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❶ 왜 오답

- ①, ②, ③, ④ a의 '조절', b의 '고려', c의 '충족', d의 '입증'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다.

➤ 어휘

- **경제 주체:** 경제 활동을 하는 단위. 가계(家計), 기업, 정부 따위가 있다.

행위자 인과 이론

주제 인간의 주체적 결단의 의미를 강조한 리드의 행위자 인과 이론
구성

1문단	인과 관계에 대한 흄과 리드의 견해 차이
2문단	리드의 행위자 인과 이론에서 원인의 개념
3문단	행위자 인과 이론에 대한 반론과 그에 대한 리드의 반박
4문단	기회 원인에 대해 반박하고 인간의 주체적 결단의 의미를 강조한 리드

1 답 ②

→ 배기

이래서 정답

- ② 2문단의 '행위자는 결과를 산출할 능력을 소유하여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그 변화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주체'라는 내용으로 보아 리드가 변화를 산출하는 능력을 가진 모든 존재를 행위자로 보았다고 할 수 없다.

왜 오답

- ① 1문단의 '그는 오직 자유 의지를 가진 행위자만이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를 통해 리드가 행위자를 자유 의지를 가진 존재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3문단의 '리드의 관점에서 보면 관찰의 범위 내에서 행위자는 오직 인간뿐이다.'를 통해 볼 때 리드의 관점에서 인간은 자유 의지를 지닌 존재로 행위자가 될 수 있다.
- ③ 3문단의 '리드는 의욕이 정신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보았다.'를 통해 알 수 있다.
- ④ 2~3문단에 따르면 리드는 '진정한 원인은 행위자'라고 보았으며, '항상적 결합만으로는 인과의 필연성을 정당화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리드의 견해에 따르면 항상적 결합이 존재하더라도 행위자가 존재하지 않으면 원인을 발견할 수 없다.
- ⑤ 1문단의 '리드는 위 사례와 같이 흄이 말하는 세 가지 조건이 성립하는 경우에도 인과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를 통해 알 수 있다.

문해 공식 적용 세부 정보

지문	선지 ②
'행위자는 결과를 산출할 능력을 소유하여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그 변화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주체이다.'	변화를 산출하는 능력을 가진 모든 존재 는 행위자이다.

≠
세부 정보
불일치

2 답 ②

× 끊하기

이래서 정답

- ② 1문단의 '리드는 위 사례와 같이 흄이 말하는 세 가지 조건이 성립하는 경우에도 인과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와 2문단의 '빨간 공이 흰 공에 부딪혔을 때 흰 공은 움직일 수만 있을 뿐'을 고려할 때 리드는 빨간 공과 흰 공의 움직임에는 시공간이 이어진다고 볼 것이다.

왜 오답

- ① 2문단에서 '양면적 능력은 변화를 산출하거나 산출하지 않을 수 있는 능동적인 능력'이라고 하였고, '빨간 공이 흰 공에 부딪혔을 때 흰 공은 움직일 수만 있을 뿐 움직이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빨간 공은 행위자일 수 없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리드는 행위자가 아닌 빨간 공에는 양면적 능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고, 움직일 수만 있을 뿐 움직이지 않을 수는 없는 흰 공도 양면적 능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 ③ 2문단에서 리드는 진정한 원인은 행위자라고 주장하였는데, 빨간 공이 흰 공에 부딪혔을 때 빨간 공은 행위자일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리드의 관점에서 빨간 공이 흰 공에 부딪친 사건은 다른 사건의 원인이 될 수 없다.
- ④ 1문단에서 흄은 인과 관계의 성립 요건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①은 이를 모두 만족한다. 따라서 흄은 빨간 공과 흰 공의 움직임에서 항상적 결합을 발견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 ⑤ 1문단에서 흄이 제시한 인과 관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에는 원인이 결과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있고, 원인과 결과가 시공간적으로 이어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 있다. 이를 고려할 때 빨간 공과 흰 공이 부딪친 사건이 원인이라면, 원인이 되는 사건이 먼저 일어난 뒤에 흰 공이 움직인 사건이 결과로 일어나게 되므로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 것일 수 없다.

3 답 ②

→ 배기

이래서 정답

- ② 4문단을 통해 '기회 원인'의 문제(③)에 대해 리드는 신이 사건의 진정한 원인이 될 수 없다며, 궁극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행위자에게 달려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인간의 주체적 결단이 갖는 의미를 강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리드의 대응은 행위자인 인간의 주체성을 부각했다고 볼 수 있다.

왜 오답

- ① 2~3문단에 따르면 리드는 진정한 원인은 행위자이고, 행위자는 오직 인간뿐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4문단에 따르면 ④를 제기한 철학자들은 인간의 행동을 비롯한 사건들의 진정한 원인은 신뿐이라고 생각하였으므로, 리드의 행위자 개념을 긍정했다고 볼 수 없다.
- ③ 4문단에 따르면 ④를 제기한 철학자들은 행위자는 기회 원인, 즉 일상적으로는 마치 원인인 듯 보이지만 실제로

는 진정한 원인이 아닌 것으로 본다. 2문단에 따르면 리드는 행위자가 진정한 원인이라고 생각하므로, 행위자가 기회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입증했다고 보기 어렵다.

- ④, ⑤ 4문단을 통해 ④를 제기한 철학자들은 인간의 행동을 비롯한 사건들의 진정한 원인을 인간이나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 신에게서 찾았다고 볼 수 있다.

문해 공식 적용 세부 정보

지문	선지 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는 우리가 ~ 신이 사건의 진정한 원인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리드는 궁극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행위자에게 달려 있다고 ~ 인간의 주체적 결단이 갖는 의미를 강조했다.’ 	③와 관련한 리드의 대응은 행위자인 인간의 주체성을 부각했다고 볼 수 있다.

=
세부 정보
일치

4 답 ③

※ 끝하기

| 보기 | 오려 보기

- A: 리드에 따르면 의욕은 행위자의 양면적 능력의 발휘에 결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능력의 발휘는 또 다른 의욕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이 연쇄는 끝없이 이어질 수 있고 ...
- B: ‘의욕의 무한 후퇴 문제’를 제기한 것이군요. 리드는 (㉞) 고 보았습니다. ...

① 이래서 정답

- ③ <보기>의 A가 제기한 ‘의욕의 무한 후퇴 문제’에 대한 리드의 반박은 3문단에 제시되어 있다. 리드는 행위자의 양면적 능력의 발휘인 ‘의욕을 일으킴’과 그것의 결과인 의욕 자체를 구별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았는데, 이는 의욕을 일으킴의 경우에는 행위자의 능력 발휘 자체가 의욕이므로 또 다른 의욕이 필요치 않음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② 왜 오답

- ① 3문단에 따르면 리드는 의욕이 정신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보았으므로, 의욕과 정신적 사건이 무관할 수 없다.
- ② 3문단에 따르면 리드는 결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양면적 능력을 발휘해야 하며, 행위자의 의욕이 항상적으로 결합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 때문에 의욕의 무한 후퇴 문제가 제기된 것이므로, 문제를 해소할 방법으로 볼 수 없다.
- ④ 3문단에 따르면 리드는 행위자의 능력 발휘 자체가 의욕이므로 또 다른 의욕이 필요치 않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리드는 의욕에 또 다른 의욕이 선행하는 연쇄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 ⑤ 2문단에서 양면적 능력은 변화를 산출하거나 산출하지 않을 수 있는 능동적인 능력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양면적 능력이 변화를 산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통해 의욕의 무한 후퇴 문제가 해소될 수 없다.

사전 07-0

본문 78~79

단백질의 분해와 합성

주제 단백질 분해 과정과,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구성

1문단	우리 몸의 단백질 합성과 분해
2문단	단백질 분해 과정
3문단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4문단	필수 아미노산의 이용 효율
5문단	제한 아미노산의 개념과 예

1 답 ③

→ 보기

① 이래서 정답

- ③ 2문단에서 ‘아미노산이 분해될 때는 아미노기가 아미노산으로부터 분리되어 암모니아로 바뀐 다음, 요소로 합성되어 체외로 배출된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아미노산에서 분리되어 요소로 합성되는 것은 아미노기를 제외한 부분이 아니라 아미노기이다.

② 왜 오답

- ① 1문단에서 ‘체내 단백질 분해를 통해 오래되거나 손상된 단백질이 축적되는 것을 막’는다고 하였다.
- ② 2문단의 ‘프로테아솜은 유비퀴틴이라는 물질이 일정량 이상 결합되어 있는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한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④ 1문단의 ‘단백질 합성에서 아미노산들은 DNA 염기 서열에 담긴 정보에 따라 정해진 순서대로 결합된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⑤ 3문단의 ‘성장기 어린이의 경우, 체내에서 합성할 수는 있으나 그 양이 너무 적어서 음식물로 보충해야 하는 아미노산도 필수 아미노산에 포함된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해 공식 적용 세부 정보

지문	선지 ③
‘아미노산이 분해될 때는 아미노기가 아미노산으로부터 분리되어 암모니아로 바뀐 다음, 요소로 합성되어 체외로 배출된다.’	아미노산에서 분리되어 요소로 합성되는 것은 아미노산에서 아미노기를 제외한 부분이다.

≠
세부 정보
불일치

2 답 ①

→ 보기

① 이래서 정답

- ① 5문단에서 ‘제한 아미노산은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각각의 필수 아미노산의 양에 비해 공급된 어떤 식품에 포함된 해당 필수 아미노산의 양의 비율이 가장 낮은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제한 아미노산 역시 필수 아미노산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필수 아미노산을 제

외한 다른 아미노산은 제한 아미노산이 될 수 없다.

❶ 왜 오답

- ② 3문단에서 '체내 단백질 분해를 통해 생성되는 필수 아미노산도 다시 단백질 합성에 이용'된다고 하였다.
- ③ 3문단에 따르면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아미노산 중 체내에서 합성할 수 없는 것을 필수 아미노산이라 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체내 단백질 분해를 통해 생성되는 필수 아미노산도 다시 단백질 합성에 이용되기도 하지만 부족한 양은 음식을 통해 섭취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필수 아미노산은 음식물의 섭취나 체내 단백질 분해로부터 공급된다고 할 수 있다.
- ④ 5문단에서 '제한 아미노산은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각각의 필수 아미노산의 양에 비해 공급된 어떤 식품에 포함된 해당 필수 아미노산의 양의 비율이 가장 낮은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제한 아미노산이 없다는 것은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각각의 필수 아미노산의 양에 맞게 필수 아미노산이 균형 있게 함유되어 있음을 뜻한다.
- ⑤ 3문단의 '체내 단백질 분해를 통해 생성되는 필수 아미노산도 다시 단백질 합성에 이용되기도 하지만, 부족한 양이 외부로부터 공급되지 않으면 전체의 체내 단백질 합성량이 줄어들게 된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제 공식 적용 세부 정보

지문	선지 ①
'제한 아미노산은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각각의 필수 아미노산의 양에 비해 공급된 어떤 식품에 포함된 해당 필수 아미노산의 양의 비율이 가장 낮은 필수 아미노산을 말한다.'	필수 아미노산을 제외한 다른 아미노산도 제한 아미노산이 될 수 <u>있</u> 지만, <u>없</u> 지만.

≠
세부 정보
불일치

3 답 ③

✕ 곱하기

| 보기 | 오려 보기

가상의 단백질 Q를 1몰 합성하는 데 필수 아미노산 A, B, C가 각각 2몰, 3몰, 1몰이 필요하다고 가정하자. 단백질 Q를 2몰 합성하려고 할 때 ...

(가): A 4몰, B 6몰, C 2몰

(나): A 6몰, B 3몰, C 3몰

(다): A 4몰, B 3몰, C 3몰

(단, 단백질과 아미노산의 분해는 없다고 가정한다.)

❶ 이래서 정답

- ③ <보기>에서 단백질 Q를 1몰 합성하는 데 필수 아미노산 A, B, C가 각각 2몰, 3몰, 1몰이 필요하다고 가정하였으므로, 단백질 Q를 2몰 합성하기 위해서는 A가 4몰, B가 6몰, C가 2몰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나)와

(다) 모두 B가 3몰 부족하기 때문에 Q를 2몰 합성하지 못하고 1몰만 합성하게 된다. 결국 (나)와 (다)에서 합성되는 단백질 Q는 1몰로 같다.

❶ 왜 오답

- ① (가)에서는 필수 아미노산 A 4몰, B 6몰, C 2몰을 모두 사용하여 2몰의 단백질 Q를 합성할 수 있으므로 단백질 합성을 제한하는 필수 아미노산, 즉 제한 아미노산은 없다.
- ② (가)에서는 12몰(A 4몰 + B 6몰 + C 2몰)의 필수 아미노산을 사용하여 2몰의 단백질 Q를 합성할 수 있다. 한편 (다)에서는 6몰(A 2몰 + B 3몰 + C 1몰)의 필수 아미노산을 사용하여 1몰의 단백질 Q를 합성할 수 있다. 따라서 (가)에서 단백질 합성에 이용된 필수 아미노산의 총량이 (다)에 비해 많다.
- ④ 단백질 2몰을 합성하는 데에는 A가 4몰, B가 6몰, C가 2몰 필요한데 (나)와 (다) 모두 B가 3몰 부족하여 단백질 Q를 1몰밖에 만들지 못한다. 그러므로 (나)와 (다) 모두에서 B가 단백질 합성을 제한하는 필수 아미노산인 제한 아미노산이 된다.
- ⑤ (나)에서는 합성에 이용되지 못한 필수 아미노산이 6몰(A 4몰 + C 2몰)이 남지만, (다)에서는 4몰(A 2몰 + C 2몰)이 남는다. 그러므로 단백질 합성에 이용되지 않고 남은 필수 아미노산의 총량은 (나)가 (다)보다 더 많다.

4 답 ②

+ 더하기

❶ 이래서 정답

- ② ①의 '높다'는 '값이나 비율 따위가 보통보다 위에 있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값이나 비율과 관련되는 것은 '수입 의존도'라고 할 수 있으므로, ②의 '높다'도 이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❶ 왜 오답

- ① '높다'가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벌어진 사이가 크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 ③ '높다'가 '아래에서 위까지의 길이가 길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 ④ '높다'가 '어떤 의견이 다른 의견보다 많고 우세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 ⑤ '높다'가 '이름이나 명성 따위가 널리 알려진 상태에 있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 어휘

- 가상: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것을 사실이라고 가정하여 생각함.
- 우세: 상대면보다 힘이나 세력이 강함. 또는 그 힘이나 세력.

확인 1 답 ③

이래서 정답

- ③ 유물을 사용한 사람의 기호 변화에 주목한 해석은 사회 문화적 요인과 관련 있으므로 ㉠에 들어가기에 적절하다.

확인 2 답 (1) ○ (2) ×

이래서 정답

- (1)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과 관찰 자체가 물체의 상태를 결정한다는 개념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는 내용으로 보아 아인슈타인은 ㉠을 통해 달을 관찰하는 것이 달(물체)의 존재(상태)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을 부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2) 아인슈타인은 관찰에 의해 물체의 상태가 결정된다는 개념에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였다고 하였으므로, 관찰에 의해 대상이 존재할 가능성을 따지는 것 자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확인 3 답 ①

이래서 정답

- ① '영화는 실제 대상과 ~ 사실적인 기록이 된다.'라고 하였는데 디지털 특수 효과로 실재하지 않는 대상을 만들면 실제 대상과 영화 이미지 간의 인과 관계는 약해질 것이다.

확인 4 답 ③

이래서 정답

- ③ 흥작일 때는 풍작일 때와 반대로 압착기를 빌리려는 사람이 줄어 임대료가 상승하지 않아 임대료로 얻는 수익이 탈레스가 지급하기로 한 임대료보다 낮아질 것이므로, 압착기를 빌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확인 5 답 (1) ○ (2) ×

이래서 정답

- (1) 아이슬란드는 육지 위에서 두 판이 확장되는 지역으로, 새로운 암석이 생성되면서 두 판이 멀어진다고 하였으므로, 아이슬란드의 크기는 서서히 커지고 있을 것이다.
- (2) 새롭게 생성된 해양 지각이 판의 일부가 되어 이동한 결과 북아메리카 판과 유라시아 판이 서서히 확장된다고 하였을 뿐, 두 판의 이동 속도를 비교하고 있지 않다.

석빙고

주제 석빙고의 특징과 의의

구성

1문단	조상들이 얼음을 보관한 석빙고
2문단	석빙고의 낮은 온도를 유지하는 얼음
3문단	석빙고 내부의 온도를 낮추는 통풍구
4문단	석빙고에서 얼음을 보관할 때 사용한 집
5문단	얼음을 효과적으로 보관하기 위한 석빙고의 여러 가지 구조
6문단	석빙고의 의의

1 답 ③

배기

이래서 정답

- ③ 3문단의 '석빙고 내부에서는 ~ 상승한 공기는 아치형 천장의 움푹 들어간 공간을 통해 그 위의 통풍구로 빠져나가 내부의 차가움을 유지하게 된다.'로 보아 석빙고의 아치형 천장은 석빙고 내부 공기의 흐름에 따른 에너지의 이동을 이용하여 내부의 차가움을 유지하는 것이지 외부 공기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다.

왜 오답

- ① 5문단을 통해 석빙고 외부에 풀을 심어 태양의 복사 에너지로 인해 내부의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최대한 막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 ② 1문단의 '석빙고는 겨울철에 입구를 개방하여 내부를 냉각시킨 후 얼음을 저장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석빙고에 얼음을 저장하기 전에 내부를 차갑게 하는 과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 ④ 5문단의 '얼음을 저장하는 빙실은 온도 유지를 위해 주변 지반에 비해 낮게 만들었다.'를 통해 알 수 있다.
- ⑤ 3문단의 '통풍구에는 얼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직사광선이나 빗물을 차단하기 위해 덮개돌을 설치하였다.'로 보아 덮개돌이 없으면 직사광선이 석빙고 내부로 들어와 온도를 높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 답 ④

공하기

이래서 정답

- ④ 2문단의 '얼음이 녹아 물이 될 때는 ~ 같은 양의 0℃ 얼음보다 0℃ 물이 더 큰 에너지를 갖게 되는 것이다.'로 보아 상태 변화가 일어나 생긴 물은 같은 양의 얼음보다 더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석빙고 안에서 얼음이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더 큰 에너지를 가진 물질로부터 에너지를 전달받'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석빙고 안의 얼음이 더 큰 에너지를 가진 물질(얼음이 녹아 생

긴 물)로부터 에너지를 전달받아서 녹는 것을 막기 위해 얼음이 녹아 생긴 물을 빨리 제거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③ 왜 오답

- ① 2문단에서 같은 양의 0℃ 얼음보다 0℃ 물이 더 큰 에너지를 갖게 된다고 하였고, 석빙고 안에서 얼음이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더 큰 에너지를 가진 물질로부터 에너지를 전달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더 큰 에너지를 가진 물질인 물이 상대적으로 에너지가 낮은 얼음으로부터 에너지를 전달받을 수 없다.
- ② 2문단에서 '주변 공기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하여 일부의 얼음이 물이 되면서 주변 공기는 차가워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얼음이 녹아 생긴 물은 에너지의 이동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한다고 볼 수 있다.
- ③ 2문단에서 물이 얼어 얼음이 될 때 응고열을 방출한다고 한 것으로 보아 물이 다시 얼음이 되는 상태 변화가 일어나야 내부의 온도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주변 공기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하여 일부 얼음이 녹는 상황에서 물이 다시 얼어 얼음이 되는 상태 변화는 일어나기 어렵다.
- ⑤ 2문단을 통해 얼음이 녹아 생긴 물은 같은 양의 얼음보다 에너지가 클 것이고, 이때 얼음을 녹게 한 주변 공기는 더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렇듯 에너지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에너지 평형을 이루었다고 볼 수 없다.

문제 공식 적용 추론

단서 1	• 얼음이 녹아 물이 될 때는 주변에서 융해열을 흡수함. • 물이 얼어 얼음이 될 때는 주변에 응고열을 방출함. → 같은 양의 0℃ 얼음보다 0℃ 물이 더 큰 에너지를 갖게 됨.
단서 2	석빙고 안에서 얼음이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더 큰 에너지를 가진 물질로부터 에너지를 전달받게 됨.



추론	얼음이 녹아 생긴 물은 같은 양의 얼음보다 더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다른 얼음들이 더 큰 에너지를 가진 물질(얼음이 녹아 생긴 물)로부터 에너지를 전달받아 녹을 수 있으므로 얼음이 녹아 생긴 물은 빨리 제거되어야 함.
----	---------------------------------------------------------------------------------------------------------------------------------------------

3 답 ①

① 이래서 정답

- ① 2문단을 통해 얼음이 녹아 물이 될 때는 주변에서 융해열을 흡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여름에 석빙고 안에서는 일부의 얼음이 물이 되는 융해가 일어난다(㉔). 이때 얼음이 주변에서 융해열을 흡수하게 되면, 에너지 교환이 일어난 주변 물질은 에너지가 감소한다(㉕). 또한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 온도는 변하지 않고 ~ 숨은열이라고 한다.'로 보아, 상태 변화가 일어나

는 동안 물질의 온도는 유지된다(㉖).

② 왜 오답

- ②, ③, ④, ⑤ ㉗~㉙에 들어갈 말이 적절하지 않다.

4 답 ③

③ 나누기

보기 | 오려 보기

... 이글루는 우선 눈 벽돌을 쌓아 올린 후에, 이글루 안에서 불을 피워 내부 공기의 온도를 높인다. 시간이 지나 공기가 순환하여 눈 벽돌이 녹으면서 물이 생기면 출입구를 열어 물이 얼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눈 사이에 들어 있던 공기는 빠져나가지 못하고 얼음 속에 갇히게 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얼음은 에너지의 전달을 방해한다. 또한 물이 눈 벽돌 사이를 메우면서 얼어 만들어진 얼음 벽은 내부의 에너지 유출을 막는다.

③ 이래서 정답

- ③ <보기>에서 물이 눈 벽돌 사이를 메우면서 얼어 만들어진 이글루(B)의 얼음 벽은 내부의 에너지 유출을 막는다고 하였으므로, 외부와의 공기 출입을 막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4문단의 내용으로 보아 석빙고(A)의 얼음 사이의 깊은 접촉하는 두 물질 사이에 에너지가 잘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것일 뿐, 석빙고 외부와의 공기 출입을 막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없다.

④ 왜 오답

- ① 5문단의 '석빙고 외부에 흠을 덮어 내부로 유입되는 에너지가 잘 차단되도록 하였고'로 보아 A의 외부 흠은 내부로 유입되는 에너지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달리 <보기>에서 B의 얼음 벽은 내부의 에너지 유출을 막는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 ② 4문단의 '깊은 스티로폼처럼 미세한 공기구멍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 단열 효과를 높일 수 있었다.'로 보아 A의 깊이에 포함된 공기구멍은 단열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또한 <보기>에서 B의 눈 벽돌이 녹았다가 어는 과정에서 눈 사이에 들어 있던 공기가 얼음 속에 갇히게 된다고 하였는데, 이 공기층도 공기구멍을 많이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단열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④ 3문단의 '공기와 같은 유체는 온도가 올라가면 ~ 밀도가 높은 공기, 즉 온도가 낮은 공기가 아래로 이동하게 된다.'로 보아 A는 공기의 밀도 변화에 따른 에너지의 이동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보기>의 '눈 벽돌을 쌓아 올린 후에, 이글루 안에서 불을 피워 ~ 공기가 순환하여'로 보아 B도 공기의 밀도 변화에 따른 에너지의 이동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⑤ 1문단의 '석빙고는 겨울철에 입구를 개방하여 내부를 냉각시킨 후'로 보아 A는 내부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 출입

III

답하기

구를 활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보기>의 '눈 벽돌이 녹으면서 물이 생기면 출입구를 열어 물이 얼도록 한다.'로 보아 B도 내부 온도를 낮추기 위해 출입구를 활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답 ①

더하기

이래서 정답

- ① ③의 '떨어지다'는 '다른 것보다 수준이 처지거나 못하다.'라는 의미로 쓰였는데, ①의 '떨어지다'도 이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왜 오답

- ② '떨어지다'가 '명령이나 허락 따위가 내려지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③ '떨어지다'가 '정이 없어지거나 멀어지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④ '떨어지다'가 '함께 하거나 따르지 않고 뒤에 처지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⑤ '떨어지다'가 '말이 입 밖으로 나오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어휘

- 복사 에너지: 물체에서 방출되는 전자기파의 에너지.
- 메우면서: 뚫려 있거나 비어 있는 곳을 막거나 채우면서.
- 접촉: 서로 맞닿음.

2전 08-B

본문 86~87

에리히 프롬의 행복

주제 실존 양식을 중심으로 한 현대 사회에서의 행복에 대한 에리히 프롬의 고찰

구성

1문단	현대 사회에서의 행복에 대해 고찰한 에리히 프롬
2문단	프롬의 인간관
3문단	소유적 실존 양식에 대한 프롬의 비판
4문단	존재적 실존 양식에서 궁극적 행복을 찾는 프롬
5문단	실존 양식에 따른 대상의 의미
6문단	현대 사회에서의 행복 문제에 대한 프롬의 진단
7문단	프롬에 대한 평가

1 답 ③

빼기

이래서 정답

- ③ 2문단에서 '프롬은 인간과 다른 동물을 구분 지을 수 있는 특성이자 인간의 본질을 이성이라고 파악했다'고 하였다. 하지만 동물과 달리 인간이 이성을 가지는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다.

왜 오답

- ① 6문단에 따르면 프롬은 '현대 사회의 병리적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은 끝없는 소비를 조장하여 무한한 이윤을 추구하는 소유 지향적인 사회'라고 하였다.
 ② 5문단에 따르면 프롬은 '소유적 실존 양식을 따르는 사람에게 학습은 권력 추구의 수단이 되지만 존재적 실존 양식을 따르는 사람에게 학습은 내면의 새로운 사고를 촉발하는 과정이 된다'고 하였다.
 ④ 6문단에서 프롬은 '사회의 구조와 규범에 따라 주된 실존 양식이 무엇인지 결정된다고 보았다'고 하였다.
 ⑤ 4문단에 따르면 프롬은 '존재적 실존 양식 아래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세계와 긴밀하게 결합해 있다고 느끼므로 가진 것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에 시달리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존재에 대해 호의적이다.'라고 하였다.

2 답 ②

곱하기

| 보기 | 오려 보기

A: ... 인간이 생존에 필수적인 의식주 없이 어떻게 살겠어? 또 난 얼마 전에 최신 휴대폰을 구매했는데 행복했어. 이처럼 소유를 통해 행복을 느낄 수도 있는 것 아닐까?
 B: 그 문제에 대해서 프롬은 (㉠)고 이야기를 했어.

이래서 정답

- ② 3문단을 통해 프롬은 생존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소유를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소유를 통해 행복의 원천을 발

견하려는 집착적 욕망에는 포화점이 없으며, 소유를 통해서 인간의 근원적 불안과 외로움은 극복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㉔에 들어가기에 적절한 것은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적인 소유는 불가피한 것이지만 소유를 통해 행복을 찾으려는 욕망은 완전히 채워질 수 없다는 내용이다.

❖ 왜 오답

- ① 3문단에 따르면 프롬은 '이미 소유한 것은 더 이상 충족감을 줄 수 없으며, 소유를 통해서 인간의 근원적 불안과 외로움은 극복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소유물은 소유하고 있는 동안 충분한 만족감과 행복을 제공하므로 소유를 통한 행복이 필요하다는 내용은 프롬의 관점과 거리가 멀다.
- ③, ⑤ 3문단에서 '프롬은 생존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소유를 부정하지는 않았'다고 하였으므로, 모든 소유의 방식을 부정해야 한다거나(③) 최소한의 소유도 필요 없다는 내용(⑤)은 프롬의 관점과 거리가 멀다.
- ④ 3문단에 따르면 프롬이 소유를 통해 행복의 원천을 발견하려는 집착적 욕망을 비판하기는 했지만, 행복에 대한 욕망을 버려야 한다고 보지는 않았다. 따라서 행복에 대한 욕망을 버려야 한다는 내용은 프롬의 관점과 거리가 멀다.

문제 공식 적용 추론

단서	추론
프롬은 생존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소유를 부정하지는 않았음.	→ 프롬은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적인 소유는 불가피하다고 볼 것임.
• 프롬은 소유를 통해 행복의 원천을 발견하려는 집착적 욕망에는 포화점이 없다고 보았음. • 프롬은 소유를 통해서 인간의 근원적 불안과 외로움이 극복되지 않는다고 보았음.	→ 프롬은 소유를 통해 행복을 찾으려는 욕망은 완전히 채워질 수 없다고 볼 것임.

3 답 ③

➡ 나누기

❖ 이어서 정답

- ③ 4문단을 통해 존재적 실존 양식(㉔)에서 세계와 합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성적 능력을 생산적으로 사용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때 '생산적'이라는 것은 쓸모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능력이 아니라 내면의 능동적인 상태를 의미하므로 유용한 결과물을 생산하는 것은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할 수 없다.

❖ 왜 오답

- ① 3문단을 통해 소유적 실존 양식(㉓)에서 소유에 대한 탐욕은 '소유물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의 욕구'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② 3문단을 통해 ㉑ 아래에서 사람들은 더 많이 소유하는 것,

자신의 소유물을 지키며 타인의 소유물을 빼앗을 수 있는 권력을 차지하는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④ 4문단을 통해 ㉔ 아래에서 사람들은 가진 것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에 시달리지 않기 때문에 다른 존재에 대해 호의적이며, 타인을 사랑하고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눔으로써 다른 존재의 성장을 도우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⑤ 5문단의 '두 실존 양식에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물건들과 지식·사상 등이 모두 그 대상으로 나타난다.'로 보아, ㉑과 ㉔은 모두 일상의 사물과 관념적 대상에 적용되는 삶의 방식임을 알 수 있다.

문제 공식 적용 비교

	소유적 실존 양식	존재적 실존 양식
공통점	인간이 세계와 관계 맺는 방식	
차이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을 소유물과 동일시함으로써 세계와 일체감을 느끼고자 하는 삶의 방식 • 소유물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의 욕구, 타인의 소유물을 빼앗기 위한 폭력의 욕구, 자신의 소유물을 잃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불러일으킴 • 더 많이 소유하는 것, 자신의 소유물을 지키며 타인의 소유물을 빼앗을 수 있는 권력을 차지하는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유에서 벗어나 세계와 하나가 되는 삶의 방식 • 세계와 합일을 이루기 위해 이성적 능력을 생산적(내면의 능동적인 상태)으로 사용할 • 가진 것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에 시달리지 않음 • 타인을 사랑하고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눔으로써 다른 존재의 성장을 도우려 하는 삶의 모습을 궁극적 행복으로 봄

4 답 ②

➡ 나누기

| 보기 | 오래 보기

... 첫 번째는 감각적 욕망의 충족을 통해 누릴 수 있는 행복이다. 하지만 이것은 찰나이며 지나칠 경우 거부감을 줄 수 있다. 두 번째는 사회에 책임을 지는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행복이다. 이때 인간의 덕은 공동체의 훈육을 통해 개발되므로 인간은 사회를 떠나서 행복할 수 없다. 마지막은 이성적 사고를 통해 세상의 질서를 깨닫는 철학자로서의 행복이며, 최고의 행복이다. 인간이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행복을 함께 구현해야 한다. 행복이란 한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덕의 실현이 습관화됐을 때 도달할 수 있는 경지이므로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일생에 이룩한 인격적 성숙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 이어서 정답

- ② 6문단을 통해 프롬은 현대 사회의 병리적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변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 개인이 사회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지는 않았다. 한편 <보기>에서는 인간이 사회에 책임을 지는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언급하였을 뿐, 개인이 사회적 변혁을 이끌어

야 한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❶ 왜 오답

- ① 6문단에서 프롬은 '사회의 구조와 규범에 따라 주된 실존 양식이 결정된다고 보았'다고 하였고, <보기>에서는 '인간의 덕은 공동체의 훈육을 통해 개발되므로 인간은 사회를 떠나서 행복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프롬과 <보기>는 모두 인간의 행복이 사회의 영향을 받는다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 ③ 4문단을 통해 프롬은 세계와 합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성적 능력을 생산적, 즉 내면의 능동적인 상태로 사용해야 한다고 보았음을 알 수 있는데, 이를 통해 궁극적인 행복이 내면의 능동적인 작용을 통해 가능하다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보기>에서는 이성적 사고를 통해 세상의 질서를 깨닫는 철학자로서의 행복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하였으므로 최고의 행복이 이성적 사고를 통해 가능하다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 ④ 2문단에서 '프롬은 인간은 세계와 합일을 이루고자 하며, 이러한 열망이 충족될 때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보았다.'라고 하였다. 또한 <보기>에서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 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일생에 이룩한 인격적 성숙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 ⑤ 3문단을 통해 프롬은 소유적 실존 양식 아래에서 사람들은 소유를 통해 감각적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지만, 욕망이 충족된 후에도 소유에 대한 탐욕을 느끼기 때문에 행복을 느낄 수 없다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보기>에서는 세 가지 행복을 함께 구현해야 한다고 하면서, 첫 번째로 감각적 욕망의 충족을 통해 누릴 수 있는 행복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지나칠 경우 거부감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이로 보아 <보기>는 프롬과 달리 감각적 욕망의 충족이 지나치지만 않으면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한 조건이 된다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 어휘

- **조장:** 바람직하지 않은 일을 더 심해지도록 부추김.
- **호의적:** 좋게 생각해 주는 것.
- **영위:** 일을 꾸려 나감.
- **변학:** 급격하게 바꾸어 아주 달라지게 함.

생물과 독

주제 생물이 가진 독의 다양한 특징

구성

1문단	여러 가지 이유로 독을 이용하는 생물들
2문단	식물 독의 종류와 특징 ① - 투구꽃의 '아코니틴'
3문단	식물 독의 종류와 특징 ② - 흰독말풀의 '아트로핀'
4문단	동물 독의 종류와 특징
5문단	해독제의 종류

1 답 ③

→ 보기

❶ 이래서 정답

- ③ 2문단을 통해 식물 독의 주성분은 대부분 알칼로이드인데 이는 질소를 함유하는 염기성 유기 화합물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알칼로이드가 질소를 함유하는 이유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❷ 왜 오답

- ① 2문단의 '아코니틴은 신경 세포의 나트륨 이온 통로를 계속 열어 두기 때문에 ~ 아세틸콜린이 분비되지 않아, 결국 호흡 곤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② 4문단을 통해 복어가 '테트로도톡신'이라는 독소를 가지고 있는데, 이 테트로도톡신은 복어가 스스로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복어가 먹이로 섭취한 플랑크톤에 의해 축적되거나 복어 체내에 기생하는 균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④ 4문단을 통해 살무사에게 물리면 '크로탈로톡신'이 혈액 내의 혈구 세포와 혈소판 등을 파괴하는데, 이로 인해 근육이 괴사되고 출혈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⑤ 4문단을 통해 '오피오톡신'은 시냅스에서 아세틸콜린 수용체와 결합해 근육으로의 정보 전달을 방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크로탈로톡신'은 혈액 내의 혈구 세포와 혈소판 등을 파괴하는데, 이로 인해 근육이 괴사되고 출혈이 멈추지 않아 죽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답 ④

× 고평하기

❶ 이래서 정답

- ④ 5문단에서 해독제로 '유입된 독과 서로 반대 작용을 하는 독'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3문단을 통해 아트로핀은 부교감 신경의 시냅스에서 아세틸콜린 대신에 아세틸콜린 수용체와 결합함으로써 아세틸콜린의 작용을 방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아세틸콜린이 아세틸콜린 수용체와 결합하지 못하면 신경의 흥분이 억제된다고 하였으므로, 아트로핀이 아세틸콜린의 작용을 방

해해 부교감 신경의 흥분을 억제하기 때문에 일부 독의 해독제로 쓰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왜 오답

- ① 3문단으로 보아 아트로핀은 아세틸콜린의 작용을 방해하는 것이지, 아세틸콜린을 분해하는 물질의 작용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다.
- ② 3문단을 통해 아세틸콜린의 분비가 억제되거나 아세틸콜린이 아세틸콜린 수용체와 결합하지 못하면 신경의 흥분이 억제되고, 아세틸콜린이 과잉 분비되면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아세틸콜린이 과잉 분비되어야 신경의 흥분이 유도됨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또한 아트로핀은 아세틸콜린 수용체와 결합하므로, 아세틸콜린을 소모했다고 볼 수도 없다.
- ③ 3문단에서 '아트로핀은 아세틸콜린과 화학 구조가 유사하기 때문에 아세틸콜린 수용체와 결합함으로써 시냅스에서 이루어지는 정보 전달을 방해'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⑤ 아트로핀이 아세틸콜린의 분비를 억제한다는 내용이나 다른 신경 전달 물질을 활성화한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문제 공식 적용 추론

단서 1	해독제로는 산과 염기의 반응을 이용한 중화제, 독소 분자를 분해하는 효소, 유입된 독과 서로 반대 작용을 하는 독을 활용할 수 있음.
단서 2	아트로핀은 부교감 신경의 시냅스에서 아세틸콜린 대신에 아세틸콜린 수용체와 결합함으로써 아세틸콜린의 작용을 방해함.
단서 3	아세틸콜린의 분비가 억제되거나 아세틸콜린이 아세틸콜린 수용체와 결합하지 못하면 신경의 흥분이 억제됨.



추론	아트로핀이 아세틸콜린의 작용을 방해해 부교감 신경의 흥분을 억제하기 때문에 해독제로 기능할 수 있음.
----	----------------------------------------------------------

3 답 ⑤

⑤ 나누기

① 이어서 정답

- ⑤ 2문단을 통해 아코니틴(㉠)은 나트륨 이온을 세포 안으로 다량 유입시키는데, 이로 인해 나트륨 이온의 이동이 정상적으로 일어나지 않게 되면서 활동 전위가 신경 세포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4문단을 통해 테트로도톡신(㉡)은 신경 세포의 나트륨 이온 통로를 차단함으로써 나트륨 이온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활동 전위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왜 오답

- ① 2문단을 통해 아코니틴은 나트륨 이온 통로를 계속 열어두기 때문에 나트륨 이온을 세포 안으로 다량 유입시키는데, 이로 인해 이온의 농도 차에 의한 나트륨 이온의 이동이 정상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나트륨 이온의 농도 차이를 일정하게 유지시킨다

고 보기 어렵다. 4문단을 통해 테트로도톡신은 신경 세포의 나트륨 이온 통로를 차단함으로써 나트륨 이온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 보아 ㉡은 나트륨 이온의 농도 차이를 변화시키지 않을 것이다.

- ② 2문단에서 아코니틴은 나트륨 이온을 세포 안으로 다량 유입시킨다고 하였고, 4문단에서 테트로도톡신은 신경 세포의 나트륨 이온 통로를 차단함으로써 나트륨 이온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은 ㉠과 달리 세포 안으로 나트륨 이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해한다고 보아야 한다.
- ③ 3문단에서 아트로핀이 아세틸콜린과 화학 구조가 유사하다고 언급하였을 뿐, ㉠과 ㉡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 ④ 2문단의 '아코니틴은 ~ 아세틸콜린이 분비되지 않아'와 4문단의 '테트로도톡신은 신경 세포의 ~ 아세틸콜린이 분비되지 않는다.'로 보아 ㉠과 ㉡은 모두 아세틸콜린이 분비되지 못하게 한다.

4 답 ②

② 굵하기

| 보기 | 오래 보기

- A의 앞에는 알칼로이드에 속하는 스코폴라민이 포함되어 있는데, 강한 쓴맛 때문에 동물에게 먹히지 않는다. 스코폴라민이 몸속에 들어오면 아세틸콜린 수용체와 결합하므로 ...
- B는 꼬리에 있는 독침에서 분비되는 단백질 계열의 카리브도톡신을 이용한다. 카리브도톡신이 먹잇감인 곤충의 몸속에 들어가면 ... 아세틸콜린이 과잉 분비된다.

① 이어서 정답

- ② 3문단에서 '아세틸콜린의 분비가 억제되거나 아세틸콜린이 아세틸콜린 수용체와 결합하지 못하면 신경의 흥분이 억제되어 근육은 이완되지만 아세틸콜린이 과잉 분비되면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아세틸콜린이 과잉 분비되면 신경이 흥분되고 근육이 수축하게 됨을 알 수 있다. B의 카리브도톡신은 아세틸콜린이 과잉 분비되게 하므로, 신경의 흥분을 촉진할 것이며 근육으로의 정보 전달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다.

③ 왜 오답

- ① 2~3문단에서 '식물 독의 주성분은 대부분 알칼로이드라는 물질'이라고 하며 동물의 신경계에서 정보 전달을 방해하는 아코니틴과 아트로핀을 예로 들었다. A의 스코폴라민도 알칼로이드에 속하며 아트로핀처럼 아세틸콜린 수용체와 결합하므로, 시냅스에서 이루어지는 정보 전달을 방해하는 작용을 할 것이다.
- ③ 3문단을 통해 아세틸콜린이 아세틸콜린 수용체와 결합하지 못하면 신경의 흥분이 억제되어 근육은 이완되지만 아세틸콜린이 과잉 분비되면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남을 알

수 있다. A의 스코폴라민은 몸속에서 아세틸콜린 수용체와 결합하여 아세틸콜린의 작용을 방해하므로 신경의 흥분을 억제하고 근육을 이완시킬 것이다. 이와 반대로 B의 카리브도톡신은 아세틸콜린을 과잉 분비하게 하므로 신경을 흥분시키고 근육을 수축시킬 것이다.

- ④ 5문단에서 산과 염기의 반응을 이용한 중화제, 독소 분자를 분해하는 효소를 해독제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A의 스코폴라민은 알칼로이드에 속하는데, 2문단에 따르면 알칼로이드는 염기성 유기 화합물이므로 산성 물질을 해독제로 활용할 수 있다. B의 카리브도톡신은 단백질 계열이므로 단백질 분해 효소를 해독제로 활용할 수 있다.
- ⑤ 1문단을 통해 생물들은 위협적인 상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거나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 또는 사냥감을 포획하기 위한 수단으로 독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는 잎에 포함된 스코폴라민의 강한 쓴맛 때문에 동물에게 먹히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독을 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B는 먹잇감인 곤충을 잡을 때 사용하는 독침에서 카리브도톡신이 분비되므로, 사냥감을 포획하기 위한 수단으로 독을 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어휘

- **기생**: 서로 다른 종류의 생물이 함께 생활하며, 한쪽이 이익을 얻고 다른 쪽이 해를 입고 있는 일, 또는 그런 생활 형태.
- **괴사**: 생체 내의 조직이나 세포가 부분적으로 죽는 일.
- **시냅스**: 신경 세포의 신경 돌기 말단이 다른 신경 세포와 접합하는 부위. 이곳에서 한 신경 세포에 있는 흥분이 다음 신경 세포에 전달된다.
- **소모**: 써서 없앴.

피아노의 장치

주제 피아노의 소리를 내는 핵심 장치와 기능
구성

1문단	건반으로 연주하는 현악기인 피아노
2문단	피아노의 핵심 장치인 '액션'의 기능
3문단	피아노의 핵심 장치인 '현'과 '음향판'의 기능
4문단	피아노의 핵심 장치인 '페달'의 종류와 기능

1 답 ②

➤ 대하기

㉠ 이래서 정답

- ② 이 글을 통해 피아노의 주요 장치인 '액션', '현', '음향판', '페달'에 대해 알 수 있다. 2문단에서는 '액션'의 기능을, 3문단에서는 '현'과 '음향판'의 기능을, 4문단에서는 '페달'의 기능을 설명하고 있다.

㉡ 왜 오답

- ① 1문단의 '그랜드 피아노를 기준으로 피아노에서 특유의 소리가 나기까지 어떤 것들이 관여하는지 살펴보자.'에 피아노의 한 종류인 '그랜드 피아노'가 언급되어 있을 뿐, 피아노의 종류와 그 차이점을 소개하고 있지 않다.
- ③ 피아노의 핵심 장치들의 기능을 설명하며 피아노에서 특유의 소리가 나기까지의 과정이 제시되고 있을 뿐, 피아노의 제작 과정을 순차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
- ④, ⑤ 피아노의 작동 원리를 다른 대상과 비교하여 설명하거나 ④ 피아노 연주에서 유의해야 할 점을 부각한 부분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⑤).

2 답 ③

➤ 배기

㉠ 이래서 정답

- ③ 2문단의 '액션은 건반을 누른 힘보다 더 큰 힘으로 액션에 있는 해머가 현을 때리도록 하는 지렛대 역할을 한다.'로 보아 건반을 세게 내리치면 액션은 그 힘을 완하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힘으로 현을 때리게 함을 알 수 있다.

㉡ 왜 오답

- ① 3문단의 '음향판의 모양은 피아노 특유의 음색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② 2문단의 '각 건반마다 하나씩 있는 액션'으로 보아 건반 개수와 액션 개수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3문단의 '건반 하나에 같은 음높이로 조율된 여러 개의 현들이 대응하도록 제작되어 있다.'로 보아 건반 개수는 현의 개수보다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④ 1문단을 통해 건반과 연결된 해머가 현을 때리면 현이 진동하게 되고, 이 진동으로 생성된 음이 음향판에서 증폭

되어 특유의 음색을 가진 소리를 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건반을 눌러도 소리가 나지 않는다면 해머가 현을 때리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 ⑤ 2문단을 통해 해머가 현을 때리고 곧바로 떨어지지 않으면 해머의 방해로 현이 자유롭게 진동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해머의 방해로 현이 자유롭게 진동하지 못하면 연주자가 의도한 대로 현이 울리지 않을 수 있다.

3 답 ①

(X) 곱하기

◎ 이래서 정답

- ① 1문단을 통해 건반과 연결된 해머가 현을 때리면 현이 진동하게 되고, 이 진동으로 음이 생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2문단을 통해 댐퍼가 현에 붙으면 현이 진동하지 않아 음이 생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4문단에서 소스테누토 페달(㉓)을 밟은 채 건반을 누르면 해머가 때린 현의 댐퍼만이 현에서 떨어지게 된다고 하였다. 이로 보아 건반에서 손을 떼도 해당 건반에 대응하는 현의 댐퍼는 계속 현에서 떨어져 있게 될 것이므로, 해당 건반 음이 지속될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 왜 오답

- ②, ③ 4문단을 통해 소스테누토 페달을 밟은 채 건반을 누르면 해머가 때린 현의 댐퍼만이 현에서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건반에서 손을 떼면 해당 건반 음이 지속될 뿐, 댐퍼가 붙어 있는 다른 현은 진동하지 않아 다른 음이 공명하지 않을 것이다(②). 또한, 건반에서 손을 떼지 않으면 댐퍼가 현에서 떨어진 상태가 유지되어 소리가 울리게 되므로, 해당 건반 음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③).
- ④ 4문단에서 소프트 페달을 밟으면 해당 건반의 해머가 때리는 현의 수를 감소시켜 음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한 것으로 보아, 소프트 페달을 밟았을 때의 효과에 해당한다.
- ⑤ 4문단의 '댐퍼 페달을 밟고 건반을 누른다면 현의 진동은 건반을 누르지 않은 다른 현에도 공명을 일으킬 것이다.'로 보아, 댐퍼 페달을 밟았을 때의 효과에 해당한다.

문해 공식 적용 추론

단서 1	건반과 연결된 해머가 현을 때리면 현이 진동하게 되고, 이 진동으로 음이 생성됨.
단서 2	댐퍼가 현에 붙으면 현이 진동하지 않아 음이 생성되지 않음.
단서 3	소스테누토 페달을 밟은 채 건반을 누르면 해머가 때린 현의 댐퍼만이 현에서 떨어지게 됨.



추론	소스테누토 페달을 밟은 채 건반을 누르면 해당 건반에 대응하는 현의 댐퍼는 계속 현에서 떨어져 있게 될 것이므로, 건반에서 손을 떼도 해당 건반 음이 지속될 것임.
----	---------------------------------------------------------------------------------------------

4 답 ⑤

(X) 곱하기

| 보기 | 오려 보기 |



※ 단, ⑥를 연주할 때부터 댐퍼 페달을 밟았다가, ④를 연주하기 직전에 댐퍼 페달에서 발을 떼다.

◎ 이래서 정답

- ⑤ <보기>에서 ④를 연주하기 직전에 댐퍼 페달에서 발을 떼다고 하였으므로, ④를 연주할 때 페달은 특별한 기능을 하지 않는다. 2문단을 통해 건반을 누르고 있는 동안에는 해당 현의 댐퍼가 현에서 떨어져서 현이 계속 진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④를 연주할 때 누르고 있는 건반들의 댐퍼는 현에서 떨어져 있게 될 것이고, 해당 음들은 서로 공명을 일으킬 것이다.

❓ 왜 오답

- ① 2문단에서 액션은 건반을 누르고 있는 동안에는 해머에 의해 진동을 시작한 현이 계속 진동할 수 있게 하고, 그 건반에서 손을 떼면 댐퍼가 다시 현에 붙도록 하여 다른 현이 진동할 때 공명하지 않게 만든다고 하였다. 이로 보아 ⑥를 연주할 때, 건반을 손에서 떼면 해당 댐퍼가 다시 현에 붙어 진동하지 않게 될 것이다.
- ② 4문단에서 댐퍼 페달을 밟으면 모든 현에서 댐퍼가 일제히 떨어진다고 하였다. <보기>에서 ⑥를 연주할 때부터 댐퍼 페달을 밟는다고 하였으므로, 모든 현이 댐퍼에 붙지 않을 것이다.
- ③ 4문단에서 댐퍼 페달을 밟고 건반을 누른다면 현의 진동은 건반을 누르지 않은 다른 현에도 공명을 일으킬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댐퍼 페달은 연주된 음을 지속적으로 울리게 하여 음향을 풍부하게 하고 음과 음 사이를 부드럽게 연결한다고 하였다. ⑥와 ⑦은 댐퍼 페달을 밟고 연주하므로, ⑥에서 일어난 진동은 ⑦에서도 계속될 것이다.
- ④ <보기>에서 ④를 연주하기 직전에 댐퍼 페달에서 발을 떼다고 하였으므로, 건반을 손에서 떼 후에는 댐퍼가 해당 현에 붙어 해당 건반의 현도 울리지 않게 될 것이다.

⊕ 어휘

- 관여: 어떤 일에 관계하여 참여함.
- 음색: 음을 만드는 구성 요소의 차이로 생기는, 소리의 감각적 특성.

확인 1 답 ③

이래서 정답

③ 안전성이 높다(㉠)는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반복 측정 하여도 동일 조건하에서는 센서의 출력이 거의 일정하다'는 뜻이라고 하였다. 매일 맥박을 재는 것은 '반복 측정'에, 매일 아침 운동장을 열 바퀴 걸은 직후는 '동일 조건하'에, 맥박이 항상 분당 128~130회라는 것은 '출력이 거의 일정'한 것에 해당하므로 ㉠의 예로 가장 적절하다.

왜 오답

- ① 일회적인 일이므로 '반복 측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반복 측정'에 해당하지만 자세를 여러 가지로 바꾸었으므로 '동일 조건하'에 해당하지 않는다.

확인 2 답 (1) 크다면 (2) 줄이는

이래서 정답

(1), (2) ㉠의 사례는 외부성으로 인해 다른 경제 주체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이다. <보기 2>에 따르면 생산량을 Q_0 (이윤을 극대화하는 생산량)보다 줄이면 공장의 이윤은 줄어든다. 그런데 공장의 생산량을 줄이면 주민들의 피해도 줄어든다. 그러므로 생산량을 줄여 발생한 공장의 이윤 감소보다 주민들의 피해 감소가 더 크다면 공장에서 생산량을 줄이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바람직한 방법이 된다.

확인 3 답 ②

이래서 정답

② 지구, 달, 태양의 상대적인 위치(㉠)는 조수 간만(㉡)을 일으키고 달의 모양(㉢)에 변화를 주는 원인이 되므로 ㉠에 해당한다. 그리고 ㉡는 ㉠에 의해 나타난 현상이면서 다시 개펄의 형성 등과 같은 또 다른 일의 원인이 되므로 ㉠에 해당한다. ㉢는 ㉠에 의해 일어난 현상이지만 어떠한 인과적 역할도 하지 않는다는 점에 ㉠에 해당한다.

어휘

• 측정: 일정한 양을 기준으로 하여 같은 종류의 다른 양의 크기를 잴. 기계나 장치를 사용하여 재기도 한다.

거래 비용

주제 기업의 규모 변화를 설명하는 신제도학파의 거래 비용 이론 구성

1문단	신제도학파의 거래 비용 이론
2문단	거래 비용의 개념과 예
3문단	기업의 규모를 결정할 때 고려되는 요인인 총거래 비용
4문단	총거래 비용을 고려하여 기업의 최적 규모를 결정하는 예
5문단	거래 비용이 발생하는 요인 ① - 인간적 요인
6문단	거래 비용이 발생하는 요인 ② - 환경적 요인

1 답 ⑤

왜 오답

이래서 정답

⑤ 이 글은 기업의 규모 변화를 거래 비용을 통해 설명하고 있을 뿐, 기업의 규모와 생산 비용의 관계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왜 오답

- ① 3문단을 통해 거래 비용의 종류에는 시장 거래 비용과 조직 내 거래 비용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3문단에서 총거래 비용은 '시장 거래 비용과 조직 내 거래 비용을 합친 것'이라고 하였다.
- ③ 3문단에서 기업은 시장에서 재화를 거래할 때 발생하는 거래 비용인 '시장 거래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재화를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것에 대해 고려하게 된다고 한 것을 통해 시장 거래 비용을 줄이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1문단의 '기업들은 새로운 내부 조직을 만들거나 ~ 기업의 규모를 변화시키기도 한다.'와 4문단의 '기업은 시장 거래 비용을 줄이기 위해 ~ 내부 조직의 규모를 확대하여 부품을 자체 생산할 수 있고'를 통해 기업의 규모가 변화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2 답 ①

왜 오답

이래서 정답

① 2문단에서 거래 비용이란 재화를 생산하는 데 드는 생산 비용을 제외한, 경제 주체들이 재화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이라고 하였다. 도자기 장인이 직접 흙을 채취하여 도자기를 빚는 상황은 거래 상대방과의 거래 과정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거래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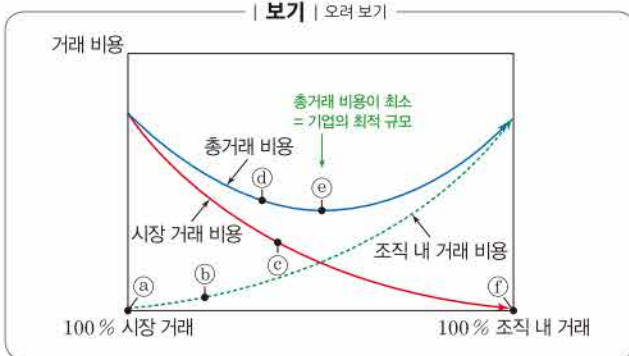
왜 오답

② 집을 구매하려는 사람이 집을 판매하는 사람을 탐색하는 상황은 2문단의 '거래 의사와 능력을 가진 상대방을 탐색하는 과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③ 재물값을 흥정하는 상황은 2문단의 '가격이나 교환 조건을 상대방과 협상'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④ 소비자가 통신사와 약정서를 작성하는 상황은 '가격이나 교환 조건을 상대방과 협상하여 계약을 하는 과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⑤ 제과 업체가 계약대로 밀가루가 제대로 공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상황은 '계약 후 계약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 탐 ③

(X) 곱하기



이래서 정답

- ③ 4문단의 '기업은 총거래 비용이 최소가 되는 지점까지 내부 조직의 규모를 확대하여'를 고려할 때, ④에서 ⑥로 총거래 비용이 줄었다면, 이는 내부 거래의 증가에 따라 시장 거래 비용이 감소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내부 조직의 규모를 축소하겠다는 결정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왜 오답

- ① 4문단에서 '기업이 부품을 자체 생산하여 내부 거래를 증가시키면 ~ 조직 내 거래 비용은 증가하게 된다.'라고 하였다. 이를 고려할 때 조직 내 거래 비용이 ①에서 ②로 증가했다면, 기업이 시장에서 조달했던 부품의 일부를 자체 생산하겠다는 결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4문단에서 '기업이 부품을 자체 생산하여 내부 거래를 증가시키면 시장 거래 비용은 감소'한다고 하였다. 이를 고려할 때 시장 거래 비용이 ③에서 ①로 감소했다면 기업이 내부 거래를 증가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4문단에서 '총거래 비용이 최소가 되는 지점까지 ~ 이 지점이 바로 기업의 최적 규모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이를 고려할 때 총거래 비용이 최소가 되는 지점인 ⑤가 기업의 최적 규모라고 할 수 있다.
- ⑤ ①은 100% 조직 내 거래만 이루어지는 상황이다. 3문단에서 시장 거래 비용은 '시장에서 재화를 거래할 때 발생하는 거래 비용'이라고 하였으므로 조직 내 거래만 이루어질 경우 시장 거래 비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4 탐 ⑤

(X) 곱하기

| 보기 | 오려 보기

- 사례 1: ... A 기업은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 중 볼트를 특정 기업을 선정하지 않고 다양한 기업을 통해 조달하고 있다.
- 사례 2: ... B 기업은 핵심 부품을 C 기업을 통해서만 조달하고 있어, ... 장기간의 계약 기간을 계약 조건으로 명시하였다.
- 사례 3: ... E 기업이 원재료의 품질 정보를 세부적으로 제공하지 않아 신제품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래서 정답

- ⑤ 5문단에서 '인간은 거래 상황 속에서 ~ 완벽하게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고 하였다. 따라서 E 기업이 원재료의 품질 정보를 세부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것이 D 기업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완벽하게 합리적인 선택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없다.

왜 오답

- ① A 기업은 특정 기업을 선정하지 않고 다양한 기업을 통해 볼트를 조달하고 있다. 그런데 6문단에서 자산 특수성은 '다양한 거래 주체를 통해 일반적으로 구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닌, 특정 거래 주체와의 거래에서만 높은 가치를 갖는 자산의 속성'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A 기업이 조달하는 볼트의 자산 특수성은 높지 않다고 할 수 있다.
- ②, ③ B 기업은 핵심 부품을 C 기업을 통해서만 조달하고 있으므로, 이 부품은 자산 특수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6문단에서 '자산 특수성이 높으면 경제 주체들은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고자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B 기업과 C 기업이 장기간의 계약 기간을 계약 조건으로 명시한 것은 상대가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을 염려하여(③) 거래에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②).
- ④ E 기업은 D 기업에 원재료의 품질 정보를 세부적으로 제공하지 않았는데, 6문단에서 '정보가 불확실한 거래 상황일수록 ~ 거래 비용은 높아지게 된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D 기업과 E 기업 간의 거래에서는 정보의 불확실성으로 거래 비용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문제 공식 적용 사례 활용_구체적 사례

〈보기〉의 사례		지문의 핵심 정보
1	A 기업은 볼트를 다양한 기업을 통해 조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 특수성이란 ~ 특정 거래 주체와의 거래에서만 높은 가치를 갖는 자산의 속성을 말한다.' • '자산 특수성이 높으면 ~ 안전장치를 마련하려 할 것이다.'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 기업은 핵심 부품을 C 기업을 통해서만 조달함. • 장기간의 계약 기간을 계약 조건으로 명시함. 	
3	E 기업이 D 기업에게 원재료의 품질 정보를 세부적으로 제공하지 않음.	'정보가 불확실한 거래 상황일수록 ~ 거래 비용은 높아지게 된다.'

5 답 ①

+ 더하기

㉠ 이래서 정답

① ㉠의 '이행'의 사전적 의미는 '실제로 행함.'이다. '둘 이상
의 일을 한꺼번에 행함.'은 '병행'의 사전적 의미이다.

㉡ 왜 오답

②, ③, ④, ⑤ ㉡의 '고려', ㉢의 '면모', ㉣의 '보완', ㉤의 '공
유'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다.

문해 공식 적용 어휘

이행(행하다 履+행하다 行)

계약 후 계약 이행 여부를 확인하
고 강제하는 과정 등에서 발생하
는 비용을 거래 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

병행(나란히 並+행하다 行)

계약 후 계약 병행 여부를 확인하
고 강제하는 과정 등에서 발생하
는 비용을 거래 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 어휘

- **자체적**: 외부적 영향 없이 내부적이거나 독립적인. 또는 그런 것.
- **명시**: 분명하게 드러내 보임.
- **차질**: 하던 일이 계획이나 의도에서 벗어나 틀어지는 일.

시전 09-B

본문 96~97

스윙바이

주제 우주 탐사선이 스윙바이를 통해 속도를 얻는 원리

구성

1문단	스윙바이의 개념
2문단	스윙바이를 통해 탐사선의 속도를 증가시키는 원리
3문단	스윙바이를 하는 탐사선 속도의 크기 변화와 행성 중력의 관계
4문단	스윙바이를 통한 탐사선의 속도 변화와 행성 공전 속도의 관계

1 답 ②

- 빼기

㉠ 이래서 정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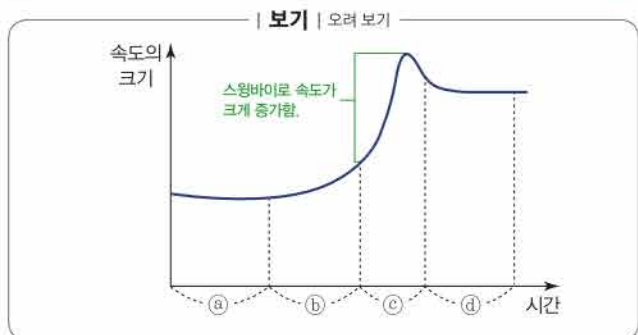
② 이 글에서 스윙바이를 하는 동안에 행성의 중력이 변한다
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 왜 오답

- 1문단에서 알 수 있듯, 탐사선이 지구에서 태양계 끝까지
날아가기 위해서는 일정 속도 이상에 이르러야 하는데 탐
사선의 추진력만으로는 이러한 속도에 도달하기 어렵다.
따라서 탐사선이 충분한 속도를 얻기 위하여 스윙바이를
하는 것이다.
- 2문단을 통해 스윙바이는 탐사선을 행성에 접근시켜 행
성의 공전을 이용하여 탐사선의 속도를 높이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4문단에서 스윙바이는 행성의 공전 속도를
흠쳐 오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스윙바이는
행성이 공전한다는 점을 이용한 기술이기 때문에 스윙바
이를 할 때 행성의 공전이 중요하다.
- 2문단에서 탐사선이 행성에서 멀어지는 방향이 행성의
공전 방향에 가까울수록 스윙바이를 통한 속도 증가의 효
과가 크다고 하였다.
- 4문단에 따르면 스윙바이를 통해 행성과 탐사선이 주고
받은 운동량은 같은데, 이때 서로 주고받은 운동량은 질
량과 속도 변화량을 곱한 것이다. 그러므로 행성에 비해
질량이 작은 탐사선은 속도가 크게 증가하지만 질량이 매
우 큰 행성은 속도가 거의 줄어들지 않는다.

2 답 ④

x 곱하기



④ 이래서 정답

- ④ ㉔에서는 탐사선의 속도의 크기 변화가 크지 않은 반면
㉕에서는 속도의 크기 변화가 매우 크다. 따라서 ㉔에서
와 ㉕에서의 속도의 크기 변화가 같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왜 오답

- ① ㉔에서는 탐사선 속도의 크기가 거의 변하지 않으므로, ㉔
는 탐사선이 행성의 중력장으로 진입하기 전의 구간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㉔에서 탐사선은 행성의 중력에 영향
을 받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 ② ㉔에서 탐사선의 속도 증가가 크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행성의 공전 방향과 탐사선의 진입 방향은 서로 다
름을 알 수 있다. 이 글의 〈그림〉을 참고할 때 이후 탐사
선은 곡선 궤도를 그리며 방향을 바꾸어 행성에 다가갈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㉔에서 탐사선은 점점 행성
에 가까워진다고 할 수 있다.
- ③ ㉔에서 탐사선은 크게 증가된 속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는 탐사선이 스윙바이를 마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
러므로 ㉔에서 탐사선이 행성으로부터 멀어져 간다고 이해
하는 것은 적절하다.
- ⑤ ㉔에서는 탐사선이 행성 가까이로 이동하면서 속도가 증
가하기는 하지만 속도 증가가 크지는 않으므로, 행성에
접근하는 탐사선의 진입 방향이 행성의 공전 방향과 다르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㉕에서는 탐사선의 속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탐사선이 곡선 궤도를 그리며
방향을 바꾸어 행성의 공전 방향에 가까워졌음을 알 수
있다.

3 답 ②

(X) 곱하기

④ 이래서 정답

- ② 스윙바이를 하는 탐사선은 행성의 공전에 의해 속도가 크
게 증가한다. 이때 '공전하는 행성'과 가장 유사한 것은
〈보기〉에서 궁수가 쏜 화살의 속도를 빨라지게 한 '달리
는 말'이다.

③ 왜 오답

- ① '어떤 사람'은 스윙바이의 상황과는 관련이 없다.
- ③ '화살'은 탐사선과 유사하다.
- ④ '정면에 있는 과녁'은 탐사선이 도착하고자 하는 목적지와
유사하다.
- ⑤ '옆에 서 있는 사람'은 스윙바이의 상황과는 관련이 없다.

문제 공식 적용 사례 활용_다른 사례

〈보기〉의 사례	달리는 말	화살	정면에 있는 과녁
스윙바이 상황	공전하는 행성	우주 탐사선	탐사선의 목적지

4 답 ③

→ 배기

④ 이래서 정답

- ③ 4문단에서 운동량 보존 법칙에 따라 스윙바이를 통해 탐
사선과 행성이 주고받은 운동량은 같다고 하였다. 이를 고
려할 때 ㉔은 탐사선이 얻은 운동량이 행성이 잃은 운동량
과 같다는 의미이다.

③ 왜 오답

- ①, ② 운동량 보존 법칙에 따라 스윙바이를 통해 탐사선과
행성이 주고받은 운동량은 같다. 이때 서로 주고받은 운
동량은 '질량×속도 변화량'이므로, 행성에 비해 질량이
작은 탐사선은 속도가 크게 증가하지만, 질량이 매우 큰
행성은 속도가 거의 줄어들지 않는다. 따라서 탐사선이
얻은 속도는 행성이 잃은 공전 속도보다 크다.
- ④, ⑤ 운동량 보존 법칙에 따라 스윙바이를 통해 탐사선과
행성이 주고받은 운동량은 같으므로, 어느 한쪽의 운동량
이 더 작거나 크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III

판하기

+ 어휘

- **궤도**: 행성, 혜성, 인공위성 따위가 중력의 영향을 받아 다른 천체의 둘레를 돌면
서 그리는 곡선의 길.
- **과녁**: 활이나 총 따위를 쏠 때 표적으로 만들어 놓은 물건.

프레게의 '고유 이름'의 의미

주제 '고유 이름'의 의미에 관한 프레게의 이론 구성

1문단	'고유 이름'의 의미에 대한 의미 지칭 이론의 견해와 이를 비판한 프레게
2문단	프레게의 주장을 설명하기 위한 예문
3문단	프레게의 주장 ① - 고유 이름은 지시체 그 자체가 아닌 '뜻'을 의미함.
4문단	프레게의 주장 ② - 고유 이름에 한정 기술구를 포함해야 함.
5문단	프레게의 주장 ③ - 언어 표현의 뜻은 개인이 지시체에 대해 갖는 관념과 다름.
6문단	프레게 이론의 의의

1 답 ①

더하기

이래서 정답

- ① 이 글에서는 고유 이름이 의미하는 바를 지시체 자체로 본 기존의 의미 지칭 이론을 비판하며 고유 이름이 의미하는 바를 새롭게 설명한 프레게의 이론을 '셋별'과 '개밥 바라기' 등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왜 오답

- ② 프레게가 주장한 이론을 소개하고 있으나, 그 변천 과정을 통시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지는 않다.
- ③ 의미 지칭 이론을 비판한 프레게의 이론을 제시하고 있을 뿐, 이 두 이론을 절충한 새로운 이론을 소개하고 있지는 않다.
- ④ 의미 지칭 이론에 대한 프레게의 비판적 관점을 제시하고 있을 뿐,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각 관점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있지 않다.
- ⑤ 프레게의 이론을 소개하고 있을 뿐, 프레게의 이론에 제기된 문제점을 수용하는 과정을 단계별로 밝히고 있지는 않다.

2 답 ③

곱하기

보기 | 오려 보기

우리 가족들은 천문대에 가서 ㉠밤하늘의 달을 보았다. ...
㉡우리 가족이 나는 대화 속 망원경 렌즈에 맺힌 달의 형상은 모두 같았지만, 그날 망원경의 렌즈를 거쳐 ㉢망막에 맺힌 달은 우리 가족에게 서로 다른 추억으로 기억되고 있다.

이래서 정답

- ③ [A]에서는 프레게가 주장한 지시체, 관념, 뜻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프레게는 관념은 '지시체에서 개인이 감각적 경험을 통해 얻게 된 주관적인 내적 이미지'이고, 뜻은 '언어 공동체가 공유할 수 있는 객관적으로 합의된

재산'이라고 하였다. 이를 고려할 때 <보기>에서 밤하늘의 달(㉠)은 우리 가족들이 관찰한 대상이므로 '지시체'에 해당한다. 그리고 가족들이 하나의 망원경의 렌즈에 맺힌 같은 형상의 달의 모습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었으므로 ㉡는 '뜻'에 해당하며, 달은 가족에게 서로 다른 추억으로 기억되고 있으므로 ㉢는 '관념'에 해당한다.

왜 오답

- ①, ②, ④, ⑤ 프레게의 입장에서 ㉠~㉢를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문제 공식 적용 사례 활용_다른 사례

<보기>의 사례	프레게의 이론
㉠ 밤하늘의 달	지시체: 표현이 지칭하는 것
㉡ 우리 가족이 나는 대화 속 망원경 렌즈에 맺힌 달의 형상은 모두 같았지만	뜻: 언어 공동체가 공유할 수 있는 객관적으로 합의된 재산
㉢ 망막에 맺힌 달은 우리 가족에게 서로 다른 추억	관념: 지시체에서 개인이 감각적 경험을 통해 얻게 된 주관적인 내적 이미지

3 답 ③

곱하기

이래서 정답

- ③ 5문단에 따르면 관념은 지시체에서 개인이 감각적 경험을 통해 얻게 된 주관적인 내적 이미지이다. 주관적인 내적 이미지는 일치할 수 없으므로 ㉡와 ㉣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이유로 적절하지 않다. ㉡와 ㉣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이유는 ㉡의 뜻이 공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왜 오답

- ① <보기>에서 ㉡와 ㉣의 지시체는 ㉡라고 하였으므로, ㉡와 ㉣는 ㉡를 서로 다른 제시 방식으로 지칭한 고유 이름 들임을 알 수 있다. 3문단에서 동일한 지시체의 서로 다른 제시 방식인 '셋별'과 '개밥바라기'는 다른 뜻을 가진다고 한 것을 참고할 때, ㉡와 ㉣는 동일한 지시체를 지칭하지만 뜻이 서로 다를 수 있다.
- ② 1문단에서 고유 이름은 특정 인물이나 사물 등을 나타낸다고 한 것과 4문단의 '프레게는 고유 이름에 한정 기술구도 포함되어야 ~ 이런저런 기호로 구성된 언어 표현이다.'를 고려할 때, 몇 개의 단어와 기호로 구성된 한정 기술구인 ㉡와 ㉣는 고유 이름으로 볼 수 있다.
- ④ ㉡와 ㉣는 한정 기술구인데, 프레게는 한정 기술구도 고유 이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동일한 지시체를 서로 다른 제시 방식으로 제시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a와 c의 교점'이라는 한정 기술구도 지시체 ㉡를 가리키는 제시 방식으로 볼 수 있다.
- ⑤ 2~3문단에 따르면 프레게는 동일한 지시체의 서로 다른 제시 방식은 다른 뜻을 가진다고 보았다. 프레게의 주장에 따르면 'O는 O이다.'라는 문장은 2문단의 '셋별은 셋별

이다.’와 같이 동어의 반복이기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문장이다. 그러므로 ‘O는 a와 b의 교점이다.(㉔)’와는 인식적 차이가 발생한다.

4 답 ③

(X) 곱하기

◎이래서 정답

- ③ ㉔에서 ‘유니콘’은 지시체가 존재하지 않는 허구적인 대상의 고유 이름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1문단에 따르면 의미 지칭 이론에서 고유 이름이 의미하는 바는 지시체 자체이므로, 지시체가 존재하지 않는 허구적 대상의 고유 이름이 의미하는 바는 설명할 수 없게 된다.

❖왜 오답

- ① 의미 지칭 이론에서 고유 이름이 다수의 지시체를 의미한다고 보았는지는 알 수 없다.
 ②, ④ 의미 지칭 이론은 고유 이름과 지시체가 서로 관련이 없다거나(②), 서로 다른 정보를 제공한다고(④) 본 것이 아니라, 고유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지시체 그 자체라고 보았다.
 ⑤ 1문단에 따르면 언어 철학에서 고유 이름은 언어와 대상의 관계를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언어 표현이다. 따라서 의미 지칭 이론에서 고유 이름으로는 언어와 대상의 관계를 밝힐 수 없다고 본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어휘

- 제기: 의견이나 문제를 내어놓음.
- 천문대: 천문 현상을 관측하고 연구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 또는 그런 기관.
- 합의: 서로 의견이 일치함, 또는 그 의견.

법령에서의 불확정 개념

주제 법조문에 사용된 불확정 개념과 이에 대한 재량 판단

구성

1문단	‘불확정 개념’의 개념과 민법에서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예
2문단	민법에서의 불확정 개념의 적용
3문단	행정법에서의 불확정 개념의 적용
4문단	행정청의 재량 준칙 설정과 준수

1 답 ④

(-) 빼기

◎이래서 정답

- ④ 3문단에서 행정 법령에 근거한 행정 작용에는 기속 행위와 재량 행위가 있는데, 법령에서 불확정 개념이 사용되면 이에 근거한 행정 작용은 대개 재량 행위라고 하였다. 따라서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행정 법령에 근거한 행정 작용은 재량 행위인 경우보다 기속 행위인 경우가 더 많다고 볼 수 없다.

❖왜 오답

- ①, ③ 1문단에서 법령의 조문은 요건과 효과로 구성되는데, 법조문에는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야 그 상황에 맞는 진정한 의미가 파악되는(③) 불확정 개념이 사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①).
 ② 1문단에서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법조문에 대해 ‘법원은 요건과 효과를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하였다.
 ⑤ 1~2문단에서는 개인 간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에서의 불확정 개념의 사용에 대해 다루고 있고, 3~4문단에서는 행정청이 행하는 법 집행 작용을 규율하는 행정 법령에서의 불확정 개념의 사용에 대해 다루고 있다. 따라서 불확정 개념은 두 경우에 모두 사용된다고 볼 수 있다.

2 답 ⑤

(-) 빼기

◎이래서 정답

- ⑤ 4문단의 ‘특정 요건하에 재량 준칙대로 특정한 내용의 적법한 행정 작용이 반복되어 ~ 동일한 내용의 행정 작용을 해야 한다.’를 참고할 때, 특정 요건에서 적용된 선례가 없으면 행정 관행이 생길 수 없으며, 이 경우 행정청은 동일한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재량 준칙을 따르지 않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왜 오답

- ① 4문단에서 알 수 있듯 재량 준칙은 행정청이 재량으로 재량 행사의 기준을 명확히 정한 것으로, 법령은 아니다. 한편 1문단을 참고할 때, ‘일의적이지 않은 개념’은 불확정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재량 준칙이 불확정 개념으로 규

정되면 재량 행사의 기준을 명확히 정하려는 재량 준칙의 의도와 부합하지 않게 되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② 재량 준칙으로 정해진 내용대로 재량을 행사하는 행정 작용은 기속 행위가 아니라 재량 행위이다.
- ③ 행정청이 재량으로 재량 행사의 기준을 명확히 정한 것이 재량 준칙이다. 이 준칙대로 특정한 내용의 적법한 행정 작용이 반복되어 행정 관행이 생긴 후에, 행정청은 같은 요건이 충족되면 그 재량 준칙을 따라야 한다. 따라서 재량 준칙으로 규정된 재량 행사 기준은 반복되어 온 적법한 행정 작용 이전에 정해진다고 볼 수 있다.
- ④ 행정청이 재량으로 재량 행사의 기준을 명확히 정한 것이 재량 준칙이다. 재량 준칙이 정해질 때 행정청이 재량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재량 준칙이 정해져야 행정청이 재량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3. ②

※ 급하기

| 보기 | 오래 보기

갑은 을에게 물건을 팔고 그 대가로 100을 받기로 하는 매매 계약을 했다. 그 후 갑이 계약을 위반하여 을은 80의 손해를 입었다. 이와 관련하여 세 가지 상황이 있다고 하자.

(가) 갑과 을 사이에 위약금 약정이 없었다.

(나) 갑이 을에게 위약금 100을 약정했고, 위약금의 성격이 무엇인지 증명되지 못했다.

(다) 갑이 을에게 위약금 100을 약정했고, 위약금의 성격이 위약벌임이 증명되었다.

① 이래서 정답

- ② 1문단에서 '위약금의 성격이 둘 중 무엇인지 증명되지 못하면 손해 배상 예정액으로 다루어진다.'라고 하였으므로 (나)에서 위약금 100은 손해 배상 예정액으로 볼 수 있다. 이때 을의 손해가 80임이 증명되었으나, 손해 배상 예정액이 100으로 정해져 있었으므로 갑은 을에게 정해진 손해 배상금 100을 지급해야 한다. 그리고 '손해 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라는 조문에 따라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다.

② 왜 오답

- ① 2문단에서 '계약 위반이 발생하면,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채권자가 손해 액수를 증명해야 그 액수만큼 손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였다. (가)에서는 위약금 약정이 없었으므로, 을의 손해가 얼마인지 증명되지 못한 경우 갑은 을에게 80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 ③ (나)에서 위약금 100은 손해 배상 예정액이다. 손해 배상 예정액이 정해져 있었다면 채권자는 손해 액수를 증명하지 않아도 손해 배상 예정액만큼 손해 배상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갑은 을에게 100을 지급해야 한다. 그리고 손해 배상 예정액인 100은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

- ④ (다)에서 위약금 100은 위약벌임이 증명되었다고 하였다. 2문단에 따르면, 위약벌에 해당하는 위약금은 법원이 감액할 수 없고, 이때 채권자가 손해 액수를 증명하면 손해 배상금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갑은 을에게 위약금 100과 손해 액수 80을 합친 180을 지급해야 하고, 법원은 이를 감액할 수 없다.
- ⑤ (다)에서 을의 손해가 얼마인지 증명되지 못한 경우, 갑은 을에게 위약벌에 해당하는 위약금 100을 지급해야 하고, 법원은 이를 감액할 수 없다.

문해 공식 적용 사례 활용_구체적 사례

〈보기〉의 사례		지문의 핵심 정보
(가)	위약금 약정이 없었음.	'계약 위반이 발생하면,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채권자가 손해 액수를 증명해야 그 액수만큼 손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나)	• 위약금 100을 약정함. • 위약금의 성격이 증명되지 못함.	• '위약금의 성격이 둘 중 무엇인지 증명되지 못하면 손해 배상 예정액으로 다루어진다.' • '손해 배상 예정액이 정해져 있었다면 채권자는 손해 액수를 증명하지 않아도 손해 배상 예정액만큼 손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다)	• 위약금 100을 약정함. • 위약금의 성격 = 위약벌	'위약금이 위약벌임이 증명되면 채권자는 위약벌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받을 수 있고 ~ 채권자가 손해 액수를 증명하면 손해 배상금도 받을 수 있다.'

4. ⑤

※ 더하기

① 이래서 정답

- ⑤ ③과 ⑤의 '지키다'는 모두 '규정, 약속, 법, 예의 따위를 어기지 아니하고 그대로 실행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② 왜 오답

- ① ③의 '맞다'는 '어떤 행동, 의견, 상황 따위가 다른 것과 서로 어긋나지 아니하고 같거나 어울리다.'의 의미로, ①의 '맞다'는 '어떤 대상의 내용, 정체 따위의 무엇임이 틀림이 없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 ② ⑥의 '들다'는 '설명하거나 증명하기 위하여 사실을 가져다 대다.'의 의미로, ②의 '들다'는 '적금이나 보험 따위의 거래를 시작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 ③ ④의 '받다'는 '다른 사람이 주거나 보내오는 물건 따위를 가지다.'의 의미로, ③의 '받다'는 '다른 사람이나 대상이 가하는 행동, 심리적인 작용 따위를 당하거나 입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 ④ ④의 '고르다'는 '여럿 중에서 가려내거나 뽑다.'의 의미로, ④의 '고르다'는 '울퉁불퉁한 것을 평평하게 하거나 들쭉날쭉한 것을 가지런하게 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확인 1 답 (1) L (2) C (3) T

이래서 정답

- (1) 이 자료는 '그림'이다. 그림은 제목과 각 부분의 명칭, 설명 등의 항목을 살펴봄에 이해한다.
- (2) 이 자료는 '그래프'이다. 그래프는 가로축, 세로축이 가리키는 바와 주요 지점의 의미를 파악하며 이해한다.
- (3) 이 자료는 '표'이다. 표는 표 머리의 가로, 세로 항목에 제시된 요소에 주목하여 이해한다.

확인 2 답 (1) X (2) O

이래서 정답

- (1) <보기>에서 부분음 중 가장 진동수가 작은 것이 기본음이라고 하였으므로, <그림>에서 진동수가 가장 작은 110 Hz가 기본음이다.
- (2) <그림>은 세로 막대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늘어서 있고, 부분음들의 진동수가 110 Hz, 220 Hz ... 550 Hz로 정수 배로 늘어난다. 따라서 <그림>은 고른음의 소리 스펙트럼을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확인 3 답 ①

이래서 정답

- ① 가중치는 해당 품목이 차지하는 중요도에 따라 부여되는데, 품목별 가중치를 가격 지수에 곱한 후 합하여 얻어지는 가중 물가 지수는 거래 비중이 큰 품목의 가격 변동이 물가 지수에 더 많이 영향을 미치도록 계산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따르면 거래 비중은 가중치가 높을수록 크므로, A>B>C의 순으로 크다.

왜 오답

- ② 가중 물가 지수는 거래 비중이 큰 품목의 가격 변동이 물가 지수에 더 많이 영향을 미치도록 계산한 것이므로, 가중치가 가장 큰 A의 가격 변동이 물가 지수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
- ③ 단순 물가 지수는 모든 품목이 전체 물가에 동일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전제한다고 하였으므로, 단순 물가 지수에서는 B, C의 가격 변동이 전체 물가에 동일한 영향을 준다고 전제한다.

어휘

• 비중: 다른 것과 비교할 때 차지하는 중요도.

식욕 조절 원리

주제 식욕 증추와 전두 연합 영역이 식욕을 조절하는 원리

구성

1문단	식욕에 영향을 미치는 식욕 증추
2문단	몸속 영양분의 상태에 따라 섭식 증추와 포만 증추가 식욕을 조절하는 원리
3문단	식욕에 영향을 미치는 전두 연합 영역
4문단	전두 연합 영역이 식욕을 조절하는 원리

1 답 ③

이래서 정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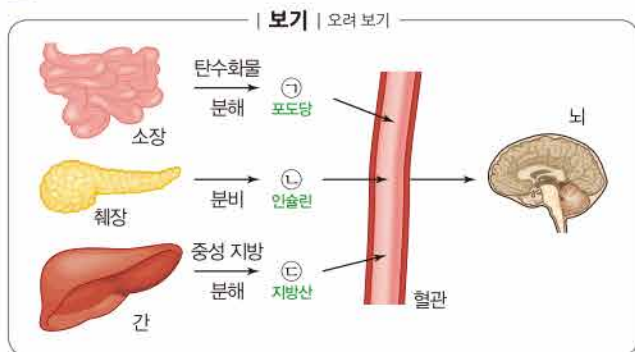
- ③ 4문단에서 전두 연합 영역의 신경 세포가 '맛있다'와 같은 신호를 섭식 증추로 보내면, 섭식 증추에서 옥렐신이라는 물질이 나온다고 하였다. 따라서 위의 운동에 관여하는 옥렐신은 전두 연합 영역이 아니라 섭식 증추에서 분비된다고 할 수 있다.

왜 오답

- ① 1문단에서 식욕은 음식을 먹고 싶어 하는 욕망으로,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양분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였다.
- ② 1문단의 '식욕은 기본적으로 뇌의 시상 하부에 있는 식욕 증추의 영향을 받는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④ 4문단의 "사람들이 '이젠 더 이상 못 먹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 특정한 맛에 질렸기 때문일 수도 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⑤ 3문단에서 전두 연합 영역은 정신적이고 지적인 활동을 담당하는 곳이지만 식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2 답 ④

X) 급하기



이래서 정답

- ④ 식사를 통해 섭취된 탄수화물이 소장에서 분해되어 포도당(①)으로 변해 혈액 속으로 흡수되어 혈액 중 ①의 농도가 높아지면, 이를 줄이기 위해 췌장에서 인슐린(②)이 분비된다. 그리고 ①과 ②은 함께 혈액을 타고 뇌의 시상 하

부로 이동하여 포만 중추의 작용을 촉진하고 섭식 중추의 작용을 억제한다. 반면에 공복 상태가 길어지면 ㉠의 양이 줄어들고, 피부 아래에 저장되어 있던 중성 지방이 간에서 분해되는데 이 과정에서 지방산(㉡)이 생긴다. 이후 ㉡은 혈액을 타고 뇌의 시상 하부로 이동하여 섭식 중추의 작용을 촉진하고 포만 중추의 작용은 억제한다. 따라서 공복 상태가 길어지면 혈관 속에 ㉠의 양은 줄어들고 ㉡의 양은 늘어난다.

③ 왜 오답

- ① 혈관 속에 포도당(㉠)의 양이 늘어나면 인슐린(㉢)이 분비된다.
- ② 혈관 속에 포도당(㉠)과 인슐린(㉢)의 양이 많아지면 포만 중추의 작용을 촉진하고 섭식 중추의 작용은 억제한다. 포만 중추는 배가 부른 느낌이 들게 하므로, 배가 고픈 느낌이 들지는 않을 것이다.
- ③ 공복 상태가 길어지면 지방산(㉡)이 시상 하부로 이동하여 섭식 중추의 작용을 촉진하고 포만 중추의 작용을 억제할 뿐, 이 과정에서 포도당(㉠)과 지방산(㉡)이 시상 하부의 명령을 식욕 중추에 전달하지는 않는다.
- ⑤ 인슐린(㉢)은 혈액 중 포도당의 양을 줄이기 위해 췌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다. 피부 아래의 조직에 중성 지방의 형태로 저장되는 것은 지방이다.

문해 공식 적용 시각 자료 그림

〈보기〉의 그림		[A]의 핵심 정보
㉠	포도당	식사를 통해 섭취된 탄수화물이 소장에서 분해됨. → 혈액 내 포도당 농도 ↑ →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 → 포도당과 인슐린이 시상 하부로 이동 → 포만 중추 작용 ↑, 섭식 중추 작용 ↓
㉢	인슐린	
㉡	지방산	중성 지방이 간에서 분해됨. → 지방산 생성 → 지방산이 시상 하부로 이동 → 포만 중추 작용 ↓, 섭식 중추 작용 ↑

3 답 ④

→ 배가

① 이래서 정답

- ④ 1문단의 '우리 몸이 영양분을 필요로 하는 상태가 되면 섭식 중추는 ~ 영양분의 섭취가 늘어나면, 포만 중추가 작용해서 식욕이 억제된다.'를 고려할 때, 배가 찬 상태(㉡)에서 '이젠 더 이상 못 먹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포만 중추의 작용이 활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렇게 배가 차 더 이상 음식을 못 먹겠다고 생각하면서도 디저트를 먹는 현상(㉢)은 모순적이라 볼 수 있다.

③ 왜 오답

- ①, ② 섭식 중추의 작용이 억제되므로 ㉢은 모순적이다.
- ③ 포만 중추의 작용이 활발하므로 ㉡은 모순적이다.
- ⑤ 섭식 중추와 포만 중추의 작용이 반복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4 답 ②

× 글하기

① 이래서 정답

- ② 3문단에서 전두 연합 영역은 '음식의 맛, 냄새 등 음식에 관한 다양한 감각 정보를 정리해 종합적으로 기억한다.'라고 하였으므로, A가 뷔페의 과자가 맛있었다고 떠올린 것은 섭식 중추가 아니라 전두 연합 영역의 작용에 따른 것이다.

③ 왜 오답

- ① 4문단에서 '오렉신은 위의 운동에 관련되는 ~ 다시 새로운 음식이 들어갈 공간을 마련'한다고 한 것을 고려할 때 적절한 진술이다.
- ③ 3문단에서 '영양분의 섭취와 상관없이 취향이나 기분에 좌우되는 식욕도 있다'고 한 것을 고려할 때 적절한 진술이다.
- ④ 3문단에서 전두 연합 영역은 '맛이 없어도 건강을 위해 음식을 섭취하는 것과 같이, 먹는 행동을 이성적으로 조절하는 일'을 담당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 ⑤ 1문단에서 섭식 중추는 배가 고픈 느낌이 들게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A와 B는 음식을 먹고 디저트를 둘러보기 전까지 배가 부르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섭식 중추의 작용이 점점 억제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 어휘

- **분비**: 샘세포(동물의 조직 안에서 샘의 기능이 활발한 세포)의 작용에 의하여 만든 액즙을 배출관으로 보내는 일. 외분비와 내분비가 있다.
- **모순적**: 어떤 사실의 앞뒤, 또는 두 사실이 이치상 어긋나서 서로 맞지 않는 것.

전자 요금 징수 시스템

주제 전자 요금 징수 시스템(ETC)의 작동 과정과 데이터 처리 방식 구성

1문단	고속 도로 이용 요금 납부 방법 중 하나인 전자 요금 징수 시스템(ETC)
2문단	전자 요금 징수 시스템의 작동 과정
3문단	전자 요금 징수 시스템의 데이터 처리 방식인 시분할 방식
4문단	동기식 시분할 방식의 원리와 장단점
5문단	비동기식 시분할 방식의 원리와 장단점
6문단	전자 요금 징수 시스템의 변화

1 답 ④

→ 백기

이래서 정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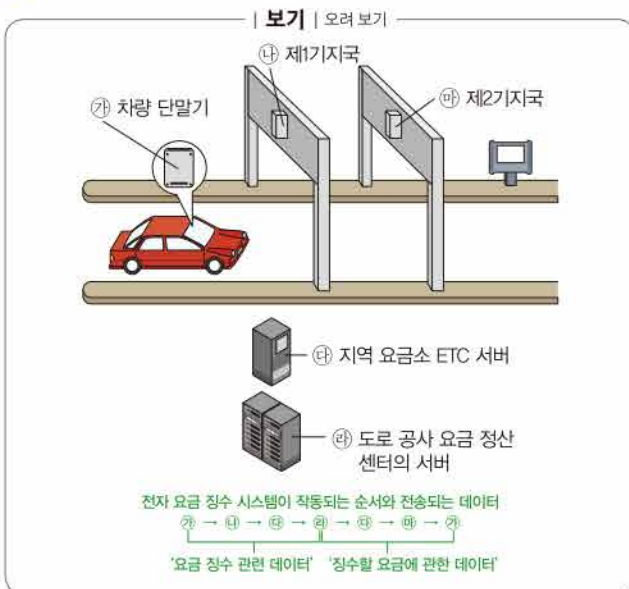
- ④ 3문단에서 타임 슬롯은 '동일한 크기로 분할된 시간의 단위'라고 하였다. 그리고 데이터에 할당된 타임 슬롯들에 의해 구성된 하나의 집합체는 '프레임'이라고 하였다.

왜 오답

- ① 1문단에서 전자 요금 징수 시스템(ETC)을 이용하면 차량이 달리는 중에 자동으로 요금 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편리하다고 하였다.
- ② 3문단에서 '차량 단말기와 기지국 간에는 무선으로 데이터 전송이 이루어진다.'라고 하였다.
- ③ 3문단에서 타임 슬롯은 차량이 진입하지 않아도 항상 만들어진다고 하였다.
- ⑤ 5문단에서 비동기식 시분할 방식은 '전송되는 모든 데이터마다 그 데이터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주소 필드를 포함시켜 프레임이 구성된다.'라고 하였다.

2 답 ⑤

× 곱하기



이래서 정답

- ⑤ [A]에 따르면 '징수할 요금에 관한 데이터'는 도로 공사 요금 정산 센터의 서버(㉔)에서 지역 요금소 ETC 서버(㉓)를 거쳐 두 번째 게이트에 설치된 제2기지국(㉒)을 경유하여 차량 단말기(㉑)로 전송된다. 따라서 ㉒로 전송되는 데이터는 '요금 징수 관련 데이터'가 아니라, '징수할 요금에 관한 데이터'이다.

왜 오답

- ①, ② 차량 단말기(㉑)에서 제1기지국(㉒)으로 '요금 징수 관련 데이터'가 전송되면(①), 제1기지국(㉒)은 이를 임시 저장소에 보관하면서 거의 동시에 지역 요금소 ETC 서버(㉓)로 전송한다(②).
- ③, ④ 지역 요금소 ETC 서버(㉓)는 '요금 징수 관련 데이터'를 분석한 후 도로 공사 요금 정산 센터의 서버(㉔)로 전송해서 '징수할 요금에 관한 데이터'를 찾으려 요청한다. ㉔에서 찾은 '징수할 요금에 관한 데이터'는 지역 요금소 ETC 서버(㉓)를 거쳐 제2기지국(㉒)을 경유하여(④) 차량 단말기(㉑)로 전송된다(③).

문제 공식 적용 시각 자료_그림

통신 과정	전송되는 데이터
1 ㉑ → ㉒	'요금 징수 관련 데이터'
2 ㉒ → ㉓	㉑로부터 전송받은 '요금 징수 관련 데이터'
3 ㉓ → ㉔	• ㉓에서 분석한 '요금 징수 관련 데이터' • '징수할 요금에 관한 데이터'를 찾을 것을 요청함.
4 ㉔ → ㉓ → ㉒ → ㉑	㉔가 찾은 '징수할 요금에 관한 데이터'

3 답 ③

× 곱하기

보기 | 오래 보기

[데이터의 전송 유무]

데이터의 종류 차량 구분(시분할 방식)	I-1	I-2	I-3	I-4
1번 차량 (동기식)	유	무	유	유
2번 차량 (비동기식)	유	유	유	무

※ 통신 규약에 따라 정해진 내용

I. 데이터 종류의 순서	I-1. 차량이 정상적으로 진입함. I-2. 후불 카드를 사용함. I-3. 차량 소유주와 카드 소지자가 일치함. I-4. 요금 감면 대상임.
II. 데이터의 전송 유무	유: 데이터 종류에 해당하는 내용과 일치함. 무: 데이터 종류에 해당하는 내용과 불일치함.

[타임 슬롯(TS)의 흐름]



③ 이래서 정답

③ TS₄는 1번 차량의 I-4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할당된 타임 슬롯이다. 1번 차량은 동기식 시분할 방식에 해당하는 데, 'I-4. 요금 감면 대상임.'이라는 데이터가 전송되었으므로 TS₄에는 요금 감면 대상이라는 데이터가 담겨 있다. 한편 2번 차량은 비동기식 시분할 방식에 해당하는 데, 'I-4. 요금 감면 대상임.'이라는 데이터가 전송되지 않았다. 5문단에서 '비동기식 시분할 방식은 전송되는 데이터가 없는 경우 타임 슬롯을 비워 두지 않고 다음 순서에 해당하는 데이터에 타임 슬롯이 할당된다.'라고 하였으므로, TS₈에는 요금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데이터가 담기지 않는다.

③ 왜 오답

- ① TS₂는 1번 차량의 I-2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할당된 타임 슬롯이다. 1번 차량은 'I-2. 후불 카드를 사용함.'이라는 데이터가 전송되지 않았으므로, 후불 카드를 사용하는 차량이 아니며 TS₂에 데이터가 담기지 않고 비워진다.
- ② TS₃은 1번 차량의 I-3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TS₇은 2번 차량의 I-3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할당된 타임 슬롯이다. 1번 차량과 2번 차량은 모두 'I-3. 차량 소유주와 카드 소지자가 일치함.'이라는 데이터가 전송되었으므로, TS₃과 TS₇에서 모두 차량 소유주와 카드 소지자가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TS₁은 1번 차량의 I-1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할당된 타임 슬롯이다. 1번 차량은 'I-1. 차량이 정상적으로 진입함.'이라는 데이터가 전송되었으므로, TS₁을 통해 1번 차량이 정상적으로 진입했음을 파악할 수 있다. 한편 TS₇은 2번 차량의 I-3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할당된 타임 슬롯이다. 2번 차량은 'I-3. 차량 소유주와 카드 소지자가 일치함.'이라는 데이터가 전송되었으므로, TS₇을 통해 차량 소유주와 카드 소지자가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TS₅는 2번 차량의 I-1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할당된 타임 슬롯이다. 2번 차량은 'I-1. 차량이 정상적으로 진입함.'이라는 데이터가 전송되었으므로, TS₅를 통해 차량이 정상적으로 진입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TS₆은 2번 차량의 I-2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할당된 타임 슬롯이다. 2번 차량은 'I-2. 후불 카드를 사용함.'이라는 데이터가 전송되었으므로, TS₆을 통해 후불 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어휘

- **경유**: ① 어떤 곳을 거쳐 지남. ② 사무 절차에서 어떤 부서를 거쳐 지남.
- **후불**: 물건을 먼저 받거나 일을 모두 마친 뒤에 돈을 치름.

인공 지능 음성 언어 비서 시스템의 자연어 처리 기술

주제 인공 지능 음성 언어 비서 시스템이 자연어를 처리하는 두 가지 방식

구성

1문단	인공 지능 음성 언어 비서 시스템의 자연어 처리 기술
2문단	교정 사전과 어휘별 통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잘못된 문자열을 교정하는 철자 오류 보정 방식 ①
3문단	교정 사전과 어휘별 통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잘못된 문자열을 교정하는 철자 오류 보정 방식 ②
4문단	올바른 문장에서 추출한 통계 데이터와 비교하여 잘못된 띄어쓰기를 보정하는 띄어쓰기 오류 보정 방식
5문단	보정의 정확도와 데이터 처리 속도 향상을 위한 연구

1 답 ③

③ 이래서 정답

③ 2문단에서 '실크'가 '실'으로 인식될 경우, '실'이라는 음절이 국어에 쓰이지 않으므로 '실크'로 바꾼다고 한 것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철자 오류 보정 방식의 첫 번째 단계인 '전처리'에서는 국어에 쓰이는 음절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처리한다. 그러나 두 번째 단계인 '오류 문자열 판단'에서는 입력된 문장을 어절 단위의 문자열로 구분하여 처리한다고 하였으므로, 각 단계마다 입력된 문장을 음절 단위로 구분하여 데이터를 처리한다고 할 수 없다.

③ 왜 오답

- ① 1문단에서 음성 언어 비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음성이 올바르게 인식되어야 하는데, 입력된 음성 언어를 문자 언어로 변환한 다음 통계 데이터를 활용하여 단어나 문장의 오류를 보정하는 자연어 처리 기술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이를 고려하면 잘못 입력된 문장이 보정되지 않으면 음성 언어 비서 시스템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것임을 알 수 있다.
- ② 1문단에서 '입력된 음성 언어를 문자 언어로 변환한 다음, 통계 데이터를 활용하여 단어나 문장의 오류를 보정'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 ④ 4문단에서 '문장의 처음과 끝은 공백이 있는 것으로 처리한다.'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 ⑤ 5문단의 '보정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통계 데이터의 양을 늘리는 것이 요구되지만, 이 경우 데이터 처리 속도가 감소하게 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문제 공식 적용 세부 정보

지문	선지 ③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처리'는 ~ '실'이라는 음절이 국어에 쓰이지 않으므로 '실크'로 바꿔 준다. • '오류 문자열 판단' 단계로 ~ 입력된 문장을 어절 단위의 문자열로 구분하여 	철자 오류 보정 방식은 첫 단계마다 입력된 문장을 '전처리' 단계에서 음절 단위로 구분하여 데이터를 처리한다.

≠
세부 정보
불일치

2 답 ⑤

(X) 곱하기

| 보기 | 오려 보기

- ㄱ. ㉠의 '생(01)' > ㉡의 '생(00)'
- ㄴ. ㉢의 '학생(100)' < ㉠의 '학생(101)'
- ㄷ. ㉠의 '이다(101)' > ㉢의 '이다(001)'
- ㄹ. ㉢의 '생이다(0001)' < ㉠의 '생이다(0101)'
- ㅁ. ㉢의 '학생이(1000)' > ㉠의 '학생이(1010)'

이래서 정답

- ⑤ 4문단에 따르면 띄어쓰기 오류 보정 방식에서는 입력된 문장의 띄어쓰기를 이진법으로 변환한 다음 올바르게 띄어쓰기가 구현된 문장에서 추출한 통계 데이터와 비교하여 빈도수가 높은 띄어쓰기 결과에 맞춰 오류를 보정한다. 이를 고려할 때 <보기>는 ㉠의 '학생 이다'를 ㉢의 '학생이다'로 고쳤으므로, 통계 데이터에서 '㉢의 빈도수 > ㉠의 빈도수'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보기>의 통계 데이터 빈도수 비교 결과 중 띄어쓰기 오류 보정이 일어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의 '학생이(1000)'가 ㉠의 '학생이(1010)'보다 빈도수가 높은 ㅁ이다.

왜 오답

- ① ㄱ은 ㉠의 '생(01)'이 ㉡의 '생(00)'보다 크므로 띄어쓰기 오류 보정이 일어난 이유로 적절하지 않다.
- ② ㄴ은 ㉢의 '학생(100)'이 ㉠의 '학생(101)'보다 작으므로 띄어쓰기 오류 보정이 일어난 이유로 적절하지 않다.
- ③ ㄷ은 ㉠의 '이다(101)'가 ㉢의 '이다(001)'보다 크므로 띄어쓰기 오류 보정이 일어난 이유로 적절하지 않다.
- ④ ㄹ은 ㉢의 '생이다(0001)'가 ㉠의 '생이다(0101)'보다 작으므로 띄어쓰기 오류 보정이 일어난 이유로 적절하지 않다.

3 답 ④

(+) 더하기

이래서 정답

- ④ ㉡의 '추출하다'는 '전체 속에서 어떤 물건, 생각, 요소 따위를 뽑아낸다.'라는 의미이므로, '잘못되거나 틀린 것을 바로잡다.' 등을 의미하는 '고치다'로 바꿔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왜 오답

- ① ㉠의 '기반'은 '기초가 되는 바탕. 또는 사물의 토대'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므로, '기반으로'는 '바탕으로'로 바꿔 쓸 수 있다.
- ② ㉢의 '구분하다'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전체를 몇 개로 갈라 나누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므로, '구분하여'는 '나누어'로 바꿔 쓸 수 있다.
- ③ ㉢의 '생성하다'는 '사물이 생겨나다. 또는 사물이 생겨 이루어지게 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므로, '생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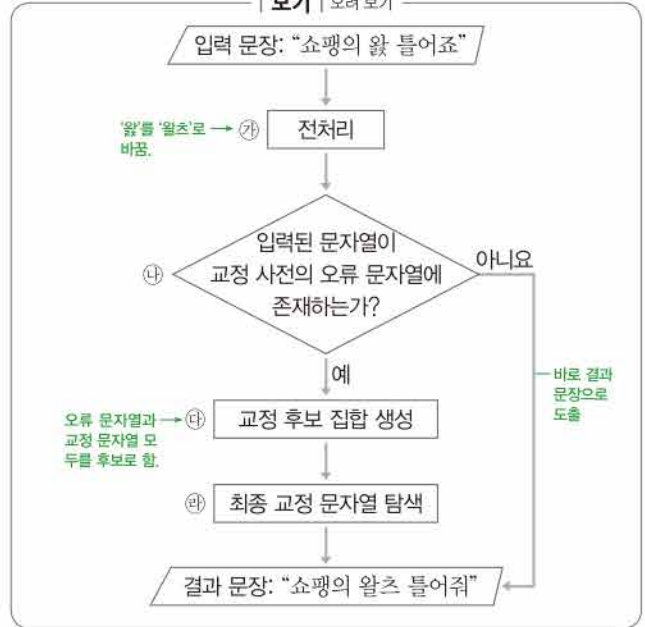
는 '만든다'로 바꿔 쓸 수 있다.

- ⑤ ㉠의 '향상하다'는 '실력, 수준, 기술 따위가 나아지다. 또는 나아지게 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므로, '향상시키기'를 '높이기'로 바꿔 쓸 수 있다.

4 답 ④

(X) 곱하기

| 보기 | 오려 보기



이래서 정답

- ④ 3문단에서 '교정 후보 집합 생성' 단계에서는 오류 문자열과 교정 문자열 모두를 교정 후보로 하는 교정 후보 집합을 생성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④에서는 오류 문자열인 '틀어쥬'와 교정 문자열인 '틀어쥬' 모두를 교정 후보로 하는 교정 후보 집합을 생성한다.

왜 오답

- ① 2문단에 따르면 '전처리' 단계에서는 사용자의 발음이 불분명하게 입력되어 시스템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문자열을 처리가 가능한 문자열로 바꿔 준다. 따라서 ㉡에서는 국어에 쓰이지 않는 '왓'라는 음절을 처리가 가능한 '왓츠'로 바꿔 준다.
- ②, ③ 2~3문단에 따르면 '오류 문자열 판단' 단계에서는 각 문자열이 교정 사전의 오류 문자열에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처리된 문자열이 교정 사전의 오류 문자열에 존재하지 않을 경우 바로 결과 문장으로 도출되고, 존재할 경우 '교정 후보 집합 생성' 단계로 넘어간다. 따라서 ㉠에서 '쇼핑의'라는 문자열은 교정 사전의 오류 문자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결과 문장으로 바로 보내고(㉡), '틀어쥬'는 교정 사전의 오류 문자열에 있으므로 '교정 후보 집합 생성' 단계로 보낸다(㉢).
- ⑤ 3문단에 따르면 '최종 교정 문자열 탐색' 단계에서는 어휘

별 통계 데이터를 활용하여 교정 후보 중 사용 빈도가 높은 문자열을 최종 교정 문자열로 선택하여 결과 문장을 도출한다. 따라서 ㉔에서는, ㉔의 결과로 생성된 교정 후보인 '틀어쥬'와 '틀어쥬' 중 어휘별 통계 데이터에서 사용 빈도가 120회로 높은 '틀어쥬'를 최종 교정 문자열로 선택한다.

문해 공식 적용 시각 자료_플로 차트

단계	단계별 내용
㉑	사용자의 발음이 불분명하게 입력되어 시스템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문자열을 처리가 가능한 문자열로 바꿈.
㉒	입력된 문장을 어절 단위의 문자열로 구분하여 교정 사전의 오류 문자열에서 각 문자열의 존재 여부를 확인함. • 오류 문자열에 존재 x: 바로 결과 문장으로 도출함. • 오류 문자열에 존재 o: 다음 단계로 넘어감.
㉓	오류 문자열과 교정 문자열 모두를 교정 후보로 하는 교정 후보 집합을 생성함.
㉔	어휘별 통계 데이터를 활용하여 교정 후보 중 사용 빈도가 높은 문자열을 최종 교정 문자열로 선택함.

+ 어휘

- 빈도수: 같은 현상이나 일이 반복되는 도수(거듭하는 횟수). = 빈도.
- 토대: 어떤 사물이나 사업의 밑바탕이 되는 기초와 밑천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도출: 판단이나 결론 따위를 이끌어 냄.

공공 선택론

주제 공공 선택론으로 살펴본 공공 부문의 의사 결정 과정과 бю케년의 헌법 정치 경제학

구성

1문단	공공 선택론의 개념
2문단	공공 선택론의 가정 ① - 방법론적 개인주의
3문단	공공 선택론의 가정 ② - 경제 인간
4문단	공공 선택론의 가정 ③ - 교환으로서의 정치
5문단	공공 선택론의 모형 ① - 중위 투표자 정리 모형
6문단	공공 선택론의 모형 ② - 합리적 무지 모형
7문단	부케년의 헌법 정치 경제학

1 답 ⑤

→ 보기

○ 이래서 정답

⑤ 5문단에 따르면 중위 투표자 정리 모형에서 정치인들이 내거는 공약은 중위 투표자가 선호하는 정책에 접근하게 된다면, 민주주의의 의사 결정이 다수가 아닌 소수인 중위 투표자에 의해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반민주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공공 선택론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인의 공약을 강조한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 왜 오답

- 1~4문단에서 공공 선택론은 기존의 정치학과 다르게 방법론적 개인주의, 경제 인간, 교환으로서의 정치라는 세 가지 가정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2문단에서 공공 선택론은 '모든 사회 현상의 분석 단위를 개인으로 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4문단에서 공공 선택론의 관점에서 정치 시장은 경제 시장과 달리 거래의 결과가 거래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거래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 5~6문단에서 공공 선택론은 정치인과 유권자가 유발하는 사회적 문제를 분석하는 모형으로 중위 투표자 정리 모형과 합리적 무지 모형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답 ③

× 곱하기

○ 이래서 정답

③ 7문단에 따르면 부케년은 '집합적 의사 결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규칙을 만들고 헌법 안에서 자신의 이익 추구를 위해 일상적 정치를 하는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헌법 체계의 근본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케년은 '헌법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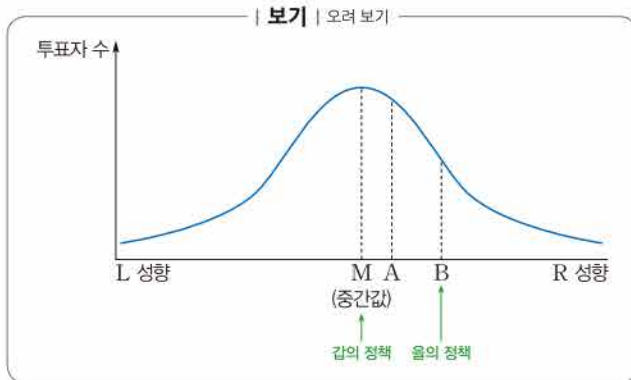
의사 결정 참여자 누구도 자신의 이익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렵다고 여겼다. 따라서 뷰캐넌이 ㉠처럼 생각한 이유는 헌법 자체에 대해 합의하는 헌법적 정치는 일상적 정치에 대한 규칙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각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때문임을 추측할 수 있다.

❓ 왜 오답

- ① 뷰캐넌은 '헌법적 정치는 일상적 정치에 제약을 부과하는 헌법을 확립하는 정치 활동'이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② 뷰캐넌은 '헌법 제정 이후 의사 결정이 입법적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을 일상적 정치라고 보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④ 뷰캐넌은 개인이 '헌법 안에서 자신의 이익 추구를 위해 일상적 정치'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헌법적 정치가 아니라 일상적 정치를 하는 과정에서 누구나 자신의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기 쉽다고 볼 수 있다.
- ⑤ 뷰캐넌의 관점에서 '헌법의 규칙 내에서 특정 목적을 위한 정책에 대해 합의하는 것'은 헌법적 정치가 아니라 일상적 정치에 해당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3 답 ③

× 곱하기



❓ 이어서 정답

- ③ [A]에서 '유권자는 자신의 선호 체계에 가장 가까운 공약을 제시하는 정치인에게 투표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그래프에서 정치 성향이 A인 유권자들의 선호 체계에 더 가까운 것은 B가 아니라 M이므로, 이들은 갑에게 투표할 것이다.

❓ 왜 오답

- ① 정치 성향이 M의 왼쪽에 있는 L 성향의 유권자들의 선호 체계에 더 가까운 것은 M이므로, 이들은 모두 갑에게 투표할 것이다.
- ②, ⑤ [A]에서 선거의 승리를 목적으로 하는 정치인의 정책은 중위 투표자의 선호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수립하는 경향이 생긴다고 하였다. 이를 고려할 때 M의 입장에서 정책을 제시한 갑이 B의 입장에서 정책을 제시한 을보다 당

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②). 이때 을이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약을 수정한다면 을은 갑과 유사하게 M의 입장에서 공약을 내세우려 할 것이다(⑤).

- ④ 정치 성향이 B의 오른쪽에 있는 R 성향의 유권자들의 선호 체계에 더 가까운 것은 B이므로, 이들은 을에게 투표할 것이다.

문제 공식 적용 시각 자료 그래프

요소		분석 내용
그래프	가로축	왼쪽으로 갈수록 L 성향임을, 오른쪽으로 갈수록 R 성향임을 나타냄.
	세로축	투표자 수를 나타냄.
	그래프의 모양	가운데에 해당하는 값이 가장 많음. → 종 모양의 정규 분포
값의 의미	M(중간값)	• 중위 투표자의 선호를 나타냄. • 갑이 제시한 정책의 성향
	B	• M보다 R 성향에 가까운 선호를 나타냄. • 을이 제시한 정책의 성향

III

곱하기

+ 어휘

- **공약**: 정부, 정당, 입후보자 등이 어떤 일에 대하여 국민에게 실행할 것을 약속함. 또는 그런 약속.
- **유권자**: 선거할 권리를 가진 사람. = 선거인
- **헌법**: 국가 통치 체제의 기초에 관한 각종 근본 법규의 총체. 모든 국가의 법의 체계적 기초로서 국가의 조직, 구성 및 작용에 관한 근본법이며 다른 법률이나 명령으로써 변경할 수 없는 한 국가의 최고 법규이다.

확인 1 답 (1) 공 (2) 차 (3) 차

이래서 정답

- (1) '모두'라는 표현을 통해 주희와 정약용의 사상적 공통점에 주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반면'이라는 표현을 통해 일반적 기업과 비영리 기관의 차이점에 주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 '~과 달리'라는 표현을 통해 음성 피드백과 양성 피드백의 차이점에 주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확인 2 답 (1) ○ (2) ○ (3) ×

이래서 정답

- (1) ㉠은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도덕 법칙에 따라 행동하면 된다고 본다. 그리고 ㉡은 상위 원리를 통해 법과 같은 현실적인 규범이나 지침을 만들면 사람들이 이를 준수함으로써 도덕적 갈등이 해결된다고 본다.
- (2) 3문단에 따르면 ㉠은 ㉢과 달리 선형적인 도덕 법칙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 (3) 1문단에서 도덕적 갈등은 대립하는 가치들 중 어떤 가치를 선택해야 하는가의 문제라고 하였다. ㉠은 선형적인 도덕 법칙을 기준으로, ㉡은 개인들이 합의를 통해 만든 상위 원리를 바탕으로 현실적 규범이나 지침을 만들어 도덕적 가치의 우선순위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 즉 ㉢, ㉣은 모두 도덕적 가치의 우선순위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

확인 3 답 (1) × (2) ○ (3) ○

이래서 정답

- (1) 소비자 책임 부담 원칙(㉠)은 소비자의 책임을, 기업 책임 부담 원칙(㉡)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더 중시한다.
- (2) ㉢과 ㉣은 모두 광고의 폐해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광고의 역기능을 전제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 (3) ㉠을 따르면 기업은 광고에 의존하여 물건을 구매한 소비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고, ㉡을 따르면 기업이 광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을 따를 때 광고 표현에 대한 기업의 자율성이 확대된다.

확인 4 답 ③

이래서 정답

- (3) 이마티넵(㉢)은 표적 항암제 중 신호 전달 억제제로, 암세포의 증식을 유도하는 신호 전달 과정 중 특정 단계의 진행을 방해한다.

수소 전기차

주제 친환경차의 종류 및 수소 전기자동차의 전기 에너지 생성 원리 구성

1문단	친환경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2문단	친환경차의 종류와 구동 방식
3문단	친환경차의 주행 방식
4문단	수소 전기차에 사용되는 연료 전지의 촉매 속 백금과 고분자 전해질막의 역할
5문단	수소 전기차에 사용되는 연료 전지에서 전기 에너지가 생성되는 과정
6문단	수소 전기자동차의 장단점

1 답 ③

배기

이래서 정답

- (3) 6문단을 통해 수소 전기차에 사용되는 수소는 가솔린의 세 배나 되는 단위 질량당 에너지 밀도를 지니고 있어 에너지 효율이 높고, 수소와 산소의 반응을 이용하므로 오염 물질이나 온실가스의 배출이 적어 친환경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왜 오답

- (1) 6문단을 통해 수소 전기자동차의 연료인 수소는 고압으로 압축해야 하므로 폭발할 위험성이 커 보관과 이동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 6문단을 통해 수소 전기자동차는 외부로부터 공급되는 공기를 필터로 정화하여 사용한 후 배출하므로 공기를 정화하는 기능을 함을 알 수 있다.
- (4) 6문단을 통해 수소 전기차에 사용되는 연료 전지는 고가인 백금과 고분자 전해질막을 사용해 제작하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백금과 고분자 전해질막을 대신할 저가의 원료를 개발한다면 연료 전지의 가격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 (5) 3문단에서 연료 전지는 차량 구동에 필요한 수준의 전기 에너지를 발전시키기 위해 다수의 연료 전지를 직렬로 연결하여 가로로 쌓아 만든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2 답 ①

나누기

이래서 정답

- (1) ㉠은 전기자동차와 수소 전기자동차, ㉡은 하이브리드차, ㉢은 내연 기관차이다. 3문단에서 전기자동차는 고전압 배터리에 충전해 전기 에너지를 모터로 공급하여 움직이고, 수소 전기자동차는 연료 탱크에 저장된 수소를 연료 전지를 통해 전기 에너지로 변환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 중에서 수소 전기자동차는 연료 탱크가 필요하다. 또한 연료를 연소시

켜 사용하는 ㉠, ㉡은 연료 탱크가 필요하다.

❶ 왜 오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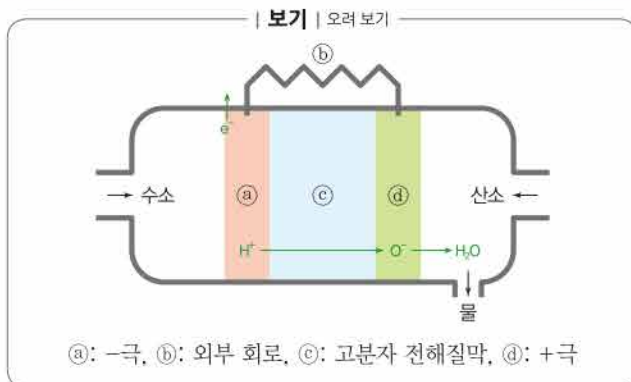
- ② 2문단에서 ㉠은 모터만으로 구동되고, ㉡은 모터와 엔진을, ㉢은 엔진을 사용하여 구동됨을 알 수 있다. 또한 3문단에서 ㉠은 주행 상황에 따라 모터와 엔진을 적절히 이용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 ③ 2문단에서 ㉢은 마찰 제동 장치를 사용하므로 차가 감속할 때 운동 에너지가 열에너지로 변환된 후 사라진다고 하였다. 반면 ㉠과 ㉡의 친환경차는 감속 시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여 배터리에 충전해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회생 제동 장치를 사용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 ④ 1문단에서 ㉠과 ㉡의 친환경차가 ㉢에 비해 오염 물질을 적게 배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6문단에서 ㉠의 수소 전기차가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⑤ 2문단에서 ㉠은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변환하여 주는 모터만을 사용하여 구동된다고 하였고, 3문단에서 ㉡은 출발할 때 전기 에너지를 이용하여 모터를 구동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2문단에서 ㉢은 연료를 연소시킬 때 발생하는 열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꿔 주는 엔진을 사용하여 구동됨을 알 수 있다.

문제 공식 적용 비교

구분	전기차	수소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내연 기관차
연료 탱크	×	○(수소)	○	○
모터/엔진	모터	모터, 엔진	엔진	엔진
사용하는 에너지	전기 에너지 → 운동 에너지	전기 에너지/열 에너지 → 운동 에너지	열에너지 → 운동 에너지	열에너지 → 운동 에너지
회생 제동		○		×
오염 물질, 온실가스 배출량		적음.		많음.

3 답 ④

❌ 곱하기



❶ 이어서 정답

- ④ -극(㉠)에 공급된 수소는 촉매 속 백금에 의해 수소 양이

온(H^+)과 전자(e^-)로 분리되고, 분리된 전자는 외부 회로(㉡)를 통해 +극(㉢)으로 이동하면서 전기 에너지가 발생한다. 한편 +극(㉢)에서는 전자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공급된 산소가 ㉢을 통해 이동해 온 전자와 결합하여 산소 음이온(O^-)이 된다.

❶ 왜 오답

- ① 3문단에서 산화·환원 반응 과정을 통해 물질이 전자를 얻거나 잃는 것을 이온화라고 하였다. 그리고 4문단에서 연료 전지의 ㉠과 ㉢에 사용되는 촉매 속에 들어 있는 백금은 ㉠에서는 수소의 산화 반응을, ㉢에서는 산소의 환원 반응을 활성화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과 ㉢에 들어 있는 금속, 즉 백금은 각각 수소와 산소의 이온화를 촉진한다고 볼 수 있다.
- ② 4문단에서 고분자 전해질막(㉢)은 양이온의 이동은 돕고 음이온과 전자의 이동은 억제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전자는 ㉢을 통과하지 못하고 ㉡을 통해 ㉢으로 흘러가게 된다.
- ③ 5문단에 따르면 ㉠에 공급된 수소는 촉매 속 백금에 의해 수소 양이온(H^+)과 전자(e^-)로 분리되고, 수소 양이온은 ㉢을 통과해 ㉢으로 이동한다.
- ⑤ 5문단에 따르면 ㉢에서는 공급된 산소가 ㉢을 통해 이동해 온 전자(e^-)와 결합하여 산소 음이온(O^-)이 된 후, ㉢을 통과해 온 수소 양이온(H^+)과 결합해 물(H_2O)이 만들어진다.

4 답 ③

➕ 더하기

❶ 이어서 정답

- ③ ㉠과 ㉢의 '받다'는 모두 '다른 사람이나 대상이 가하는 행동, 심리적인 작용 따위를 당하거나 입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❶ 왜 오답

- ① '받다'가 '사람을 맞아들이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 ② '받다'가 '다른 사람의 어리광, 주장 따위에 무조건 응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 ④ '받다'가 '요구, 신청, 질문, 공격, 도전, 신호 따위의 작용을 당하거나 거기에 응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 ⑤ '받다'가 '흐르거나 쏟아지거나 하는 것을 그릇 따위에 담기게 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 어휘

- **가솔린**: 석유의 휘발 성분을 이루는 무색의 투명한 액체. 원유를 증류하거나, 증류한 후 화학 처리를 하여 얻는다. 자동차, 비행기 따위의 연료나 도로, 고무 가공 따위에 쓴다.
- **촉진**: 다그쳐 빨리 나아가게 함.
- **응하다**: 물음이나 요구, 필요에 맞추어 대답하거나 행동하다.

노동의 의미

주제 인간의 노동에 대한 로크, 헤겔, 마르크스의 철학적 견해
구성

1문단	노동의 가치
2문단	노동에 대한 로크의 철학적 견해
3문단	노동에 대한 헤겔의 철학적 견해
4문단	노동에 대한 마르크스의 철학적 견해

1 답 ⑤

→ 보기

⑤ 이래서 정답

- ⑤ 4문단을 통해 마르크스가 '노동을 통한 주객 통일의 한계가 사회적 구조의 한계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사회적 구조의 한계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⑤ 왜 오답

- ① 2문단을 통해 로크는 신이 '신의 목적대로 자연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인간에게 이성을 부여했다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 ② 3문단을 통해 헤겔은 인간이 동물과 달리 자연을 자신에게 맞게 바꾸는 목적이 '필요한 물품과 적절한 생활 환경을 마련하며 생명을 보전'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 ③ 3문단을 통해 헤겔은 주체인 인간이 노동을 통해 자신을 객체 속에 나타냄으로써 객체 속에 '실현된 자기 대상화의 정도만큼 자기의식을 확보'하게 된다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 ④ 4문단을 통해 마르크스는 '인간은 노동을 통해 만들어 낸 노동 산물에서 자신의 능력을 확인하고 자기의식과 정체성을 확보'하며 '자신의 능력을 더욱 개발하여 자연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획득하면서 자아를 실현하게' 된다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2 답 ⑤

× 금하기

⑤ 이래서 정답

- ⑤ 4문단에 따르면 마르크스에게 노동은 '객체에 인간적 형식을 부여하기 위해 자연적 소재의 형식을 부정함으로써 주체의 주관적 욕구나 목적을 대상으로 객관화하는 것'이다. 이를 고려할 때 A씨가 공부한 기간을 외부 대상인 자연의 형식에 맞게 자신의 목적을 객관화시킨 시기라고 볼 수 없다.

⑤ 왜 오답

- ① 3문단에 따르면 헤겔은 주체가 '자신의 욕구나 목적을 객

체 속에 실현'한다고 보았는데, 4문단에서 마르크스는 이러한 헤겔의 노동관을 수용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마르크스의 관점에서 캐릭터 아티스트로서 성장하기 위해 직장을 옮기고 독창적인 캐릭터를 창작해 낸 A씨의 모습은, 노동을 통해 자신의 욕구를 객체 속에 실현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② A씨는 자신만의 독창적인 캐릭터를 창작하게 되었는데, 4문단에 따르면 마르크스는 '가공된 대상에는 주체의 형식이 부여되고, 주체의 욕구나 목적 등은 물질화되어 구체적인 노동 산물이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마르크스의 입장에서 A씨는 노동을 통해 자신의 형식을 부여한 노동 산물인 독창적 캐릭터를 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A씨는 B사에서 유명한 몇몇 캐릭터만 반복적으로 그려야 하는 현실에 염증을 느꼈다. 마르크스의 입장에서 A씨의 이러한 심리는 '노동 산물에서 자신의 능력을 확인하고 자기의식과 정체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④ A씨가 직장을 옮긴 것은 B사에서 캐릭터 아티스트로서 더 이상 성장할 수 없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A씨의 모습은 '자신의 능력을 더욱 개발하여 자연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획득하면서 자아를 실현'하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3 답 ②

→ 나누기

② 이래서 정답

- ② 2문단에서 로크는 신체가 한 개인의 소유이며, 이 신체의 활동인 노동 역시 그 개인의 소유가 된다고 보았다. 또한 3문단에 따르면 헤겔은 노동의 산물이 주체의 소유라고 보았다. 따라서 ㉠과 ㉡은 모두 인간의 노동을 성립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왜 오답

- ① 로크는 신이 인간에게 준 자연이라는 공유물에 인간이 노동을 부여함으로써 소유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았으므로 ㉠이 인간을 신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인간을 신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지는 이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없다.
- ③ 로크는 '노동을 통해 소유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았으나, '공유물을 인류의 삶에 손해가 되도록 만든 경우, 그것은 노동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 이타심과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타심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헤겔은 노동 산물이 주체의 소유라고 보았을 뿐, 이를 근거로 ㉡이 이기심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는 없다.

- ④ 로크에게 노동은 '삶과 편의에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자연을 이용하는 것'이므로, ㉠이 인간과 자연의 합일을 강화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헤겔은 '주체와 객체는 서로 분리·고립되어 있다가 노동을 통해 노동 산물 속에서 통일'된다고 보았으므로 ㉠이 인간과 자연의 분리를 강화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⑤ 로크는 인간이 공유물에 노동을 부여함으로써 소유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에 공유물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공유물의 존재만으로 ㉠이 보장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한편 헤겔은 '노동 산물이 주체의 소유지만, 여전히 주체와 분리되어 있고, 주체를 완전히 표현하지도 못하기에 노동을 통한 주객 통일에 한계가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 주객 통일의 완성에 의해 보장된다고 할 수 없다.

4. ㉡

| 보기 | 오래 보기

... 그는 노동의 종말이 긍정적으로는 여가적 삶의 증대를, 부정적으로는 대량 실업으로 인한 정체성의 시련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대량 실업의 피해자들을 위해 사회적 경제 부분의 일자리 공유 전략을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그들이 삶의 이유를 찾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신의 가치를 입증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 이래서 정답

- ② 2문단에 따르면 로크는 인간의 노동이 각 개인을 배타적 소유권을 가진 주체로 만드는 데 기여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3문단에 따르면 헤겔은 노동을 주체와 객체가 통일되는 과정이며, 인간이 자기의식과 자기 정체성을 확보하는 계기라고 보았다. 또 4문단에 따르면 마르크스는 인간이 노동을 통해 자기의식과 정체성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 자아를 실현하게 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보기>의 제러미 리프킨은 노동을 통해 사람들이 삶의 이유를 찾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신의 가치를 입증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글과 <보기>는 모두 인간이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데 노동이 기여한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할 수 있다.

㉣ 왜 오답

- ① 이 글과 <보기>에서는 모두 노동이 인간의 정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루고 있다. 노동이 인간의 정신보다 신체에 더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하지는 않았다.
- ③ 3문단에 따르면 헤겔은 노동을 통한 주객 통일에 한계가 있다고 하였고, 4문단에 따르면 마르크스는 노동을 통한 주객 통일의 한계가 사회적 구조의 한계에서 비롯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가 <보기>에 언급된 '첨단 과학

기술이 생산 수단에 접목되는 상황으로 인한 노동의 종말'로 인해 나타난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다.

- ④ 이 글에서는 노동의 기능을 소유권의 근거(로크), 주체와 객체의 통일 과정이자 자기의식과 정체성 확보의 계기(헤겔), 주객 통일의 방법이자 자아실현의 과정(마르크스)으로 보았다. 그리고 <보기>에서는 노동의 기능을 삶의 이유를 찾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이 글과 <보기>의 노동의 기능은 서로 대립한다고 볼 수 없다.
- ⑤ 이 글이 아니라 <보기>에서 첨단 과학 기술이 생산 수단에 접목되는 상황으로 인하여 노동의 종말이 올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문제 공식 적용 비교

철학자	노동의 의미
로크	인간은 신체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바탕으로 한 노동을 통해 소유의 주체가 될 수 있음.
헤겔	노동은 사적 소유권의 근거를 넘어 주체와 객체가 통일되는 과정이며, 인간이 자기의식과 자기 정체성을 확보하는 계기임.
마르크스	인간은 노동을 통해 자기의식과 정체성을 확보하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음.
제러미 리프킨	노동을 통해 삶의 이유를 찾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신의 가치를 입증할 수 있음.



공통점	노동이 인간의 정신에 미치는 영향 → 노동은 인간이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데 기여함.
-----	-------------------------------------------------------

+ 어휘

- **염증**: 싫은 생각이나 느낌 또는 그런 반응 = 싫증.
- **성립**: 일이나 관계 따위가 제대로 이루어짐.
- **기여**: 도움이 되도록 이바지함.

정책 결정 모델

주제 허버트 사이먼의 합리성에 대한 관점을 바탕으로 한 그레이엄 앨리슨의 정책 결정 모델의 특징과 의의

구성

1문단	사이먼의 합리적 행위와 관련한 두 가지 관점
2문단	앨리슨의 정책 결정 모델 ① - 합리적 행위자 모델
3문단	앨리슨의 정책 결정 모델 ② - 조직 과정 모델
4문단	앨리슨의 정책 결정 모델의 의의

1 답 ③

+ 더하기

이래서 정답

- ③ 이 글에서는 정책 행위를 분석하는 합리적 행위자 모델과 조직 과정 모델의 특징과 분석 방식을 제시하고 있을 뿐, 분석 단계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왜 오답

- ① 3문단에서 합리적 행위자 모델은 포괄적 합리성에서 벗어나는 외교 사례를 설명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데 반해, 조직 과정 모델은 포괄적 합리성에서 벗어나는 외교 정책 행위를 설명할 수 있다고 하였다.
- ②, ④ 2문단에서는 사이먼의 포괄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 행위자 모델의 특징과 외교 정책 행위를 분석하는 방식을, 3문단에서는 사이먼의 제한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 조직 과정 모델의 특징과 외교 정책 행위를 분석하는 방식을 서술하고 있다.
- ⑤ 2문단에 따르면 합리적 행위자 모델에서 행위자는 단일한 의사 결정자로서의 국가이며, 모든 국가는 포괄적 합리성을 가지고 행동한다. 이러한 국가의 성격을 바탕으로 합리적 행위자 모델은 행위자가 정책 행위를 결정한 목적이나 이유에 주목한다. 한편 3문단에 따르면 조직 과정 모델에서 행위자는 독자적인 여러 조직이 모인 연합체로서의 국가이며, 국가는 조직의 모든 활동을 국가의 의도에 맞게 완전히 통제하거나 감독할 수 없다. 이러한 국가의 성격을 바탕으로 조직 과정 모델은 행위자가 정책 행위를 어떻게 결정하였는지에 주목한다.

2 답 ⑤

+ 나누기

이래서 정답

- ⑤ 포괄적 합리성(㉠)의 관점에서 행위자는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의도적으로 선택하며, 이러한 경향이 행위자의 특성에 상관없이 언제나 일관되게 선택 과정에 반영된다고 본다. 반면 제한적 합리성(㉡)의 관점에서 행위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과 선택 가능한 방안, 선택의 결과 등을 정

확히 인지하지 못한다고 본다. 따라서 ㉡은 ㉠과 달리 목적과 상황이 동일하더라도 행위자의 특성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을 알 수 있다.

왜 오답

- ① ㉠에서는 어떤 방안을 선택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용이, ㉡에서는 행위자의 지식이나 인지 능력과 같은 특성이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 ② ㉠은 행위자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찾다고 보며, ㉡은 행위자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지식과 인지 능력에 한계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과 ㉡은 모두 행위자가 선택 과정에서 목적을 고려하여 방안을 선택한다고 본다.
- ③ 행위자의 인지적 한계를 고려하는 것은 ㉠이 아니라 ㉡이다. ㉠은 행위자가 각 방안에서 초래될 모든 결과를 정확히 평가하여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의도적으로 선택한다고 본다.
- ④ ㉠은 행위자가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의도적으로 선택한다고 보는 관점이므로, 행위자가 어떤 방안을 선택했을 때 효용이 극대화되었는지를 따져 그 방안이 합리적인지 판단할 수 있다. 한편 ㉡은 선택의 합리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목적과 관련하여 그가 가진 정보와, 그 정보를 바탕으로 추론할 수 있는 능력 등 행위자의 특성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과 ㉡ 모두 행위자가 선택한 방안의 합리성을 판단할 수 있다.

문제 공식 적용 비교

구분	포괄적 합리성	제한적 합리성
행위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찾음.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지식과 인지 능력에 한계가 있음.
선택의 합리성 판단	효용이 극대화되었는지 판단함.	행위자가 가진 정보와 그 정보를 바탕으로 추론할 수 있는 능력과 같은 특성을 알아야 함.

3 답 ①

+ 더하기

이래서 정답

- ① ㉠과 ㉡의 '두다'는 모두 '행위의 준거점, 목표, 근거 따위를 설정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왜 오답

- ② '두다'가 '바둑이나 장기 따위의 놀이를 하다. 또는 그 알을 놓거나 말을 쓰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 ③ '두다'가 '시간적 여유나 공간적 간격 따위를 주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 ④ '두다'가 '어떤 대상을 일정한 상태로 있게 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 ⑤ '두다'가 '어떤 상황이 어떤 시간이나 기간에 걸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4 답 ②

(X) 풀하기

| 보기 | 오려 보기

... B국의 정보 조직은 A국의 군대 배치 정보를 입수했지만, 일상적인 SOP에 따라 정보를 처리한 결과 이 정보가 상부에 전달되지 않았다. 결국 B국은 A국의 상황을 모른 채, A국에 대한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으로 군사력 강화와 평화 협정 체결 중 후자의 방안을 선택하게 되었다.

이래서 정답

- ② 2문단에서 합리적 행위자 모델은 정책 행위를 분석할 때 '행위자인 국가가 정책 행위를 결정한 목적을 몇 가지로 예상해 보고, 분석하고자 하는 정책 행위가 각각의 목적에서 갖는 효용을 계산'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합리적 행위자 모델이, B국의 정보 조직이 파악한 정보가 상부에 전달되지 않은 과정에 주목할 것이라고 이해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조직의 업무 수행 과정에 주목하는 것은 조직 과정 모델이다.

왜 오답

- ① 2문단에서 합리적 행위자 모델은 분석하고자 하는 정책 행위가 가장 큰 효용을 갖게 되는 목적을 찾는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 ③ 3문단에서 합리적 행위자 모델은 포괄적 합리성에서 벗어나는 외교 사례를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 ④ 3문단에서 조직 과정 모델은 '정책 행위의 목적보다는 그 정책 행위가 어떻게 결정되었는지에 주목'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 ⑤ 3문단에서 조직 과정 모델은 '조직들의 SOP와 역량, 조직 간의 관계에 대해 분석'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 어휘

- **포괄적**: 일정한 대상이나 현상 따위를 어떤 범위나 한계 안에 모두 끌어넣는.
- **인지**: 어떤 사실을 인정하여 알.
- **상부**: 더 높은 직위나 관청.
- **안보**: '안전 보장(외부의 위협이나 침략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을 줄여 이르는 말.

사전 11-D

본문 122~123

기초 대사량 측정 방법

주제 생명체의 기초 대사량을 측정하는 방법과 그 의미 구성

1문단	대사량과 기초 대사량의 개념
2문단	기초 대사량을 구하는 방법
3문단	19세기 초기의 기초 대사량 연구
4~6문단	체중의 증가율과 기초 대사량의 증가율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L-그래프'
7문단	L-그래프를 활용한 상대 성장의 개념
8문단	L-그래프의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최소 제곱법
9문단	클라이버의 법칙의 활용

1 답 ③

(→) 보기

이래서 정답

- ③ 5문단에 따르면 L-그래프에서 가로축(X축)에는 체중에 상용로그를 취한 값을, 세로축(Y축)에는 기초 대사량에 상용로그를 취한 값을 표시한다. 또 6문단에서 체중의 증가율에 비해 기초 대사량의 증가율이 작다면 L-그래프에서 직선의 기울기가 1보다 작다고 한 것을 고려할 때 L-그래프에서 직선의 기울기는 $\frac{\text{기초 대사량의 증가율}}{\text{체중의 증가율}}$ 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L-그래프에서 직선의 기울기가 가로축과 세로축 두 변수의 증가율의 차이와 동일하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왜 오답

- ① 9문단에서 클라이버는 동물의 (체중)^{0.75}에 기초 대사량이 비례한다고 결론지었는데, (체중)^{0.75}을 대사 체중이라 부른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 ② 1문단에서 기초 대사량은 근육량이 많을수록 증가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 ④ 8문단에서 가로축과 세로축 두 변수의 관계를 대변하는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와 절편은 최소 제곱법으로 구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 ⑤ 7문단에 따르면 상대 성장은 생물의 어떤 형질이 체중 또는 몸 크기와 직선의 관계를 보이며 함께 증가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동일 종에서의 심장, 두뇌와 같은 신체 기관의 크기도 상대 성장을 따른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2 답 ④

(X) 풀하기

이래서 정답

- ④ 9문단에 따르면 치료제 허용량의 결정에 대사 체중을 이용하는데, 대사 체중은 동물의 (체중)^{0.75}이다. 3문단의 '체중이 W에서 2W로 커지면 ~ 기초 대사량의 증가율은

IV

단

$(2W)^{0.67} / (W)^{0.67} = 2^{0.67}$, 즉 약 1.6이 된다.'를 참고할 때, (체중) $^{0.75}$ 인 대사 체중은 실제 체중보다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령 코끼리에게 적용하는 치료제의 허용량이 A일 때, 코끼리의 체중이 100이고 생쥐의 체중이 1이라고 한다면, 체중을 기준으로 한 생쥐의 치료제 허용량은 $A \times 1/100$ 이 된다. 그러나 대사 체중을 기준으로 하면 생쥐의 치료제 허용량은 $A \times 1^{0.75}/100^{0.75} = A \times (1/100)^{0.75}$ 이 된다. 따라서 체중에 비례하여 정한 양은 대사 체중에 비례하여 정한 양보다 적으므로, 체중에 비례하여 허용량을 정하는 경우 과다 복용이 된다고 할 수 없다.

❶ 왜 오답

- ① 1문단에서 기초 대사량은 개체에 따라 대사량의 60~75%를 차지한다고 하였으므로, 일반적인 경우 기초 대사량은 하루에 소모되는 총열량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 ② 9문단에서 클라이버는 동물의 (체중) $^{0.75}$ 에 기초 대사량이 비례한다고 결론지었다. 3문단에서 체표 면적은 (체중) $^{0.67}$ 에 비례한다고 하였으므로, 클라이버의 결론에 따르면 기초 대사량이 동물의 체표 면적에 비례한다고 볼 수 없다.
- ③ 3문단에서 19세기의 초기 연구에서는 기초 대사량이 (체중) $^{0.67}$ 에 비례한다고 보았으며, 이에 따르면 체중이 2배 증가할 때 기초 대사량은 약 1.6배가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19세기 초기 연구자들은 체중의 증가율보다 기초 대사량의 증가율이 작다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 ⑤ 1문단에서 알 수 있듯 하루에 필요한 에너지의 양은 대사량이며, 이 중 많은 부분을 기초 대사량이 차지한다. 3문단에서 알 수 있듯, 19세기의 초기 연구에서는 기초 대사량이 (체중) $^{0.67}$ 에 비례한다고 보았는데, 9문단에 따르면 클라이버는 기초 대사량이 (체중) $^{0.75}$ 에 비례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클라이버의 법칙에 따르면 동물의 체중이 증가함에 따라 함께 늘어나는 에너지의 필요량은 초기 연구에서 생각했던 양보다 많다고 할 수 있다.

3 답 ④

➡ 나누기

❶ 이래서 정답

- ④ 직접법(㉠)은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공기의 출입량을 알고 있는 호흡실에서 동물이 발산하는 열량을 열량계를 이용해 측정하는 방법이므로, 일정한 체온에서 동물이 체외로 발산하는 열량을 구할 수 있다. 한편 간접법(㉡)은 호흡 측정 장치를 이용해 측정한 동물의 산소 소비량과 이산화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체내에서 생성된 열량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1문단에서 '체내에서 생성한 열량은 일정한 체온에서 체외로 발산되는 열량과 같다.'라고 하였으므로, ㉡ 역시 일정한 체온에서 동물이 체외로

발산하는 열량을 구할 수 있다.

❶ 왜 오답

- ① ㉠은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환경에서 동물이 발산하는 열량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체온을 환경 온도에 따라 조정하는 변온 동물이라도,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환경에서 측정하기 때문에 체외로 발산하는 열량을 측정할 수 있다.
- ② ㉡은 호흡 측정 장치를 이용해 동물의 산소 소비량과 이산화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체내에서 생성된 열량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그러므로 ㉡은 동물이 호흡에 이용한 산소의 양을 알아야 한다.
- ③, ⑤ 1문단에서 기초 대사량은 '생존에 필수적인 에너지로, 쾌적한 온도에서 편히 쉬는 동물이 공복 상태에서 생성하는 열량'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과 ㉡은 모두 격한 움직임이 제한된 편하게 쉬는 상태(③)와 공복 상태, 즉 생존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은 상태에서(⑤) 기초 대사량을 구한다.

문제 공식 적용 비교

구분	직접법	간접법
측정 조건	동물이 쾌적한 온도에서 편히 쉬는 공복 상태	
측정 방법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공기의 출입량을 알고 있는 호흡실에서 열량계를 이용함.	호흡 측정 장치를 이용해 동물의 산소 소비량과 이산화 탄소 배출량을 측정함.
측정 대상	동물이 발산하는 열량	체내에서 생성된 열량

4 답 ①

✖ 글하기

| 보기 | 오래 보기

농계의 수컷은 집게발 하나가 매우 큰데, 큰 집게발의 길이는 게딱지의 폭에 '상대 성장'을 한다. 농계의 ㉠게딱지의 폭을 이용해 ㉡큰 집게발의 길이를 추정하기 위해, 다양한 크기의 농계의 게딱지 폭과 큰 집게발의 길이를 측정하여 다수의 순서쌍을 확보했다. 그리고 'L-그래프'와 같은 방식으로, 그래프의 가로축과 세로축에 각각 게딱지 폭과 큰 집게발의 길이에 해당하는 값을 놓고 분석을 실시했다.

❶ 이래서 정답

- ① 6문단에 따르면 L-그래프의 체중(가로축)의 증가율에 비해 기초 대사량(세로축)의 증가율이 작다면 그래프의 직선의 기울기가 1보다 작다. 이를 고려할 때 <보기>의 분석에서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가 1보다 작다면 가로축인 게딱지의 폭(㉠)의 증가율이 세로축인 큰 집게발의 길이(㉡)의 증가율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5문단에

따르면 ㉠에 상용로그를 취한 값과 ㉡에 상용로그를 취한 값으로 만든 순서쌍이 직선을 나타내므로, ㉠과 ㉡는 직선이 아닌 어떤 곡선의 주변에 분포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에 ㉡가 비례한다고 할 수 없다.

❖ 왜 오답

- ② 8문단에 따르면 그래프에 임의의 직선을 그린 뒤 '각 점에서 가로축에 수직 방향으로 직선까지의 거리'는 편차이다. 따라서 점들이 최적의 직선으로부터 가로축에 수직 방향으로 멀리 떨어진다는 것은 곧 편차가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편차가 커지면 편차 제곱합도 커진다.
- ③ 5문단에 따르면 가로축과 세로축 두 변수의 증가율이 서로 다를 경우, 순서쌍을 나타낸 점들은 '일반적인 그래프'에서는 어떤 곡선의 주변에 분포한다. 그러나 <보기>와 같은 L-그래프에서는 어떤 직선의 주변에 점들이 분포한다.
- ④ 6문단에 따르면 L-그래프의 체중(가로축)의 증가율에 비해 기초 대사량(세로축)의 증가율이 작다면 그래프의 직선의 기울기가 1보다 작고, 둘의 증가율이 같으면 기울기가 1이 된다. 그러므로 가로축인 ㉠의 증가율보다 세로축인 ㉡의 증가율이 작다면, 점들 사이를 지나는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는 1보다 작다고 할 수 있다.
- ⑤ 5문단에서 가로축과 세로축 두 변수의 증가율이 서로 다를 경우, 그 둘의 증가율이 같을 때와 달리, '일반적인 그래프'에서 이 점들은 직선이 아닌 어떤 곡선의 주변에 분포한다고 하였다. 이를 고려할 때 둘의 증가율이 같다면 점들은 어떤 직선의 주변에 분포할 것임을 알 수 있다.

⊕ 어휘

- 복용: 약을 먹음.
- 추정: 미루어 생각하여 판정함.
- 격한: 기세나 감정 따위가 급하고 거센.

확인 1 답 ①

❖ 이래서 정답

- ① (가)는 예술에서의 감정, 즉 내용적 측면을 중요하게 생각한 콜링우드의 관점을 보여 준다. 반면 (나)는 예술의 형식에 주목하여 외부에서 주어진 어떤 내용도 필요치 않고 오직 형식적 연관만으로 예술적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는 관점을 보여 준다. 따라서 (나)의 관점에서는 (가)에 대해 예술의 본질은 감정보다는 형식이라고 비판할 것이다.

❖ 왜 오답

- ② 용솟음치는 감정을 정리하는 것이 예술이라는 것은 (가)의 관점에 해당하므로 (나)의 입장에서 (가)를 비판한 것이라 볼 수 없다.
- ③ (나)는 예술의 형식 그 자체의 아름다움을 중시하고 있으므로, 인간 삶의 형식을 묘사하는 것이 예술의 핵심이라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확인 2 답 ①

❖ 이래서 정답

- ① 후설(㉠)은 “현재가 ‘파지 - 원인상 - 예지’라는 지평을 갖게 됨으로써 지나간 것과 다가올 것이 함께 생생하게 지각”된다고 하였고, ‘직전에 들은 제1음은 변양된 형태로 여전히 의식 속에 남아 있다.’라고 하였다. 반면 브렌타노(㉡)는 ‘직전에 지각한 것이 사라지더라도 ~ 지각이 아니라고’ 하였다. 따라서 ㉠은 ㉡에게 직전에 본 장면이 떠오르는 것은 상상이 아니라 지각이라고 말할 것이다.

❖ 왜 오답

- ② ㉠과 ㉡은 모두 직전에 본 장면을 떠올릴 때 변양된 상태로 기억하게 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③ (가)에 따르면 시간을 단절된 것으로 본 것은 과학적 시간관의 관점이다.

확인 3 답 ③

❖ 이래서 정답

- ③ (나)의 흄스의 관점에서 사람들이 리바이어던 같은 절대 통치자에게 복종을 약속하고 통치자가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은, (가)의 순자의 관점에서 국가에 의해 예가 만들어지고, 외적인 공권력과 사회 규범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권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범주화

주제 범주화 방법에 대한 고전적 범주화 이론과 원형 범주화 이론의 견해 구성

1문단	범주화의 개념과 필요성
2문단	범주화 방법에 대한 견해 ① - 고전적 범주화 이론
3문단	고전적 범주화 이론에 대한 비트겐슈타인의 비판
4문단	범주화 방법에 대한 견해 ② - 원형 범주화 이론

1 답 ④

→ 보기

㉠ 이래서 정답

- ④ 1문단의 '만약 범주화하는 능력이 없다면 ~ 인지적인 부담이 매우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를 통해, 범주화하여 대상을 이해하는 것은 인간의 인지 부담을 줄여 줌을 알 수 있다.

㉡ 왜 오답

- ① 1문단에서 '새로운 존재를 접할 때마다 모든 정보를 새롭게 파악하고 기억해야 한다는 점'을 통해 범주화하지 않더라도 대상을 기억하거나 이해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⑤ 1문단에서 범주화는 '우리가 접하는 사물, 개념, 현상을 분류하여 이해하는 방식이다.'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어떤 대상을 범주화한다는 것은 그 대상을 분류하여 이해한다는 것이지 대상을 완전히 이해했다는 뜻은 아님을 알 수 있고(②), 인간이 세계를 범주화하여 이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⑤).
- ③ 1문단에서 범주화하는 능력이 없으면 새로운 대상을 이해하는 데 인지 부담이 크다고 했을 뿐, 새로운 대상을 범주화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아니다.

2 답 ④

→ 나누기

— 보기 | 오려 보기 —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필요충분 속성을 [동물], [두 다리]로 보았다.

㉠ 이래서 정답

- ④ 3문단에서 비트겐슈타인은 고전적 범주화 이론에 의문을 제기하며 '우리가 접하는 수많은 개별 대상은 필요충분 속성의 집합으로 범주화되지는 않으며, 범주의 구성원들은 일부 속성만 공유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비트겐슈타인은 <보기>의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에 대해 '인간'을 [동물]과 [두 다리]라는 필요충분 속성의 집합으로 범주화할 수 없다고 반응할 것이다.

㉡ 왜 오답

- ① 비트겐슈타인은 '인간'을 포함하여 어떤 대상도 필요충분

속성의 집합으로 범주화할 수 없다고 보았다.

- ② 비트겐슈타인은 구성원 전체가 모든 속성을 공유하지 않더라도 범주화할 수 있다고 보았다.
- ③ 비트겐슈타인은 범주화가 필요충분 속성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으므로, 다른 속성을 추가하더라도 필요충분 속성으로서 '인간'을 범주화할 수는 없다고 볼 것이다.
- ⑤ 2문단에서 알 수 있듯이 필요충분 속성으로 대상을 범주화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이다.

문제 공식 적용 관점 판단

아리스토텔레스	범주는 해당 범주를 정의하는 필요충분 속성의 집합으로 결정된다. → 고전적 범주화 이론
↑ 비판	
비트겐슈타인	수많은 개별 대상은 필요충분 속성의 집합으로 범주화되지 않으며, 범주의 구성원들은 일부 속성만 공유한다. → 가족 유사성

3 답 ①

→ 곱하기

㉠ 이래서 정답

- ① <보기>의 실험은 사람들마다, 또 한 개인 내에서 컵과 접시의 범주를 구분하는 지점이 달라서 범주의 경계가 모호하고 불분명함을 보여 준다. 4문단에 따르면 원형 범주화 이론(㉡)에서는 어떤 대상의 범주는 그것이 해당 범주의 원형과 얼마나 많은 속성을 공유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때 범주의 판단 기준인 원형은 바뀌기도 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의 관점에서 컵과 접시의 구분 지점이 사람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컵이라는 범주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지는 않는다.

㉡ 왜 오답

- ② 원형은 범주 판단의 기준이므로, 마음속의 원형이 달라지면 한 개인 내에서도 컵과 접시의 구분 지점이 달라질 수 있다.
- ③ 컵으로 분류되는 대상의 구분 지점이 사람들마다, 또 한 개인 내에서 다르다는 것은 범주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 ④ ㉡은 어떤 대상의 범주는 그것이 해당 범주의 원형과 얼마나 많은 속성을 공유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본다. 따라서 어떤 그릇을 컵으로 판단했다면 그 그릇이 접시보다 컵의 원형과 공유하는 속성이 많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4문단에 제시된, '배추, 양파, 마늘, 고추, 토마토' 등을 채소로 범주화하는 예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범주화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원형과 일정 부분 유사하다고 판단한 결과이다. 그러므로 사람들 간에 컵과 접시의 구분 지점

이 다른 것은 원형과 얼마나 유사한지를 사람들마다 다르게 판단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4 답 ③

+ 더하기

㉠이래서 정답

- ③ ㉠의 '이루어지다'는 '몇 가지 부분이나 요소가 모여 일정한 성질이나 모양을 가진 존재가 되다.'라는 의미이므로, '어떤 형상이 이루어지다.'를 의미하는 ㉢의 '형성되다'로 바꿔 쓸 수 없다. '이루어지다'는 '몇 가지 부분이나 요소들이 모여 일정한 전체가 짜여 이루어지다.'를 의미하는 '구성되다'로 바꿔 쓰는 것이 적절하다.

㉡왜 오답

- ① '결여되다'는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빠져서 없거나 모자라다.'라는 의미이므로 ㉠와 바꿔 쓸 수 있다.
 ② '간주하다'는 '상태, 모양, 성질 따위가 그와 같다고 보거나 그렇다고 여기다.'라는 의미이므로 ㉠와 바꿔 쓸 수 있다.
 ④ '출현하다'는 '나타나거나 또는 나타나서 보인다.'라는 의미이므로 ㉠와 바꿔 쓸 수 있다.
 ⑤ '변화하다'는 '사물의 성질, 모양, 상태 따위가 바뀌어 달라지다.'라는 의미이므로 ㉠와 바꿔 쓸 수 있다.

+ 어휘

- 모호하고: 말이나 태도가 흐리터분하여 분명하지 않고.
- 마땅히: 그렇게 하거나 되는 것이 이치로 보아 옳게.

실전 12-B

본문 128~129

가 관중의 통치 사상

주제 부강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 법을 통한 통치를 주장한 관중
구성

1문단	나라의 부강과 백성의 평안을 이루고자 했던 제나라 재상 관중
2문단	관중이 강조한 법의 필요성
3문단	관중이 생각한 군주가 지녀야 할 태도
4문단	관중의 통치 사상의 의의

나 율곡의 통치 사상

주제 백성의 도덕적 교화를 이루는 왕도 정치를 주장한 율곡
구성

1문단	율곡이 제시한 군주상
2~3문단	율곡이 분류한 군주의 유형과 통치 방법
4문단	율곡의 통치 사상의 의의

1 답 ②

+ 더하기

㉠이래서 정답

- ② (가)는 1~3문단에서 관중이 주장하는 군주의 통치술의 내용을 제시하고, 4문단에서 '백성들의 경제적 안정을 기반으로 부강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 법을 통한 통치를 도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는 의의를 밝히고 있다. 그리고 (나)는 1~3문단에서 율곡이 주장하는 군주의 통치술의 내용을 제시하고, 4문단에서 '왕도 정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백성의 현실적 삶에 주목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라는 의의를 밝히고 있다.

㉡왜 오답

- ①, ③ (가)는 관중이, (나)는 율곡이 주장하는 군주의 통치술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을 뿐, 그 변화 과정이나(㉠), 한계를 드러내며 새로운 통치술을 제안하고(㉢) 있지 않다.
 ④ (가)와 달리 (나)는 율곡이 주장하는 군주의 통치술을 군주의 유형과 통치 방법에 따라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⑤ (가), (나) 모두 관중과 율곡이 주장하는 군주의 통치술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제시하고 있지 않고, 장단점을 비교하고 있지도 않다.

2 답 ④

× 곱하기

㉠이래서 정답

- ④ (가)의 3문단에서 관중은 군주가 자신에 대해서는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을 '패'라고 규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군주도 법의 적용에서 예외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고 했다. 또한 군주는 권세를 지녀야 국가를 다스릴 수 있는데, 이때 군주가 패를 실천해야 백성이 권세를 인정하게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의 이유로 적절한 것은 ④이다.

IV

통치

④ 왜 오답

- ① ‘폐’는 ‘군주가 자신에 대해서는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지 군주가 마음대로 법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② 2문단에서 군주는 법을 만들 수 있는 자격을 천부적으로 지닌 사람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군주가 법을 존중해야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은 아니다.
- ③ 2문단에 따르면 관중은 백성이 국가 경제의 근본이라는 경제적 관점을 바탕으로 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고 했을 뿐, 군주가 법의 필요성을 인식해야 백성을 국가의 근본으로 여기게 된다고 하지는 않았다.
- ⑤ 2문단에서 군주는 이익을 추구하는 백성의 본성을 고려해 백성의 삶이 윤택해질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백성의 본성을 고려하지 않고 나라의 부강을 우선시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3. ㉔

→ 백기

④ 이래서 정답

- ④ (나)의 4문단에 따르면 율곡은 ‘백성의 도덕적 교화를 이루는 왕도 정치를 위해서는 백성들의 삶이 경제적으로 편안한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율곡의 입장에서는 백성의 삶이 경제적으로 편안해야 도덕적 교화가 이루어진다고 볼 것이므로 ④는 적절하지 않다.

④ 왜 오답

- ① (나)의 1문단에 따르면 율곡은 ‘개인의 수양을 통해 삶을 늘리고 인격을 완성하는 것을 군주의 자격으로 보았’고, ‘군주가 인격을 완성하고 아는 것을 실천하면 백성의 선한 본성을 회복하는 도덕적 교화가 가능’하다고 보았으므로 적절하다.
- ② (나)의 1문단에 따르면 율곡은 ‘만약 군주가 포악한 정치를 펼쳐 신하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거나 민심을 잃으면 교체될 수 있다고 여겼’으므로 적절하다.
- ③ (나)의 4문단의 ‘왕도 정치를 위해서는 백성들의 삶이 경제적으로 편안한 ~ 군주의 존재 근거가 백성이라고 보는 민본관에 의한 것’을 통해 적절함을 알 수 있다.
- ⑤ (나)의 4문단에 따르면 율곡은 ‘조세 부담을 줄이는 등 백성의 경제적 기반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함을 역설’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4. ㉔

→ 나무기

④ 이래서 정답

- ⑤ [A]에 따르면 ‘신하를 능력에 맞게 발탁하여 일을 분배’하는 것은 치세를 만드는 군주의 행동이다. 그리고 (가)의 4문단에서 군주는 패업을 위한 통치를 펼쳐야 하며, 이때

군주는 능력 있는 신하를 공정하게 등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가)의 관점에서 [A]에 제시된 ‘군주가 신하를 능력에 맞게 발탁하여 일을 분배한 것’은 패업을 위한 통치의 방법으로 볼 수 있다.

④ 왜 오답

- ① [A]에 따르면 ‘눈과 귀가 가려진 군주’는 난세를 만드는 군주이므로 정치적 분열을 막아 백성을 평안하게 한다고 볼 수 없고, 패업을 이룰 수 있는 존재도 아니다.
- ② [A]에 따르면 ‘군주가 충언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난세를 만드는 ‘폭군’의 행동이다. (가)의 2문단에서 군주는 법을 만들 수 있는 자격을 천부적으로 지녔다고 하였으나, 충언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패업으로 볼 수는 없다.
- ③ [A]에 따르면 ‘군주가 자신의 충명을 믿고 신하를 불신하는 것’은 난세를 만드는 군주의 행동이므로, 백성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과 관련이 없고 패업으로 볼 수도 없다.
- ④ [A]에서 ‘군주가 자신의 뜻을 세우지 못하는 것’은 난세를 만드는 ‘용군’의 행동이다. (가)의 3문단에서 군주가 자신에 대해서는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을 ‘폐’라고 하였으나, 자신의 뜻을 세우지 못하는 것을 패업을 위한 통치의 방법으로 볼 수는 없다.

문제 공식 적용 관점 판단

	관중	율곡
백성	이익을 추구하는 본성이 있으며, 국가 경제의 근본임.	선한 본성을 가졌으며, 군주의 존재 근거임.
군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부적으로 법을 만들 수 있는 자격을 지님. • 백성의 삶이 윤택해질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함. • 예외 없이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함. • 군주는 권세를 가지고 부강한 나라를 이루는 통치를 펼쳐야 함. • 능력 있는 신하를 공정하게 등용하되, 군주의 권세를 지켜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삶을 늘리고 인격을 완성하여 이를 실천해야 함. • 군주는 백성의 도덕적 교화를 이루는 왕도 정치를 펼쳐야 함. • 치세를 만드는 군주는 능력에 맞게 신하를 발탁하여 일을 분배하거나 현명한 신하에게 나라의 일을 맡길 줄 알. • 난세를 만드는 군주(폭군, 혼군, 용군)는 신하를 불신하거나 간신을 의지함.
공통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성을 국가의 근간으로 여김. • 군주가 신하를 능력에 맞게 등용해야 한다고 생각함. 	

5. ㉔

→ 더하기

④ 이래서 정답

- ③ ㉔의 ‘구정’의 사전적 의미는 ‘내용이나 성격, 의미 따위를 밝혀 정함, 또는 그 정하여 놓은 것’이다. ‘바로잡아 고침.’은 ‘수정’의 사전적 의미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왜 오답

- ①, ②, ④, ⑤ ㉔의 ‘대처’, ㉔의 ‘피폐’, ㉔의 ‘부족’, ㉔의 ‘역설’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다.

가 플라톤의 예술관

주제 플라톤의 철학적 관점과 예술관
구성

1문단	플라톤의 이데아계와 현상계
2문단	예술에 대한 플라톤의 견해
3문단	음유 시인의 연가에 대한 플라톤의 견해
4문단	음유 시인의 연가가 관객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플라톤의 견해

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예술관

주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적 관점과 예술관
구성

1문단	이데아계를 부정한 아리스토텔레스
2문단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상과 질료, 가능태와 현실태
3문단	예술의 목적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
4문단	예술이 관객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

1 답 ④

→ 해기

이래서 정답

- ④ (가)의 2문단을 통해 플라톤은 예술을 '감각 가능한 현상의 모방', 즉 '이데아계의 형상을 모방하여 생겨난 것이 현상인데, 예술은 현상을 다시 모방한 것'이라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예술의 표현 대상은 '사물 안에 존재하는 형상'이라고 할 수 없다.

왜 오답

- ① (가)의 2문단에서 플라톤은 예술을 '형상에 대한 참된 인식을 방해하는 허구의 허구에 불과'하다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 ②, ⑤ (가)의 1문단에서 '이데아계는 현상계에 나타난 모든 사물의 근본이 되는 보편자, 즉 형상이 존재하는 곳으로 이성으로만 인식될 수 있는 관념의 세계'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형상은 감각이 아닌 이성을 통해서만 인식할 수 있으며(②), 형상이 존재하는 곳이 이데아계임을(⑤) 알 수 있다.
- ③ (가)의 2문단의 '침대 그림은 보편자에서 두 단계 떨어져 있는 열등한 것'을 통해 플라톤은 현상계의 사물을 모방한 예술을 형상보다 열등하다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2 답 ④

→ 해기

이래서 정답

- ④ (나)의 2문단을 통해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상이 질료에 내재되어 있다고 보았고, '가능태란 형상을 실현시킬 수 있는 가능성 힘이자 질료를 의미하며, 현실태란 가능태에 형상이 실현된 어떤 상태'라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형상과 질료 사이의 관계는 현실태와 가능태 사이의 관계와 같다고 볼 수 없다.

왜 오답

- ① (나)의 2문단에서 형상은 '항상 사물의 생성과 변화의 바탕이 되는 질료에 내재한다'고 하였다.
- ② (나)의 2문단의 '가능태란 형상을 실현시킬 수 있는 가능성 힘이자 질료'라는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③ (나)의 2문단에 따르면 '가능태에 형상이 실현된 어떤 상태'는 현실태이고, 가능태에 있는 것이 형상이 완전히 실현된 상태인 완전 현실태로 이행하는 과정은 운동이며, 운동의 원인은 외부가 아닌 가능태 자체에 내재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형상이 질료에 실현되는 원인은 가능태 자체에 내재한다고 볼 수 있다.
- ⑤ (나)의 2문단에서 생성·변화하는 모든 것은 목적을 향해 움직이므로 가능태에 있는 것은 형상이 완전히 실현된 상태인 '완전 현실태'를 향해 나아간다고 하였다.

3 답 ①

→ 나누기

이래서 정답

- ① (나)의 1문단에 따르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데아계가 존재한다고 보지 않았는데, 그 근거로 현상계의 어린아이가 성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들었다. 즉 현상계의 사물이 이데아계에 있는 변하지 않는 형상을 본떠 만든 것이라면 현상계의 사물이 생성·변화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왜 오답

- ② (가)의 1문단에 따르면 플라톤은 현상계의 모든 사물이 이데아계의 형상을 본떠 만들어졌다고 하였으므로, 현상계에 존재하는 사물들이 모두 제각기 다른 이유는 서로 다른 형상을 본떠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나)에 현상계의 사물들이 제각기 다른 것과 관련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 ③ (가)에 따르면 플라톤이 형상과 현상계의 사물이 서로 독립적이라고 보지는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④ (가)의 1문단에 따르면 형상은 이데아계에 존재하므로, 형상은 현상계를 초월하여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현상계는 이데아계의 형상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세계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물이 감각에 의해 지각된다고 하였다. 그런데 (나)에 형상을 포함하지 않는 사물을 감각으로 느끼는 것이 불가능한 것과 관련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 ⑤ (가)의 1문단에 따르면 플라톤은 이성을 통해 형상을 인식할 수 있다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나)에 인간이 형상을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과 관련한 아리스토텔

레스의 견해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문해 공식 적용 관점 판단

플라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원불변의 이데아계는 형상이 존재하는 곳으로 이성으로만 인식될 수 있는 관념의 세계임. 현상계의 모든 사물은 이데아계의 형상을 본떠 만든 것임.
↑ 비판	
아리스토텔레스	이데아계의 변하지 않는 형상을 본떠 현상계의 사물이 생겨났다면, 현상계의 사물이 생성·변화하는 것을 설명할 수 없음. 예) 어린아이가 성인으로 성장하는 것

4 답 ②

✕ 곱하기

③ 이래서 정답

② (가)의 4문단에 따르면 플라톤은 음유 시인이 용기나 절제 같은 덕성을 갖춘 인간이 아닌 저급한 인간의 면모를 모방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견해를 지닌 플라톤은 <보기>의 음유 시인이 오이디푸스의 덕성을 연기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③ 왜 오답

- ① (가)의 3문단에 따르면 플라톤은 음유 시인이 '허구의 허구인 서사시나 비극을 창작하고, 이를 작품 속 등장인물의 성격에 어울리는 말투, 몸짓 같은 감각 가능한 현상으로 연기함으로써 다시 허구를 만들어' 낸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보기>의 오이디푸스는 덕성을 지닌 현상 속 인물을 본떠 만든 허구의 허구이며, 그에 대한 음유 시인의 연기는 이를 다시 본뜬 허구라고 할 수 있다.
- ③ (가)의 3문단에 따르면 플라톤은 '음유 시인의 연기는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는데, 이는 감각 가능한 외적 특성을 모방해 감각으로 파악될 수 없는 내적 특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보기>의 음유 시인의 목소리, 몸짓 등을 통해 오이디푸스의 성격이 드러난다면, 감각 가능한 외적 특성을 모방하는 과정에서 감각되지 않는 내적 특성이 표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④ (나)의 4문단에 따르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비극시 속 이야기는 음유 시인이 경험 세계의 개별자들 속에서 보편자를 인식해 내어, 그것을 다시 허구의 개별자로 표현한 결과물'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보기>의 음유 시인은 현상 속 인간의 개별적 모습들에서 보편자를 인식해 내어, 이를 다시 오이디푸스라는 허구의 개별자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⑤ (나)의 4문단에 따르면 아리스토텔레스는 관객이 음유 시인의 연기를 통해 '삶의 쾌감'과 '카타르시스'를 경험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보기>의 오이디푸스가 숙명에 의해 파멸당하는 것을 본 관객들은 인간 존재의 본질을 이해하는 쾌감과 카타르시스를 경험한다고 할 수 있다.

실전 12-D

본문 132~133

가 모방과 거울 뉴런

주제 거울 뉴런으로 살펴본 인간의 모방 메커니즘

구성

1문단	모방의 개념
2문단	어린 침팬지들과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모방 실험
3문단	거울 뉴런을 바탕으로 한 실험 결과의 해석
4문단	거울 뉴런으로 살펴본 인간의 모방의 의미

나 mim과 모방

주제 도킨스가 제안한 mim의 개념과 mim의 확산을 모방을 통해 설명한 블랙모어의 이론

구성

1문단	도킨스가 제안한 mim
2문단	mim의 개념과 mim의 확산을 설명하는 블랙모어의 '기생-숙주 모델'
3문단	블랙모어가 제시한 모방과 구별되는 세 가지 개념
4문단	신경 과학적 관점에서 설명한 mim과 mim 이론의 의의

1 답 ④

+ 더하기

③ 이래서 정답

④ (가)는 인간과 고등 지능 동물의 행동 차이를 보여 주는 실험을 소개하고 있다. 어린 침팬지들과 아이들을 대상으로 시범자의 행동을 관찰하여 따라 하게 한 실험 결과, 아이들과 달리 어린 침팬지들은 행동 목표를 관찰하기 어려울 경우 시범자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 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비효율적인 것처럼 보이는 행동까지도 정확히 모방하는 인간의 특징을 서술하고 있다. 한편 (나)는 도킨스와 블랙모어의 견해를 바탕으로 mim의 특징과 유용성을 서술하고 있다.

③ 왜 오답

- ① (가)는 거울 뉴런에 초점을 맞춰 인간의 모방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있을 뿐, 뉴런의 기원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나)는 도킨스가 문화와 관련된 복제의 기본 단위로 mim을 제안했음을 밝히고 있을 뿐, 문화에 초점을 맞춰 mim의 기원을 규명하고 있지는 않다.
- ② (가)는 모방의 과정에서 거울 뉴런이 활성화되며, 거울 뉴런이 뇌의 다른 부분과 함께 작용하여 모방의 수준을 높임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나)는 유전자 전달을 중심으로 유전의 특징을 소개하고 있지 않다.
- ③ (가)는 어린 침팬지들과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을 통해 모방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나, 모방의 분류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나)는 블랙모어의 '기생-숙주 모델'이 설명한 mim이 확산되는 과정을 제시하고 있으나, 사례를 유형화하고 있지는 않다.
- ⑤ (가)는 인간과 침팬지의 차이를 통해 인간의 모방의 특성

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mim과 유전의 차이를 통해 유전자 복제의 특성을 분석하고 있지 않다.

2 답 ②

이래서 정답

- ② (가)의 3문단에서 '목표 관찰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인간을 제외한 영장류의 거울 뉴런은 거의 활성화되지 않'고, '인간의 거울 뉴런은 행동 목표 외에도 행동이 실행되는 방식이나 의도 모두에서 정교하게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아이들의 거울 뉴런은 어린 침팬지들의 거울 뉴런과 달리 목표 관찰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행동이 실행되는 방식을 모방할 수 있다.

왜 오답

- ① (가)의 2문단의 실험에서 어린 침팬지들은 투명 상자의 경우 '먹이를 얻으려면 아래 칸만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듯이 불필요한 행동을 알아서 제거'했다고 하였다. 이러한 침팬지의 행동은 3문단에서 '투명 상자의 위 칸과 관련된 행동의 목표를 관찰하지 못하여 해당 행동을 따라 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 ③ (가)의 3문단에서 거울 뉴런의 활성화 정도는 '행동에 대한 관찰<관찰을 포함하지 않은 행동의 실행<모방' 순이라고 하였다. (가)의 1문단에서 모방은 '새로운 행동이나 선천적이지 않은 행동을 관찰하여 행동 그 자체를 복제'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거울 뉴런의 활성화 정도가 모방에서 가장 높은 이유는 행동에 대한 관찰과 행동의 실행이 모두 충족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 ④ (나)의 2문단을 통해 도킨스는 mim을 '유전과는 구별되는, 문화와 관련된 복제의 기본 단위'로 정의하고, mim은 '모방의 과정을 통해 한 사람의 뇌에서 다른 사람의 뇌로 퍼뜨려진다.'라고 설명하였음을 알 수 있다.
- ⑤ (나)의 2문단에 따르면 기생-숙주 모델로 mim을 설명한 블랙모어는 'mim에게는 mim을 더 많이 퍼뜨리는 복제 전략을 위해 숙주인 인간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3 답 ①

이래서 정답

- ① ㉠은 mim이 물리적 실체가 아니라는 점과 mim의 복제 원리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므로 ㉡이 이를 반박하려면 mim의 물리적 실체나 복제 원리가 명확함을 언급해야 한다. (나)의 4문단에 따르면 ㉢은 'mim은 모방에 의해 뇌에서 뇌로 전달'된다고 설명하는데, ㉠에 근거하면 모방의 과정에서 거울 뉴런의 활성화라는 물리적 실체를 증명할 수 있게 된다.

왜 오답

- ② 거울 뉴런이 인간의 주체적 의지로 활성화된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③ 모방에 의해 전파되는 mim의 복제 원리가 불명확하다는 것은 ㉠이 지적한 내용이므로, 이를 인정하는 것은 ㉡이 반박할 말로 적절하지 않다.
- ④ (가)의 3문단에 따르면 상대방의 행동 목표가 분명하다고 판단될 때는 거울 뉴런의 활성화가 영장류 모두에게서 일어난다. 그렇지만 mim이 인간 외 영장류에서도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을 ㉠에 근거하여 도출하기는 어렵다.
- ⑤ (가)의 3문단에 따르면 거울 뉴런은 '관찰을 포함하지 않은 행동의 실행'에서도 활성화가 일어난다. 그렇지만 모방은 관찰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므로 이를 mim의 복제 원리로 제시할 수는 없다.

문제 공식 적용 관점 판단

mim의 존재나 기능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는 사람	mim은 물리적 실체가 아니므로 구체적 단위를 설정하기 어렵고, 복제 원리가 불명확함.
↑반박	
mim 이론 지지자들	mim은 모방에 의해 뇌에서 뇌로 전달되므로 인간 뇌의 특정 신경 세포 다발이 연결되어 mim을 구성함.

어휘

- 기원: 사물이 처음으로 생김. 또는 그런 근원.
- 실체: 실제의 물체. 또는 외형에 대한 실상.

Memo